

믿음(1)

6/7/2009 주일 예배 설교

믿음이 적은 자들아 (You of Little Faith!)

●본문 : 마태복음(Matthews) 8:23-27 (신약 11면)

23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좃았더니
24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25 그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 그 사람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NIV)

23 Then he got into the boat and his disciples followed him.
24 Without warning, a furious storm came up on the lake, so that the waves swept over the boat. But Jesus was sleeping.
25 The disciples went and woke him, saying, "Lord, save us! We're going to drown!"
26 He replied, "You of little faith, why are you so afraid?" Then he got up and rebuked the winds and the waves, and it was completely calm.
27 The men were amazed and asked, "What kind of man is this? Even the winds and the waves obey him!"

덴마크가 낳은 세계적인 아동 문학가 안데르센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청년 시절에 당시 스웨덴의 여류 소설가 브레멘 여사를 만나 볼 계획으로 여객선을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데르센이 배 안에서 선장과 대화를 하다가 자기의 여행 목적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장은 안됐다는 듯이 혀를 차며 이렇게 대꾸를 하더랍니다. “브레멘 여사가 지금 외국 여행 중이라는 신문 기사를 제가 최근에 읽었습니다. 모처럼의 방문 여행인데 헛 걸음이 될 것 같아 참 안됐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안데르센은 몹시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이 지난 후 선장이 소리를 지르며 안데르센에게 달려왔습니다. “안데르센씨, 기적입니다. 당신이 만나려는 브레멘 여사사 바로 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같은 배를 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는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 교회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만약 안데르센이 선장으로부터 자기가 그토록 만나보고 싶은 브레멘 여사가 자기와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그 분은 원래 스웨덴에 가서 만나기로 했어! 그 곳에 가서 만나면 돼. 지금 여기서 그 분을 만날 필요는 없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좀 모자란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없던가 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지만 만약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예수님은 나중에 하늘 나라, 천국에 가서 만나 볼 분이야. 그 때 가서 만나 보면 됐지 지금은 만날 필요가 없어”라고 한다면 그가 과연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또 어떻게 예수님을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대접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나와 같은 배에 타신 그 분,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였던 그 분, 그 분의 함께 하심을 그토록 열망하였던 그 분을 우리는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은 배에 타신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대접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비춰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4:35-41)과 누가복음(8:22-25)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1. 배에 오르기 전의 상황

세 복음서를 참조하여 본 사건의 전후와 정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 곳에서 귀신들린 자를 고치신 직후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서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삼시간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어 그를 에워쌀 정도였습니다. 그 때 예수님은 모여든 사람들의 중심을 꿰뚫음과 동시에 인간적인 그들의 시선을 저버리고 그가 보냄 받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들을 피하여 갈릴리 호수 건너 편으로 가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모여든 무리들을 떠나가시려고 할 때 몇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좇겠다고 하였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아와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좇으리이다”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좇는 자의 그릇된 자세를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는 그런 길이 아니라, 자기 거처도 없는 고난의 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뜻과 목표와 계획과 계산으로 충만하여 도무지 예수님이 그 인생 속에 비집고 들어갈 수 없고, 주인으로 다스릴 수 없도록 마음을 닫은 너는 결단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찬물을 끼얹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을 주로 대접하며 그를 따라다니던 어떤 사람이 자기 부친의 일로 주님을 따르려는 것을 잠시 미루려고 하자 그를 도망치지 못하도록 붙드셨습니다. 죽은 시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장사지내게 해도 되니 너는 나를 따라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어 가는 생명들을 더 늦기 전에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못 가도록 붙드시며 너는 나를 좇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시기 위하여 배에 오르기 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그가 택하신 12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를 좇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히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자세와 어떤 험한 길을 각오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2. 풍랑을 만난 제자들

마침내 예수님이 떠나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시각은 날이 저물 때이었고, 예수님과 그의 12 제자들만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좇아 여러 사람들이 몇 몇 배에 나뉘어 뒤따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외에 이 때 뒤따른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경고와 격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래도 예수님을 좇겠다고 나선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 시각이면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 집을 향하는 법인데 그것을 마다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을 보면 보통 각오를 가진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배가 점점 마을과 사람들로 부터 멀어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좇겠다는 자신들의 결단을 대전스러워 하면서 가슴 부풀어 하였을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갈릴리 호수 위에 아름답게 수놓아 진 석양 노을을 즐기면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자연을 만끽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일입니까?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거세게 높아지더니 물이 순식간에 배에 가득하여 위태롭게 될 정도로 풍랑이 일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하였습니까? 어떻게 처신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반응을 기대하십니까? 세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처음부터 그 문제의 해결자로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기들이 해보다 안 되니까 막판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본문 24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해 지치셨으면 주무실까? 더 주무시게 내버려두자” 스승을 위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러나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갑자기 대풍이 불고 풍랑이 인 상황에서 그들이 취한 행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들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안중에는 예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지, 뭐 하고 계신지는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눈 앞에 닥친 이 광풍과 풍랑 속에서 어떻게 살아 남을까 그 생각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사 상황이 어떤 줄도 모르시고 태평스럽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가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처할 능력이 있겠는가 하고 아예 기대도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해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왜요? 동승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 잘 단련된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갖은 애를 썼을 것입니다. 한 쪽에서는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애를 쓰고, 그리고 다른 한 쪽에서는 배에 가득히 들어온 물을 밖으로 퍼내느라 혼신을 다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아무리 해봐도 역부족입니다. 이러다가는 전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들과 정 반대의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얄밟게 보며 혈뜯는 일입니다. 그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보일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눅 8:24),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마 8:25) 외치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더 인간적으로 “선생님이여(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막 4:38)라고 예수님의 무관심을 질타하고 태평스럽게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을 아니꼽게 본 것입니다.

때때로 갈릴리 호수에는 이같은 광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북쪽 높은 험몬산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갈릴리 호수의 더운 공기와 만나면 이같은 광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 현상으로만 보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배후에는 예수님의 간섭과 의도가 담겨 있어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모르고 주무시고만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멀리서도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데 그것을 모르신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3.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무시다가 깨시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 치고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센스 없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거센 풍랑으로 사경을 헤매고 무서워 떨고 있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적절한 말씀이겠습니까?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고 계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계속되는 그 다음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26절)라고 그들을 지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마가복음에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4:40)라고 하였고, 누가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8:25)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그같은 상황에서 자기를 좇은 제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활용하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상황에서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발휘해야 할 것이 아니냐? 너희 믿음은 어디다 두고 그렇게 무서워하며 난리 법석을 떠는 것이냐?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행동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신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이전에 믿음이 있었던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같이 좇아온 사람들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기 고향, 일가 친척, 생계를 뒤로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좇은 믿음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어떤 믿음을 기대하신 것일까요? 그들이 풍랑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대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사해서 “바람아! 물결아! 잔잔하라! 우리 스승님이 주무시는데 왜 그리 소란들인고?” 그렇게하기를 기대하신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믿음을 기대하셨길레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꾸짖으신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사건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적해야 할 초점입니다.

그것은 서두에 던지시 시사한 대로 풍랑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좇겠다고 나섰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정작 믿음의 주이시고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같은 배에 타고 계신 그 분이신데, 그에게는 아예 처음부터 도움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보다 안 되니까 막판에 가서야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찾은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같이 예수님을 대접한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상황에서 믿음이 큰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없이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풍량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쳐놓은 믿음이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기 확신, 자기 납득, 최면술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분의 인격과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실까? 그가 어부 출신도 아닌데 그를 깨운들 무슨 도움이 될까?” “예수님이 내 사정, 내 사업, 내 공부, 내 가정,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을까? 공감하시겠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은 하지만 그 분을 부를 생각을 아예 안하는 것입니다. 갑판 귀퉁이에서 주무시게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대접해드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적다고 생각하는 일부터 엄청난 일까지 모든 상황에서 항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분과 함께 호흡하며 교통하며 그 분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그와 더불어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이요, 그것이 믿음을 활용하는 것이요, 그같은 믿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도리어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그 분을 그렇게 대접한 것은 까마득히 잊고 “예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 죽을 지경인데 정말 모른 체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대든다고요. 그리고 막판에 가서야 우리는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다 해보다가 안 되면 최후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이 믿음이요, 기도요, 예수님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나를 놓지 않는 자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상태와 수준이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제쳐놓고 해보겠다는 생각은 교만이요 죄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와 우리들의 믿음은 얼마나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며, 대단한 큰 믿음을 가졌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를 믿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믿는 것이냐?” “너는 무엇을 믿는 것이냐? 누구를 믿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믿음은 또 이런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지적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쫓았던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가 친히 목격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풍량이 일고 거센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된다 하여도 자기들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은 배에 타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기

만 하였어도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할 바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왜요? 적어도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 마땅합니다. “이러다가 배가 전복되면 우리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되는데 우리만 죽나? 설사 예수님 혼자서 살아남는다 해도 그 분이 우리 없이 혼자서 일하실 분이신가? 또 다시 열 두 제자들을 세우사 처음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실 분이신가? 그가 우리를 친히 택하시고 여태까지 인도해오신 분이신데 우리를 물에 빠져 죽게 내버려두실 분이 아니시지. 그러니 바람아 불어라! 파도야 쳐라! 우리 옆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 어디 네 마음대로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믿음의 사고와 배짱과 확신을 가져 마땅한 그들이요, 동시에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사는 꾀꿉함이요, 당당함이요, 예수 믿는 맛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나 문제 자체만을 바라볼 뿐, 문제 너머 언제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치고 병들고 매 맞은 상처를 가지고 막판에 가서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팔사하고 푸대접한 것을 되새기며 꽤 씁해 하시면서 우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지적해 주시면서 동시에 친히 간섭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4.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본문 26절 말씀에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4:39)고 하였습니다. 꾸짖는다는 표현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윗 사람이 아래 사람을 대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정하거나 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 적절한 표현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부들은 제사를 드리며 무사하기를 비는데 반하여 예수님은 그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며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꾸짖는다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조금 전까지 그토록 거세게 불던 광풍과 배를 뒤엎을 정도로 거센 물결이 “아주(크게) 잔잔하여지더라”--점차로 잔잔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물결이 동시에 순식간에 잔잔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연을 제어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바람과 물결, 그를 거역할 자연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대인이 과학 문명을 가지고 예수님 없이 자연을 다스려보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이 문제만큼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식하게 하고 겸손케 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자연 재해들, 비, 눈, 바람, 지진,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바이러스와 신종 인플루엔자 등등. 어떻게 보면 우리를 겸손케 하며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꾸짖음과 채찍과 믿음의 방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단순히 기이히 여기는 반응을 보일 뿐, 그 분이 피곤하여 지쳐서 거친 풍랑 속에서

도 주무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참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거나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때때로 이같은 놀라운 주님의 간섭과 이적을 체험하고서도 단순히 놀라며 시큰둥하게 지나쳐 버릴 뿐, 또 다른 위급한 상황이 다가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생각하지 않고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목적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셨는지, 특별히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예수님께서 호칭하는 대상이 혹시 우리 자신들은 아닙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까?

첫째로, 믿음은 우리가 막판에 꺼내는 최후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저들 나름대로 해보다가 안 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안 찾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적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이며 큰 믿음인 것입니까? 아쉬울 때만 찾는 그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부터 찾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의 시선을 떼지 말고 집중하며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큰 믿음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예수님 없이 내 스스로 해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든 문제이든 간에 그것을 내 스스로 극복하거나 풀음으로 예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였습니다”라고 자신의 잘남을 꺼내놓는 것은 자랑이고 교만이지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밤낮 “이 정도밖에 못해!” 괘시를 받고 자라온지라 하나님 앞에 나의 잘남을 보이고자 하는 마음과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큰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잘 보이겠다고 나 혼자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배 안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됨과 교만과 자존심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 그 분 앞에서 자신을 숨기거나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분을 누리십시오. 그 분을 생각하시고 의식하시고 그 분의 뜻을 물으시고 그분께 간구하시고 도움을 구하시고 그분을 믿고 의뢰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찬송가 415장 2절 가사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고 도와주시는 믿음의 자세요 행동인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믿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여 풍랑 속에서도 단잠을 주무시는 참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풍랑을 꾸짖으시며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자연 만물을 다 말씀으로 제어하시고 그 분 앞에 순종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연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당신의 뜻과 목적을 따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의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 분의 손아래 있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어렵다고 비관하고 그분을 떠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분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고 사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어려움과 시련을 능히 통과케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히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말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참고 믿음으로 감당하면 좋은 날, 기쁜 날, 우리의 억울함이 풀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이를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무서움과 두려움과 염려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리 거센 강풍과 풍랑이 엄습해 온다하여도 요동치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제어하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갈릴리 호수에서 갑자기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같이 그런 위경에 놓여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회를 통하여 바른 믿음을 일깨워주고 예수님을 신뢰케 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우연이란 없습니다. 다 우리 예수님의 간섭이십니다. 우리를 바로 세우고,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며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보이시는 열심이요 집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를 신뢰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가 아니라, “참으로 너희의 믿음이 크구나! 이만한 믿음을 가진 너희를 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2)

6/14/2009 주일 예배 설교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It will be done just as you believed it would.)

◎본문 : 마태복음(Matthews) 8:5-13 (신약 11면)

- 5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
- 6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 7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 8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 9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 10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 11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 12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 13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NIV)

- 5 When Jesus had entered Capernaum, a centurion came to him, asking for help.
- 6 "Lord," he said, "my servant lies at home paralyzed and in terrible suffering."
- 7 Jesus said to him, "I will go and heal him."
- 8 The centurion replied, "Lord, I do not deserve to have you come under my roof. But just say the word, and my servant will be healed.
- 9 For I myself am a man under authority, with soldiers under me. I tell this one, 'Go,' and he goes; and that one, 'Come,' and he comes. I say to my servant, 'Do this,' and he does it."
- 10 When Jesus heard this, he was astonished and said to those following him, "I tell you the truth, I have not found anyone in Israel with such great faith.
- 11 I say to you that many will come from the east and the west, and will take their places at the feast with Abraham, Isaac and Jacob in the kingdom of heaven.
- 12 But the subjects of the kingdom will be thrown outside, into the darkness, wher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 13 Then Jesus said to the centurion, "Go! It will be done just as you believed it would." And his servant was healed at that very hour.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종종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기대를 걸곤 합니다. 어떤 기대를 예상한다는 것은 상대방과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서 어떤 것이 보여지기를 기대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거는 기대가 있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피차 기대하는 수준과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인이 목사님에게, 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국민이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대에 부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우리는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인정하며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당연히 어떤 반응과 결과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전혀 뜻밖의 반응을 목격하게 될 때 우리는 적지 않은 실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하였던 어떤 수준과 반응과 결과를 목격하게 될 때 우리는 적지 않게 놀라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응당 하나님을 잘 알고 그가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마땅한 유대인들은 오히려 영적인 무감각과 무지함 가운데 예수님을 거역하며 배척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인이었으며 로마 군인의 지휘관으로서 기대에 어긋난 부정적인 시각을 갖기 쉬운 사람인데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흠족한 것이었으면 예수님께서 본문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칭찬하였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저마다 예수님을 몇 년 혹은 몇 십 년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같은 수준에 있거나 없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나는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수준에 와 있는지 각기 점검하고 분발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왕 예수님을 믿을 바에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받는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 십 년 믿어도 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기대 이하에서 머물며 실망을 안겨다주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본 사건을 통하여 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게 되었는지 그 믿음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1. 백부장의 믿음

오늘 본문의 사건은 누가복음 7:1-10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백부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다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2-5을 보십시오. “어떤 백부장

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 장로 몇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사건이 서로 모순된 것을 가리키지 않고 각기 기록자의 의도에 따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자기 기록의 목적에 따라 간략히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전하면 되기 때문에 백부장이 직접 온 것으로 기록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비교적 사건을 순서대로 소상하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을 참조하면서 이 사건을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는 때이고, 여기 등장하는 백부장은 수하에 백 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이방인 출신의 로마 군인입니다. 그는 백부장으로서 군대를 직접 지휘하고 통솔할 수 있는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로마 당국에 속해 있는 자로서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7:5 말씀대로 그가 유대 민족을 사랑하여 저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회당은 그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서만이 아니라 온갖 사회, 문화적인 활동과 심지어 재판까지도 행해졌던 유대인의 공적 삶의 센터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녹을 먹고 있는 로마 군인으로서 유대인들을 감시하고 압제하는 자로서 그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 강점 시대에 일본군 장교가 우리나라 사람을 위하여 독립 회관을 지어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회유 작전으로 일부러 회당을 지어준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살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님을 유대 장로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유대 민족을 사랑하게 되었는가는 조금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아무튼 그가 유대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할 리가 만무합니다. 로마 당국이 알면 당장 목이 달아날 일입니다.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유대인들이 흑시라도 있다면 당장 고발되어 숙청감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험도 감수하고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로마 압제 가운데 있는 유대 민족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녹을 먹고 있는 자로서 그가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받기에 회당을 지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자기가 가진 모든 물질과 수단과 노력을 다 동원해서 그 일을 하였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행동에 대하여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은 당연합니다. 평소에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수하에 있는 어린 종이 중풍병으로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백방으로 그가 사랑하는 종을 고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는 모습을 안타깝게 옆에서 지켜본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지라,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 딱한 사정을 예수님께 알려서 고쳐달라고 하자” 하면서 자기들의 의견을 백부장에게 아뢰고 그의 승인을 받아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하며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준 고맙기가 그지없는 로마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의 종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제발 그 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7:4을 보니 “저희가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옵니다”(“He is worthy for You to grant this to him.”)(NASB) “This man deserves to have you do this”(NIV)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 이런 사람의 청을 안 들어주고 누구의 청을 들어준단 말입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합당한 사람입니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 장로들의 예수님께 대한 요청도 간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교인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다른 누구보다도 이런 성도님의 도움과 필요를 채워주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토록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정성을 다해 섬기고 구차한 중에도 아낌없이 바치는 성도님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모른 채하시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또한 그런 중보의 기도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변에 주님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뉴비전 교회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교회를 도와주시렵니까? 건물주와 자기만을 위한 생각으로 바로 옆으로 이사 온 교회만을 도와주시렵니까? 왜 우리만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까?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이제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제 일어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넓은 공간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앞길을 가장 선할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은 이 로마 백부장의 사람 됨됨이입니다. 그는 유대 민족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종도 극진히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종은 사람대접도 받지 못하는 천한 계급이었습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사고팔고, 죽일 수 있었습니다.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낫게 해주기 위해서 애쓰는 주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종을 거느리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 백부장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어린 종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모릅니다. 어찌 그 한 종만 사랑하였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백부장의 모습을 지켜본 유대 장로들은 얼마나 큰 감명을 받았겠습니까? 또 그로부터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그들이기 때문에 발 벗고 나선 것입니다. 교만하고 외식하며 무정한 성경의 다른 유대 장로들과는 달리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 장로들은 뭔가 다른 것입니다. 바로 백부장의 행동에 큰 감명을 받은 그들인지라, “예수님,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라고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사람 됨됨이, 그의 사랑, 오히려 핍박하고 압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그의 신분이지만 도리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줄 수 있었던 그의 사랑! 그 누구도 사람 취급해주지 않는 종을 위하여 그가 보여준 사랑! 이것은 그 당시 어느 누구에게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사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감동케 하였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율법 교사나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훌륭한 인격이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사람 됨됨이는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얼마나 이웃 교회들에게도 도전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기쁘게 여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6-8에 보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낮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 생략된 말씀이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된 것입니다. 유대 장로들을 보낸 백부장은 다시 자기 친구들을 보내어 자기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의 집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황송한 일입니다. 그러니 다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자기 친구들 편에 자신의 뜻을 예수님께 전하였습니다.

주의할 것은 유대 장로들을 보내고 나서 백부장의 마음이 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유대 장로들을 보낼 때에는 어떻게 해든지 자기 종을 살려야 하겠다는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수많은 병들을 고쳐주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유대 장로들이 기꺼이 자기의 딱한 사정을 알고서 대신 수고해주겠다고 하였을 때 그는 “이제 내 사랑하는 종을 살릴 수 있겠구나”하는 기쁨과 기대로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내고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이렇게 처신해도 되는가? 다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수많은 병자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고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서 이 전에 같은 장소인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일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4:46-54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자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빨리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 저와 함께 집에 가서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서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모두지 믿지 아니하리라”(요 4:48)고 말씀하시면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50절)고 말씀하시고, 그 말을 믿고 집에 내려가던 중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서 말씀하

셨던 그 시각에 자기 아들이 살아난 것을 자기 종들로부터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을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모르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그가 유대 민족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것도 따지고 보면 그가 유대 민족을 사랑할 수 있었던 동기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의 동기는 다름 아닌 그가 유대 민족과 상대하면서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유대 민족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 민족이구나! 또 그 하나님은 참 신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가 믿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근거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좋은 사람, 훌륭한 인격을 갖춘 도덕 군자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에서 나올 수 없는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친구들을 다시 보내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것도 그런 일관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하였겠습니까? 미국에 살면서 어떤 집에 가면 미국의 저명인사들과 만난 것을 기념하여 찍은 사진을 걸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영광으로 알고 빛을 내서라도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찾아오시는 것을 거절하며 “황공하오니 그저 전하실 용무가 있으시면 비서나 서신으로 말씀하십시오”라고 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백부장이 자기 집이 누추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황송하게 생각하며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군인들과 하인들을 거느리는 사람이니 누추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괜히 빼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고위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어찌 나 사렛 예수 같은 사람을 내 집에 들일 수 있느냐” 하면서 그럴듯한 말로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백부장이 감당치 못하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함에서 오는 그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백부장의 말대로 “주님(Lord)이 아니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신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이 아니신가? 과거 이 곳에서 다만 말씀으로 떨리셔도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셨던 분이 아니신가? 그런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런데 어찌 그 주님이 나 같은 하찮은 인간, 죄인이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압제하는 로마 군인의 신분으로서 그 분을 뵈 수 있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온 만유를 다스리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주님을 어찌 내가 오시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히려 내가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해야 마땅한 자가 아닌가?” 이것이 백부장이 다시 자기 친구들을 보내게 된 이유이며, 그들을 통하여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고 전달케 한 이유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니다(I am not worthy for You).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도 감당치 못할 뿐만이 아니라,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눅 8:7, 마 8:8)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접하는 믿음을 보십시오! 그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지만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으로 제대로 공경하며 깎듯이 대접한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책잡고 비판하지 않으면 기껏해야 병 고쳐준 것을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을 표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다만 소문과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 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제대로 높이며 공경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분이 하시는 일을 봐서 믿어주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앞에 항복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백부장은 단지 예수님께서 자기 종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분에게는 그런 일은 아무 것도 아닌 것입니다. 수 천 마일 떨어져 있다 하여도 주님이 고치실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의 일부분일 따름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자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눅 7:8)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령을 내리시기에 합당하신 사령관이시고 주님이며 왕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복해야 마땅한 졸개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명령만 하달하옵소서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이 가졌던 큰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대접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분이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믿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나에게 어떤 감사 거리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을 주라 부르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병도 안 고쳐주시고, 내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가정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고, 자녀들은 갈수록 속 썩이고, 사업은 더욱 더 어려워지기만 하는데” 하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로 부르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이런 것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서 저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그러면서 주일 날 교회에 나오기도 싫고, 기도하면 뭐하나? 헌금해서 뭐하나? 성경 공부해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녀들로 훈련시키십니다. 만약 부모인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에게 용돈이나 주시고, 장난감이나 사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제공해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고, 만약 용돈도 제대로 줄 수 없을 때에는 무능력한 부모라고 여러분을 괘시한다

면 그 자녀를 여러분의 자녀라고 마냥 이쁘게 보고만 있겠습니까? 버릇 나쁜 자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재 수중에 수 만 불이 있다 하여도 그것을 털석 주지 않고 자녀를 훈련시키는 법입니다.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대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될 수 없는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에게 참다운 복과 유익이 무엇인지 아시며 그 분의 선하신 뜻대로 자녀들인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이것을 해결해 주면 제가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조건부로 섬기며, 그 분과 흥정을 하다니요? 우리는 그것을 주장할 위치와 요구할 권세가 없는 자들입니다. 합당한 자들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요 교회이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왕으로서 다스리시며 그의 뜻대로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분이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나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의 명령만이 참된 행복과 영생을 보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잠잠하며, 그 앞에 순종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믿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기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13에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오니라”고 하였고, 누가복음 7:10에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사건을 소개한 것은 “너희 유대인들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온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너희들의 믿음이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만큼의 믿음이라도 있느냐? 표적과 기사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 백부장처럼 대접한 적이 있느냐?”고 유대인들의 믿음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8:11-12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덧붙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들을 일으켜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2. 본 사건을 통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결론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까?

1)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믿음을 원하신다

첫째로,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

음에 백부장은 자기 종의 병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으로 예수 앞에 유대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리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마음의 위안도 얻고, 병도 고치고,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해결함 받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동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병도 낫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때로는 눈에 보이는 물질과 형통함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마냥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며, 그것을 목적으로 삼거나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지 않으십니다. 그 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그 분에게 위탁하고, 그 분의 인격 앞에 완전히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같이 당신의 주권과 권위를 끝까지 찾으시며 고백케 하시고야 마시는 능력과 집념과 열심과 거룩한 고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가 없는 것입니다. 부단히 훈련시킬 것이고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그런 행복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실력 행사를 하고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워 보려고 머리도 굴리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하여도 끄떡도 안하시는 것입니다. 감히 네가 누구인데 하나님을 힐문하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좋은 말로 합시다”라고 대드뇨?(롬 9:14, 19-20)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원하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 보서 2:12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로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내세운 나머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즐겨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사랑만 외치고 복만 외친 결과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며 징계를 통해서라도 바로 잡으시는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분이신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죄도 담대하게 짓습니다.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떳떳이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은, 제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대적하며 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주님 대접도 안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통회할 일인 것입니다.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대접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하자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받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지 못하자 이방 나라를 들어 쓰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응당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크신 하나님을 목격해야 되고, 그들을 통한 징계를 겪어야만 합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대 밖의 기대를 우리에게 걸고 있는 것이 아닙니

다. 그 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분의 명령과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 살면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인 것입니다. 이방인 백부장도 그런 수준에 올랐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게으름이며, 불신앙인 것입니다.

백부장이 고백한 믿음, 그가 믿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갖는 확신, 감사, 든든함일 것입니다. 이런 철저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그리고 우리 속 중심까지 행복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면서 오늘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3) 믿은 대로 되리라는 믿음을 원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가 믿은 대로 되라는 믿음, 믿은 대로 행동에 옮기고 실천한 믿음이었습니다. 말로만 주여! 라고 부른 자가 아니라 실제로 믿었던 자요, 주님이라면 능히 나의 종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 직접 찾아오시지 않아도 다만 말씀만 하셔도 나올 수 있다는 믿음, 주님이 명하시면 즉시 따르겠다는 믿음, 이같은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믿음이었고, 그러하기에 그의 믿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믿는다고 기도하고 아멘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기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믿은 대로 되리라는 믿음보다는 되지 않을 것 뭐 하러 믿느냐? 구하느냐? 그런 우리들은 아닙니까? 그래서 의외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 중의 주된 하나는 우리가 기대하고 믿는 내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낮고자 소원하지 않습니다. 해결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풀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응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주님이 되게 하시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 믿은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23-24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3절에서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에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자도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도 중요한 믿음의 방편, 응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밤낮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저 인간은 안 변해! 우리 교회는 안 돼!”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라는 것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믿은 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니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저는 다른 누구나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믿습니다. 주님, 낮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나는 믿겠습니다. 믿은 대로 살겠습니다. 믿은 대로 이루어 줄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며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사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에 대하여 어떤 기대와 믿음을 주님 안에서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장래와 사업과 결혼과 가정과 자녀들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와 교인들을 향하여 어떤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웃들, 전도할 대상자들을 향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 믿은 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시 생각하고 가져야 하는 믿음은 단순한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허황된 생각이나 믿음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갖는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얼마나, 어떻게,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크기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하는 응답과 주님의 칭찬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큰 깨달음과 믿음의 점점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4)

6/28/2009 주일 예배 설교

믿음의 시련 (Trials of Faith)

◎본문 : 야고보서(James) 1:1-4 (신약 371면)

- 1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 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 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 3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 4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NASB)

- 1 James, a bond-servant of God and of the Lord Jesus Christ, to the twelve tribes who are dispersed abroad, greetings.
- 2 Consider it all joy, my brethren, when you encounter various trials,
- 3 knowing that the testing of your faith produces endurance.
- 4 And let endurance have its perfect result, that you may be perfect and complete, lacking in nothing.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다리거나 참고 인내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참고 인내하십니까? 오늘처럼 화씨 100도가 넘는 더위에 에어컨이 고장 났다고 합시다. 게다가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 설교를 평상시보다 10분이나 더 길게 설교하고 예배 시간도 그만큼 늦게 끝났다고 합시다. 당장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배를 끝까지 드리고 나신 분들도 속으로 다시는 안 온다고 투덜거리며 문을 박차고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에 봉착합니다. 갑자기 닥친 시련들이 있습니다. 식구의 죽음이라든가, 사업의 실패,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의 분란, 기대하고 노력했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마음과 계획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의 기간이 잠시 동안이 아니라, 점차 길어질 때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처음에는 갑자기 닥친 시련으로 놀라서 어쩔 줄 모르다가, 조금 시간이 흐르면 점차 마음의 평정을 찾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길면 길수록 우리 마음 저변에서부터 불평과 불만과 반항심이 들끓어 오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좌절과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참고 인내하며 견딘다는 것이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련의 기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도리어 일을 더 그르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며 인내했다라면 일이 순조롭게 해결될 일을 그새를 못 참고 감행하다가 사태만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훈련받고 연단 받아야 할 우리의 품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참고 기다리는 인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왜 야고보가 흠어진 유대 신자들에게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까? 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사방으로 흠어진 것입니까? 시련과 핍박을 참고 인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쉽게 기도하다가도 포기하고 중단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시기를 기다리지 못해서가 아닙니까? 왜 한 때는 은혜를 체험한 성도가 여러 가지 시련에 부닥치자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을 등한시합니까? 시련을 견딜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련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는 시련 자체에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서 그 시련이 가져올 유익과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모르거나 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그 시련이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유익과 선과 나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만 확고히 붙잡고 있어도 우리는 여러 시련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통과하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처럼 자신만 인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인내하지 못하는 주위 성도들을 위로하며 끝까지 인내하라고 북돋아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1. 성도에게는 반드시 시험(시련)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여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도 없을 것

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이럴 바에야 왜 예수를 믿어?”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고 어떠한 어려움이나 곤경에 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20에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라고 하였고, 16:33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가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기만을 바란다든지, 어려움이 없어야 신앙의 수준이 높은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33의 말씀도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신다면 아예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만약 예수 믿으면 어떠한 환난도 당하지 않는다면 아마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예수 믿지 않을 때 겪지 않아도 되는 갈등과 미움과 손해를 당해야 하고, 또 더 큰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더 큰 환난과 어려움도 그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고 쓰러뜨리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자랑과 특권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이길 담대함과 승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장된 싸움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결과가 분명한 승리인데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가는 과정에서 겪는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대수이겠습니까? 승리가 보장된 것이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참고 인내하며 승리를 얻기까지 과정에서 겪는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내하며 감당해낼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미래와 영원이 보장되고 승리가 확실한 경기를 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 승리의 기쁨은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어 집니다. 승리가 보장되었다고 안심하며 경기에 임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과 자랑과 특권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없고, 시험이 오다가도 예수 믿는 자들을 만나면 무서워 피해가고 그러는 것입니까? 사단과 악한 영들이 예수 믿는 자라고 무서워 공격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이 다가와도 예수님 때문에 승리가 확실하므로 거기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고 나가며 담대히 싸워 승리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특권은 그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더욱 성장하며 성숙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인내하며 꿋꿋하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더욱 높은 수준의 성숙한 성도다운 성도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2절)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 시련에 대한 성도의 자세와 반응

1)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Consider trials all joy!)

그래서 시련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반응은 첫째로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어렸을 적에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지 않으려고 아프다고 피병을 부린 경험들이 있으시죠?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펄펄 나르며 뛰어놀던 녀석이 그 다음 아침 날 아프다고 학교를 안 가는 것입니다. 시험 보기 싫어서, 시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시험을 왜 자꾸만 보는 것입니까? 주말 고사, 중간고사, 기말 고사, 분기별, 학기별, 학년별로 시험들이 많습니다. 매일 보는 퀴즈도 있고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진학을 위한 시험들, 또 직장 취직 시험, 운전면허 시험, 각종 자격증 시험, 시민권 시험 등등 수많은 시험들을 우리가 살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험들을 왜 이렇게 자주 보는 것입니까? 수험생들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시험들을 통해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에 통과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밤이 맞고 날이 새도록 열심히 시험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시험도 없고 평가도 없이 졸업장을 주고 학위를 준다면 어느 누구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실력도 향상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낙방이라는 쓰라린 체험을 통해 더욱 분발하여 성공하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test로서의 시련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시련(trials)으로서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인생을 배우고, 인간을 배우고, 나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삶의 지혜를 얻고, 또 그것을 기회로 예수님을 믿는 결단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이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유익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값고 우리의 참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우리는 시련이 없기만을 바라고, 시련을 주시면 도망가기 바쁘고, 요리조리 피하고자 머리를 굴리고 있으니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말씀은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말씀이 아니라, 그 시련을 누구나 받게 되니까 회피하거나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케 하는 훈련이므로 기쁨으로 감당할 것을 권한 것입니다.

가령, 큰 시련과 고통 중에서 욥이 이런 놀라운 깨달음의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2-6의 말씀입니다. 먼저 2절에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당신께서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동의를 구하기 전까지는 어떤 일도 이루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잘 아시고, 무

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며 정작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그 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이루심에 있어 우리의 이해와 동의를 다 구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3-6절) 이것은 신앙을 기껏해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전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욥의 신앙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인, 그의 영적 시각을 높여주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더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서있는 욥의 새로운 모습,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고, 회개 가운데 부활의 신앙까지도 갖는 욥의 한 차원 더 성숙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 이런 수준에 이른 것입니까?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그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머리와 살아온 경험과 지혜와 믿음의 수준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내게 떨어진 일들,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당하고 불의한 자로 몰고 가려는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을 무사고, 무문제, 무시련, 만사형통만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공식을 이제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도리어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역경들을 인하여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기쁨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어떤 일부분만 기뻐하고 어떤 부분은 싫어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없기만을 바라거나 회피하려는 우리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Consider it all joy”라고 하였듯이 모든 것을 다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 가지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고 분란이 생길 때 기뻐하며 웃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업에 망하고 시험에 떨어졌는데 호탕하게 껄껄 웃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다면 정신 병원에 가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 어떻게 된 것 아니야?” 그런 의심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뜻은 우리가 시련 앞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모른 체하라든지, 헛웃음만 보이는 조소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시련을 인내하며 성실히 감당하고 통과함으로 가져올 결과와 목적과 하나님의 빛으시고 만드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기뻐할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부분만 기뻐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 내 안에 이루실 역사와 뜻과 목적 때문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시련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성도는 다름 아닌 그 시련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사람일 것입니다. 시련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과 시련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서로 불가불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시련에 대하여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시련을 인내하며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시련을 받아드리고 기뻐하는 성도는 자기가 기뻐했던 부분이 무너지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실족하거나 뒷걸음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가져옴을 알라

(Know the trials of our faith produce endurance)

이제 야고보는 우리에게 반드시 닥치는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Consider trials all joy)고 하였고,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라(Know the trials of our faith produce endurance / Know the testing of our faith produces endurance)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우리 안에 인내라는 성숙한 인격과 품성이라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이는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가?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라.”

(1) 시련에 대한 우리의 초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여러 가지 시련들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끝까지 감당하였더니 마침내 우리에게서 시련이 물러갔다, 시련이 더 이상 없기만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시련의 때가 이제 끝났다는 것만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시련을 겪더니 이제 성공해서 아무런 시련 없이 살게 되었어!”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초점과 관심은 그동안 힘들었던 시련이 떠나가고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련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 시련을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십니까? “저 자녀에게 언제쯤 시련이 지나가도록 할까?” 그 시기만 계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시련을 언제 거둘 것인가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분의 관심은 이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성장시키시며 성숙하게 만드는데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고생 시킨 보람이 있구먼!” 그러십니다. 시련이 아니고서는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우리의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인하여 기뻐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믿고서 잘 참고 인내한 우리를 대견스러워 하십니다. 자식 나은 보람, 키운 보람을 거기서 느끼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초점은 단지 우리에게서 언제 시련을 거두어 갈까에 있지 않습니다. 시련이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고 가꾸시며 빛으시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도 시련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언제 시련이 지나가느냐에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빚어지기까지는 그 시련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신앙 성장과 성숙의 장애물인 우리의 인내하지 못함

그런데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꺾고 다듬으시고 채우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들라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라는 열매와 품성과 인격을 만드시는 일에 여러 가지 시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인내가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 목적으로 주시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마다하고 도망치며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마라톤 경기입니다. 신앙의 경주도 그와 같습니다. 어떤 한 순간 세운 기록만 가지고 자랑하며 평생을 때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운 신기록만 믿고 대회에 나가 마지막 결승점까지 뛰지 않으면 그 선수는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경험한 은혜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지속하려고 하는 것은 더욱 무미건조한 종교생활만 낳을 뿐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뛰라고 하신 신앙의 경주를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뛰는 자야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중요합니다.

또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는 주된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인내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빠른 지름길이 있고, 단기에 완성할 수 있는 속성 과정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거나 기다리거나 지속적으로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읽기나 성경공부도 인내하며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할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은 졸업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인내하며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주 장애물이 바로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의 급한 성미,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미성숙한 인격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저지르는 대부분의 죄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싸움이나 분쟁도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교인들간의 갈등과 교회의 분쟁도 인내하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화김에 저지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내 뜻을 관철하게 되고, 형제간의 잘못도 용서하지 않고, 악으로 갚으려고 대들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신앙이 성장 했나 안 했나, 성숙한가 아닌가를 평가할 수 있는 비결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아는 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던 분들에게 찾아가서 “만약 당신에게 그동안 고생하였던 똑같은 시련을 주신다면 감당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두 번 다시 똑같은 경험을 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겪은 시련을 통하여 어

편 유익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각자 간증거리가 많을 것입니다. 시련을 우리가 싫어하지만, 그 시련이 우리에게서 돈으로 살 수 없는,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시련을 통해 이전보다는 더 높은 수준과 상태로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3)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산출한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시련의 결과로 인내의 덕을 이루게 되지 않느냐?” 물론 사람들마다 모든 시련들이 다 인내라는 품성을 쌓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시련을 겪은 나머지 사람들을 믿지 못한다거나, 피해 의식속에서 살기도 합니다. 또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시련을 통해 자수성가 하였을 때 이제는 자기 힘만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시련이 인내라는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믿음의 시련”이라고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만 인내라는 신앙 성숙을 가져온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시련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먼저 “믿음의 시련”이란 믿음에는 반드시 시련이 뒤따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뿐만이 아니라, 닥치는 시련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련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나에게 주어진 이 시련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신앙 성숙을 가져오는 유익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사실 이와 같은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시련을 참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욥이 가졌던 믿음도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욥 23:10)는 믿음인 것입니다. 호된 시련이지만 이 훈련을 통해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정금처럼 성숙한 수준에 이를 것을 믿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이런 믿음으로 시련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시련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만드시고 성숙한 수준에 이르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련을 이길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그 무엇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아니고, 내 식구들도 아니고, 어느 누구나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시련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다 이겨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뻐하며 인내함으로 훈련을 받고, 또 그 훈련을 통해 인내라는 아름다운 열매, 성숙한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은 시련을 믿음으로 견디어 내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 주실 선한 결과를 믿으며 견디고 인내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이지 믿음을 떠난 그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인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은근과 끈기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깡다구로 버티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뿐입니다. 호된 시련을 견딜 힘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 시련을 통해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 시련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은 설사 그 시련을 극복했다 하더라도 그 시련이 나의 인격 성장을 가져오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다든지 자기 힘과 경험만 의존하게 되고 어려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고 위로하기는커녕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으로 보며 우습게보기가 십상입니다. 한 마디로 인격이 성숙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하는 사람은 자신만 성장하고 성숙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련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역할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련의 과정에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시련을 감당하시고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3) 인내를 통하여 성숙에 이를 수 있음

(Through endurance we can grow to full maturity)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까지 시련을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성숙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로 앞 절 2절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였는데, 4절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대충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성숙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대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도 적당히 믿으려고 그러지 깊게 들어가면 시험에 들기 쉽다고 그러합니다. 대충 믿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 성숙이 아닌 맹종의 신자들이 가져온 여파인 것이지 그것 때문에 성숙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는 핑계거리로 삼아서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두 번 참고 인내한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시련을 이긴 것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끝까지 참으시고, 생명이 다하기까지 믿음의 시련,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만이 아닙니다.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시련을 이겼다!”라고 안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망심하고 경성하지 않으면 또 다른 시험과 시련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시련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계속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4절)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련은 책상에서 책으로, 듣는 것으로, 머리로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몸으로 체험하는 학습과 연단과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됨됨이를 더욱 성숙케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7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시련이 정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들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옳겠습니까?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 영원한 영광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심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토록 누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있는 중이십니까? 시련의 과정에 있으십니까? 야고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시련이 가져올 유익과 궁극적인 선과 성장과 성숙을 바라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실하시고 집요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빛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시련의 용광로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믿지 않은 이웃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훗날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안에 안길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온전한 성도, 성숙한 성도로서 하나님 존전에 서고 그와 더불어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5)

7/5/2009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 (Ask wisdom in Faith)

●본문: 야고보서(James) 1:5-8 (신약 371면)

-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 6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 7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 8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NASB)

- 5 But if any of you lacks wisdom, let him ask of God, who gives to all men generously and without reproach, and it will be given to him.
- 6 But let him ask in faith without any doubting, for the one who doubts is like the surf of the sea driven and tossed by the wind.
- 7 For let not that man expect that he will receive anything from the Lord,
- 8 being a double-minded man, unstable in all his ways.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움과 곤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어려움이 해결되고 더 이상 우리가 그것들로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우리는 얼마나 소원하고 기대합니까? 그러나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더욱 어려워지기만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도 시련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와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지혜입니다.

1.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시련의 때야말로 우리에게서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하고 있는 시련이 무슨 이유에서 비롯되었는지, 그것이 어떤 목적과 유익으로 주어진 것인지, 또 시련을 어떻게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겠는지 내 머리에서 짜낸 지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Character First"라는 품성 교육의 정의에 의하면 첫째로, 지혜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인과응보를 미리 깨달아 결정적인 태도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가져올 결과가 무엇인지 내다보지 않고 우선 당장의 눈앞만 보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나 나라를 생각하기 전에 내 배 먼저 채우며 사리사욕에 눈이 어둡다보니 지도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선 성적을 올리고 대학에 들어가고 보자는 생각이 앞서다보니 시험 부정행위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선 나 먼저 살고보자는 생각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장차 그 일로 초래될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멀리 내다보는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려워하지 않고 감행합니다. 우리 판에는 머리를 써서 지혜롭게 처신하였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우둔한 결정이었음을 나중에 고통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내다보고 행하십니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세상 법칙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 결과를 내다보고 지금 거기에 맞는 씨를 뿌리는 것이 참 지혜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지혜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가 나타나기를 내다보고 심고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 거둘 것이 무엇인지 내다볼 수 없다면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참 지혜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참 지혜를 낳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의 중심을 꿰뚫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하는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할 때 참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혜란 우리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는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참 지혜란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잠언 2:6에 “대저 여호와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라고 하였습니다. 지혜는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누구에게 구하라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5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안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산상 설교 마지막에 언급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관한 말씀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의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의 집은 겉모양이 다른 집이 아니라 외관상으로 똑같은 집임을 잊지 마십시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호화찬란한 고층 건물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초가집이 아닌 것입니다. 두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까지는 외관상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쪽이 무너지고 나서야 그 집의 기초가 차이가 있었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자가 그의 초점과 시선이 사람의 칭찬에만 집중되어 있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건축자가 된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았기에 모래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분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며 겉모습에 취한 삶에서 돌이켜 은밀한 중에 보시며 갓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좇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런 때일수록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지혜는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지혜는 인생 경험이 많은 노인들에게서 구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선배와 경험자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배울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들이 배우고 깨달은 지혜가 세상적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장과 고집만 내세우는 인간적인 지혜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하지만 미련한 어리석은 길을 택하며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혜를 가장 많이 구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학생을 둔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구하여서 수많은 재물과 구하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서 천 명의 처첩을 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또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지혜를 공부와 동일시하여서 일류 대학에 가기 위하여 지혜를 구한다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이겠습니까? 아마도 자식을 위해서보다도 참 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본인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14-16절에 언급한 대로 세상적이며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지혜가 있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같은 지혜는 진리를 거스르고 시기와 다툼과 요란함과 악한 일을 가져오는 거짓 지혜입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고 말씀하신 지혜입니다. 성결, 화평, 양순, 긍휼, 선함, 편벽과 거짓이 없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에서도 능히 승리하며, 어떤 어려운 인간관계에서도 능히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같은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5절에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같은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되 후히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겨우 가까스로 이기고 견딜만한 지혜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고 충만한 지혜를 주십니다.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지혜를 베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같은 하나님의 후히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여 받으시고 시련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과 “두 마음(double-minded)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unstable) 자”라는 말씀은 여기서 언급한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리키는지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기도대로 응답해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 지혜를 주실 것을 믿는다는 믿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 믿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의 지혜도 구하고 세상 지혜도 구하는 것이 다름 아닌 두 마음과 정함이 없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만 풀린다면, 그 문제를 풀어주는 자가 있다면 누구든 신으로 모시겠다는 두 마음인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지혜만 얻으면 된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라든지, 기도에 응답해주실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뜻보다는 지혜를 주시고 응답해주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뜻을 가

리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의 자세와 태도로 나오는 기도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였습니까?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성도의 기도는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것입니까?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안 될까?” 우리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는 응답해주시기를 원치 않으신답니다. 그러므로 누가 먼저 태도를 바꿔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주실 하나님께서 바꾸시겠습니까? 아니지요? 기도하는 우리들이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의 자녀들인 우리가 시련을 겪고 있는데 모른 체하실 분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모른 체하시기 때문에 시련을 겪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분은 또 다른 방법과 해결책을 찾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구하며,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이단도 이방신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반신반의하면서 구하는 기도와 지혜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시련을 감당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구할 지혜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유리하는 못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열 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마태복음 10:16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경에서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양의 특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아야 됨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사도들로 세우신 열 두 제자들을 “양”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열 두 제자들은 사나운 짐승과 같은 사람들의 공격과 반대와 핍박에도 스스로 방어하거나 선제공격을 해서 제압할 만한 능력을 스스로 갖추고 있는 이른 바 사자와 같은 자들이 아닙니다. 양입니다. 그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에는 양들이 따름입니다.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른 특별한 계급과 특출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도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는 양들이 것입니다.

성경에서 목사님을 가리켜 주님의 양 무리들을 먹이고 치며 감독한다는 의미에서 목자라고 부릅니다(벧전 5:2-4; 딤후전 3:1; 엡 4:11). 그리고 또 주의 사자라고 부릅니다(계 2:1). 그러나 이 때의 사자란 밀림의 왕자 사자(Lion)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에서의 사자(使者)입니다. 사도, 대사, 메신저(messenger)라는 뜻입니다. 결코 군림하고 지배하고 양들과는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도 양들입니다. 양 무리의 모범이 되고 앞장서서 같은 동료들을 인도해야 하는 양들입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열 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들이 양들을 잡아먹는 늑대들과 같다는 말씀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려는 전도자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늑대로 본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목자 없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양들로 보는 긍휼함과 사랑이 있어야 복음을 열심히 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방해하고 믿지 못하도록 억누르며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사단의 수종자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거짓 스승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반대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훼방과 비난과 핍박을 서슴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15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이리들입니다. 사람들을 비진리와 자기들의 사상과 종교적인 울타리에 가두어 놓아 꼼짝달짝 못하게 만들고 그들의 영혼들을 잡아먹는 이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리들은 예수님 당시의 로마 당국과 같은 복음을 반대하는 국가나 정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리떼들이 득실거리는 세상과 사람들에게로 열 두 제자들이 파송된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들이 어떤 처지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의 옷, 사랑이라는 기독교적인 옷에 매료되어 자기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리에게 잡혀 먹힐 자들임을 모른 채 거짓 선지자들에게 목을 매고 있는 자들이 우리가 구원해내야 할 양들입니다. 한두 번 시도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쉽게 될 일이 아님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리를 잡아먹을 더 강한 사자가 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양일뿐입니다.

그러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까? 양이 이리를 잡아먹는 일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은 거짓 선지자들과 비진리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일차적으로 예수님의 오판이요 그 책임을 예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무모한 실패를 맞보라고 열 두 제자들과 우리들을 세상에 파송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16절)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뱀같이 지혜롭고”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뱀”은 어떤 장애물이 앞에 나타날 때 그 장애물을 뚫고 통과하는 힘이 없고, 그것을 우회해서 피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이나 승리를 말할 때에는 상대방을 무찌르고 박살을 낸 것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단자들과 복음을 반대하거나 핍박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이 꼼짝 못하도록 우리가 변론에서 이기고, 그들이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해야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이고, 우리가 승리했다는 생각은 반드시 옳은 것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 숨어든 국방군을 인민군이 찾으러 왔을 때, 성경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저기 있습니다”고 말하는 것이 성도로서 옳은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상황에서 “방금 왔다가 저쪽으로 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과 타협한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인민군의 총부리 앞에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처신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상대방인지라,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을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함으로 국방군도 살리고, 또 자기도 산 것입니다. 자기도 산 것이라는 말씀은 나중에 사람들이 자기 집에 숨어 든 국방군을 알려주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빨갱이로 오인되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내가 성경 말씀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봐 줄 사람이 있겠느냐는 사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무엇이든지 그 앞에 항복하고 꼼짝 못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나가신다! 저리 비켜라!” 그런 식입니다. 실패와 병과 아픔과 반대와 고난은 우리 앞에 없고, 모든 것이 성공과 승리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로막는 상황이나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피 터지게 싸우는 것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대들고 작살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게 되고, 나만 옳으면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받든 개의치 않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뱀처럼 지혜롭게 피해 가고, 제 2, 제 3의 방법과 시도를 하지 않고, 단 한방에 KO 시켜보려는 교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대포식입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다음 기회를 보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우리는 타협이라고 보고 죄책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응당 복음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마땅하지만 그들이 거부하고 배척하자 이방인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고 항복시켜야만 복음이 복음다운 것이 아니고, 자기가 능력있는 사도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은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살려고 몸부림 칠 때 오는 어떤 고난도 감수하라는 의미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복음을 변조하고, 복음을 가리우고 포기하는 일일랑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약 진리의 복음을 가리우는 일이 없이 복음 전파의 시기와 방법과 대상과 상황을 피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뱀처럼 지혜롭게 우회해 가는 것이 옳다는 말씀입니다.

2년 전 분당 샘물교회 성도님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선교 봉사 활동 중 봉사단 일행이

탈레반 무장 세력에 의해 피랍되고, 그 중에 배형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님이 피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모 신문에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사역중인 어떤 선교사님의 글이 실렸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당시 납치된 일만 해도 봉사팀 일행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평화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분당 샘물 교회 봉사팀은 카불-칸다하르 길로 이동할 때 그 지역은 위험하기 때문에 아침에 출발해야 한다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지 사정에 밝은 3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의 인솔하에 그 일이 위험한 시각에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도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안전 수칙을 무시하고 감행하다가 불행한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아무 일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 운이 좋은 것이고, 이번에 납치된 사람들은 재수가 나쁜 것입니까? 도대체 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지 않아서 그들이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돌릴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믿음을 앞세우려다가 지혜를 무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비전과 열정만 앞세우다가 지혜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믿음이 없게시리! 걱정 마!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차에서 내릴 때 차문도 안 잠그고 그냥 내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갑까지 놓고 내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믿음 없게시리... 왜 사람을 의심하느냐?” 그러합니다. 그러면 집이나 차에 알람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시대가 악하고 동네가 동네인 만큼 지금은 알람을 해도 깨부수고 훔쳐가는 시대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문을 열어 놓고, 지갑을 놔두고 내리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죄악된 마음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부수고 난리를 피울지언정 차문을 잠그고 알람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행동이라고 몰아붙일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초창기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들어왔다가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주소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6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데 남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왔던 젊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앞이 보이지 않는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모습,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습, 자신의 믿음을 붙잡아달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까? 우리 같으면 “내가 다른 일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젊음을 남의 나라에서 불태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이게 뭐야! 진도도 안 나가고 내 꼴이 뭐야? 그냥 돌아갈까?”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할 때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지혜와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고 박윤선 목사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의도가 복음 전파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는 위험에 지혜롭게 피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이것은 전도자가 어떤 위험한 일을 인하여 그 전하는 진리를 가리우거나 꾸부러뜨리거나 혹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의미이다. 전도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시키는 것이 첫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고 또는 감화 있게 드러내는 것이 첫째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이익과 욕망을 위하여 복음을 가리우고 타협하고 우회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세상과 짝하는 불신앙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는 것은 마땅히 필요한 일이요, 옳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20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22-23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어울려 술도 마시고, 노름도 하고, 사창가도 다니고 그랬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세상적인 방법들을 동원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들을 사용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덕을 세우는 범위 안에서 처신했다는 뜻입니다. 내 자신은 신앙 양심에 가책이 없는 일이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방 신전에게 드린 제사 음식을 먹지 않은 사도 바울,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자로서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유대인들로부터 율법을 무시하는 너와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반대를 스스로 자초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애쓴 사도 바울의 행동이 바로 뱀처럼 지혜롭게 처신했던 행동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진리를 떠나고, 변조하고, 가리우는 행동을 말하

는 지혜가 아님을 잊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최선, 최대의 지혜를 모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삶을 살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리새적인 외식주의를 비판하다보니 무율법주의자가 되어가고 있고,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하다보니 무법천지의 신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순결을 강조하다보니 고집불통과 무대포의 무례함과 우둔한 신자를 만들게 되었고, 지혜를 강조하다 보니 세속화된 신자들을 다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고, 주께서 요구하시는 제자로서의 삶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와 믿음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믿음이었습니까? 그동안 치우쳤던 우리들의 미성숙함이 성숙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6)

7/12/2009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 Faith of Trusting in God Only

●본문: 창세기(Genesis) 13:14-18 (구약 15면)

- 14: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 15: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 16: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 17: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 18: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NKJV)

- 14: And the LORD said to Abram, after Lot had separated from him: "Lift your eyes now and look from the place where you are—northward, southward, eastward, and westward;
- 15: "for all the land which you see I give to you and your descendants forever.
- 16: "And I will make your descendants as the dust of the earth; so that if a man could number the dust of the earth, then your descendants also could be numbered.
- 17: "Arise, walk in the land through its length and its width, for I give it to you."
- 18: Then Abram moved his tent, and went and dwelt by the terebinth trees of Mamre, which are in Hebron, and built an altar there to the LORD.

●본문: 고린도후서(2 Corinthians) 1:8-10 (신약 286면)

- 8: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 9: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 10: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NKJV)

- 8: For we do not want you to be ignorant, brethren, of our trouble which came to us in Asia: that we were burdened beyond measure, above strength, so that we despaired even of life.
- 9: Yes, we had the sentence of death in ourselves, that we should not trust in ourselves but in God who raises the dead,
- 10: who delivered us from so great a death, and does deliver us; in whom we trust that He will still deliver us,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을 믿는 믿음은 참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다른 종교가 추구하는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종교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이든, 그 무엇이든 신이 있다면 내 처지와 억울함을 보시고, 그리고 나의 지성과 열심과 간절함을 보시고 내 소원을 풀어주시고 응답해달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종교심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나의 전체, 전인격적으로 그분께 맡기는 위탁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과 해결과 도우심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축복과 해결과 도우심을 믿는 믿음은 마치 마약과도 같아서 계속적으로 그것들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그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언제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는 불신앙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함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진척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함이 더욱 하나님을 신뢰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과 앞으로 닥칠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그것을 대처할 힘을 줍니다. 간단히 말하면 감사가 아니라 믿음이 오늘과 내일을 대처할 적극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아니라, 그 감사함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줌으로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울 용기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인 줄 오해하고 감사하라고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몰라서 현금 생활도 제대로 안하고 주일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작 문제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만큼 믿지 못하는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분의 말씀과 약속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치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적인 간섭의 길을 걸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감사할 줄 몰라서 그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 것입니까?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이 감사를 모르는 족속들아!” 그랬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백성들아!” 이렇게 지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민 14:11)라고 나무라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던 것입니까? 감사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이적을 행하거나 도와 주시지도 않고 무조건 나를 믿으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이적을 생각하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너희를 위협에서 건져내시고 문제를 해결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함으로써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며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과거에 그들에게 이적을 베풀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아마 부부 관계에서도 이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남편이 이국땅에 와서 가정을 버리지 않고,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으니 한국으로 돌아가자는 말 없이 자존심 구기면서 잘 견디고 굶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내들이 참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남편이 벌어들인 돈으로 수다나 떨고 찜질방에서 여유를 부리는 고국에 계신 동포 여성들과는 달리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와서 남편만 바라보고 자녀들을 돌보고 때로는 같이 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아내들을 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자기야, 고마워! 자기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도 고마우이!” 이렇게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러나 감사함이 부부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어주는 원동력은 될 수 없습니다. 그 감사함이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이어져야 그 부부관계는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든든한 부부애로 하나가 되어 피차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기만 하는 상태에서 끝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감사거리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아들한테 “아버지 감사합니다!” (“Daddy, Thank you!”)라는 말을 계속해서 듣기 위하여 아버지가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에게 선물 공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끈끈한 부자 관계이겠습니까? 하루라도 장난감을 안 사가지고 들어오면 “아빠 미워!” 이러는 아들이 된다면 그 아빠가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야, 이 녀석! 내가 무슨 장난감 제조기인 줄 알어?”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와주기도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요술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문제를 해결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고 엄포 놓고 실행행사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와 동기를 주시고자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주셨건만 과연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는 관계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해결자와 후원자로만 요구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문제가 아니라 불신,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지적하셨지, “감사함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산상 설교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공중의 나는 새를 보고 생각해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드리지도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고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적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혀질 위험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마 8:26)이었습니다. 무슨 믿음이 적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한 배를 타고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냐? 예수님 혼자만 사시고 우리는 이 바다에 빠져 죽게 내버려두실 분이 아니시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적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지난날들 동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믿고,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가야 하는데 그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기억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너무 고상해서 감히 다다를 수 없는 차원 높은 것이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은 우리의 죄성이고, 결코 다함이 없고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욕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욕심이 지나치니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 대신에 불평과 불만이 쌓이다 보니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를 믿고 의뢰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와 근거를 많이 베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해주어야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무엇이 해결되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겠습니까?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우리의 대선배, 아브라함을 통해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의 쿠웨이트 지역이라 보여지는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세계 4대 문명지 가운데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속한 세상적으로 고도의 문화 혜택과 생활의 부와 편리함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네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식으로 각색한다면 옛날 대가족 제도하의 불교 집안에서 많은 땅과 부를 누리며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이제 네 본토와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라고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같으면 떠날 마음이 있겠습니까?

죽어도 안 떠나려고 버틸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안 떠나기에는 너무도 위엄과 영광과 위력적인 신의 명령이었기에 타락한 종교심으로 달 신을 섬기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감히 혼자 떠나지 못하고 가장이신 아버지께 자초지종을 아뢰었을 것입니다. “이 녀석이 자다가 웬 봉창 뜯는 소리야!”라고 무시 못 할 정도로 심각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 역시도 동일한 종교심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가장이신 아버지 데라가 식구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날을 여행하며 자기 문명권의 최변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행군 중단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뭘 믿고 이곳을 떠나 낯선 이방 땅에 가야 되느냐? 무슨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데...” 하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최변방지인 하란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죽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차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더 구체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강압에 못 이겨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들어가서 얼마 안 되어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당시 곡창 지대인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신 땅에는 관심이 없고 당장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자기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어보려고, 아니 교회 한 번 다녀보려고 나왔는데 교회 다니면 뭔가 안 되는 일도 쉽게 풀릴 줄 알았는데 그만 어려운 일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내 속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러지요? “네가 예수 믿으려고 하니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당장 집어치우라고 성화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아직 믿음이 그 모든 환경을 이길 만한 수준이거나 하나님을 믿고 의뢰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냥 그렇게 내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뛰어드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시기를 우리로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근거를 제공하시고서 그를 믿고 돌아오라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시는지 주의 깊게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사례는 사실 이복누이입니다. 그런데 아나 다를까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보더니 한 눈에 반하여 자기 것으로 삼고자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내 덕분에 아브라함은 목숨을 구하고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약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일약 부자가 된 것입니다. 먹을 양식 걱정은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아내만 잃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 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왜 내가 너를 보낸 땅에서 계속 머무르지 않고 이곳으로 도망왔니? 이런 패썽한 놈, 더군다나 너 살자고 네 아내를 누이라 속여 재산까지 모으다니. 그것이 사내 대장부가 할 일이더냐? 그러니 이제 한 번 혼 좀 나봐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혼내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혼낼 정도의 믿음도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꾸중은 그것을 알아먹을 수 있는 수준에 있을 때에 해야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 그런 수준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에 대하여 신앙의 타락으로 보시며 꾸중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구를 책망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차지하려고 했던 바로 왕만 밤새 혼내시고, 맞아 싸 아브라함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그를 고향에서 떠나게 하였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비로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분이 누구신가? 당시 세계를 통솔하는 바로 왕보다 더 센 분이시다! 바로 왕이 일개 이름도 없는 내 아내, 그것도 거짓말로 속여 재물을 받고 팔아넘긴 내 아내를 취하려는 것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 혼나다니? 바로 왕이 밤새 하나님께 얼마나 혼이 났으면 아브라함을 당장 불러들여 왜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이런 재앙을 당하게 하느냐? 빨리 내 아내를 데리고 가라! 하면서 재물까지 주면서 내쫓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바로 왕을 꼼짝 못하게 하신 분, 그 하나님이 내 곁에, 내 실수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와 근거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을 믿으라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단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함부로 건들었다가는 얼마나 혼이 나는지 모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핍박하려다가 얼마나 하나님께 된서리를 맞는지 모릅니다. 그런 만유의 왕, 세상 그 어떤 권력자보다도 더 세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4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왕보다 크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처럼, 세상 그 어떤 세력과 사단보다도 더 크신 이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센 분이 우리 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하는 이유요 믿음인 것입니다.

이같은 든든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아브라함이었기에 그는 조카 롯과 헤어지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이방 나라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자입니다. 자기 피붙이라고는 조카 롯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 목숨과 가정의 안녕을 서로 혈육끼리 지켜야 되는 시대입니다. 내 친족이 숫자적으로 많아야 내 목숨과 가정을 이웃 나라들과 민족들로부터 지킬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은 보통 큰 용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지 서로 살림이 커가고 함께 한 살림을 할 수 없게 되었기에 한 골육끼리 서로 싸우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헤어지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용단은 다름 아닌 바로 왕을 꼼짝 못하게 하신 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든든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조카 롯에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하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욕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양보심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무엇을 택하였습니까?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기름진 땅을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곳은 장차 하나님의 징벌로 멸망당하고 말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이 그 땅을 택할 때에는 죄가 만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롯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호와와 동산과 애굽 땅처럼 아름답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눈을 들어 미래를 보고, 꿈을 가지고 이 땅을 택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 땅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꿈과 비전과 좋은 비옥한 땅에는 정작 있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들보다 더 좋은 분, 그것들은 언제 어떻게 황폐한 땅이 되고 언제 죄악의 땅으로 변모할지 모르지만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영원한 복락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계획 속에 이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분을 우리의 믿음과 꿈과 비전으로 삼지 않으면 지금 한참 부풀려있고 들떠있는 우리들이 언제 어떻게 소금 기둥이 되고 유황불에 사라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창세기 13:14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기 전에 누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롯도 10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 역시도 꿈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비전을 이를 부푼 꿈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육적인 차원의 꿈, 언젠가 무너지고 말 덧없는 꿈에 사로잡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스스로가 어떤 꿈을 가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약속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꿈이 무엇인지 아니? 내가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고 너와 네 후손을 땅의 티끌처럼 번성케 하는 것이란다.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꿈을 눈을 들어 보도록 하여라! 동서남북 모두를 너에게 주마. 그리고 네가 조카 롯과 헤어졌다고 낙망할 필요가 없다. 기름진 땅을 먼저 취하지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네가 믿는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내려간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고 함께 하신다는 든든한 믿음 위에 자기의 장래에도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이같은 결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아브라함이 감사하는 데에서만 멈추지 않고 그

것을 기점으로 더욱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역시도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데에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기반으로 오늘도, 장래에도 내가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하나님이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8-10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큰 환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죽음의 고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런 사형 선고가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9절)고 하면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10절)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여” 이런 확신을 갖고 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마치 허허벌판에 혼자 남은 것 같은 느낌을 갖거나, 사실상 현실이 그런 처지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것을 내가 네게 주마!” 만약 우리의 안목이 조카 롯과 같으면 처음에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피눈물을 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보는 것이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한다면, 그런 믿음의 안목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텍사스의 넓은 땅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종종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저 넓은 땅 가운데 우리 뉴비전교회 땅은 없습니까? 많이도 말고 5에이커만 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것이 얼마나 좁은 생각인가를 알고 이내 마음을 접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은 단지 눈에 보이는 땅 몇 평이 아니라, 온 세상과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위대하신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이 내 안에 있는 이상 저는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땅을 주셔야 보이는 땅에만 집착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답답하실 때마다 텍사스의 넓고 광활한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자손손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단지 내 집, 내 교회라는 좁은 안목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만큼이나 큰 비전으로, 아니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확신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은 것처럼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더욱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기도)

현재 당하는 어려움이나 장래에 닥칠 곤경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정작 문제는 과거

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이미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여 오늘과 내일도 은혜를 베풀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떠나고 내가 떠나보내야 하는 일도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낙망하거나 상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약속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오늘이나 장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믿고 그만 의뢰토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자랑하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과 두려움을 버리고, 주님께 맡겨 버리고, 지금과 장래에도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사, 친히 인도하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감당하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7)

7/19/2009

믿음인가? 소망인가? Faith? or Hope?

●본문: 히브리서(Hebrews) 11:1-3 (신약 364면)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2: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NASB)

1: Now faith is the assurance of things hoped for, the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2: For by it the men of old gained approval.

●본문: 마태복음(Matthews) 9:27-31 (신약 14면)

27: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 오며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28: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9: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30: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31: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NIV)

27: As Jesus went on from there, two blind men followed him, calling out, "Have mercy on us, Son of David!"

28: When he had gone indoors, the blind men came to him, and he asked them, "Do you believe that I am able to do this?" "Yes, Lord," they replied.

29: Then he touched their eyes and said, "According to your faith will it be done to you";

30: and their sight was restored. Jesus warned them sternly, "See that no one knows about this."

31: But they went out and spread the news about him all over that region.

1. 믿음은 지금이며 현재 시제이다 (Faith is Now and Present Tense).

여러분, 믿음과 소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에도 소망적인 요소가 있고, 소망에도 믿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거기에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과 고백 외에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는 소망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예수를 더 이상 못 믿겠다고 하는 경우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믿음을 내일에도 가질 것이라는 보장이나 단언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일차적으로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지금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입니다. 앞으로 될 일을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은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입니다. 만약 내가 바라는 소망이 지금 이루어졌다면 그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누리면 되는 것이지 또 다시 똑같은 소망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소망을 가지면 몰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미래형입니다. 물론 소망을 갖는 이유와 동기에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만큼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면서도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경우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에 반드시 믿음이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주실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진 신자들 가운데에는 그 소원과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이 없이 희망 사항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희망 사항, 나의 바램으로 남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망은 미래형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가져오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미래형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난 사실로 받아드리고 성취된 사실로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언젠가 병 고침 받을 것이라고 믿어요.” 이 말이 믿음이 아니라 소망임을 아시겠습니까? 말은 믿는다는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소망일뿐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고백은 “나는 바로 지금 병 고침을 받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되면 내 가정의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리라 믿습니다.”라는 말도 소망과 미래적인 소원일 따름이지 지금 해결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언젠가 저도 은혜를 받으면 십일조 생활하고, 주일 성수할 수 있고, 이웃들을 많이 전도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은 못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지 못해서입니까? 그러면 그 분은 은혜를 받으면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은혜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이 정업 목사가 주지 않아서 여러분은 못 받은 것입니까? 혹시 지금은 그 은혜를 받기를 원치 않는 것은 아닐까요? 은혜를 받고자 하는 믿음이 지금 있거나 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소원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현실과 실제로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계속적으로 소원과 희망 사항으로 남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착

각하고 자위하는 이상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극히 희박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떻게,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두 맹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는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맹인)이 따라 오며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나오시는데 두 맹인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오면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다름 아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삼하 7:12-14; 눅 1:32-33; 1:68-69; 2:4; 마 21:9; 22:42). 즉, 이들은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로 알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이적들을 행하였지만 내놓고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오시기를 고대한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라고 공공연하게 외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라서 이것저것 물불 가리지 않고 겁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 잘 보여서 눈이나 뜨자 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던진 말이겠습니까? 그들은 비록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었지만, 항간에 들리는 소문들을 듣고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말씀들을 들으며 “저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심에 틀림없다”라고 확신하고서 지금 예수님을 뒤를 따라오며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그것을 더욱 확실케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눈을 떠 주소서!”라는 말보다도 더 깊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고백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눈을 떠 달라고 요청한 일보다도 먼저 메시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과 은총을 입지 않고서는 결코 눈이 떠질 수 없다는 고백은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단순한 신체적인 장애를 치료해 주시기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비롯한 영적인 치유까지도 내포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믿는 고백입니다. 시편 145:8-9에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라고 한 인정과 같습니다. 또 그것은 자신들이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세리가 기도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눅 18:13)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맹인의 부르짖음은 그 어떤 병자들이 예수님을 부르짖는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못 들은 척 머물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다른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두 맹인은 포기하지 않고 따라 들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

느냐?” 그들의 믿음과 중심과 소원을 아신 예수님은 “너희들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것은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라는 질문보다도 더 차원 높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 줄 믿느냐?”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다시 확실히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라고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마 9:29) 하시니 저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이런 수준의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두 맹인들에게 그들의 보지 못하는 눈을 어떻게 떠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고 물었을 때 두 맹인이 “주여 그러하오이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면서 눈을 떠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두 맹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진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푸신다면 예수님께서 능히 자기들의 먼 두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은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결단코 메시아이시며 주이신 예수님께서 언젠가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 능력을 베풀어주신다면 자기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그들이 눈을 뜨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는 소망으로 눈을 보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긍휼과 능력을 베푸신다면 지금 당장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지금 보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지금 볼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졌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기에 그들의 믿음대로 되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단코 내일이나 먼 미래나 언젠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병 고침과 예수님의 기적의 체험은 지금 믿는 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결단코 막연히 우연이나 요행이나 희망과 소망 사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대로 되라고 하실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이 두 맹인처럼 믿고 있습니까? 그분의 긍휼과 능력이 오늘 나에게, 내 가정에게, 내 일터와 직장과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믿습니까? 아니면 마냥 무작정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만을 바라고 소망할 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고 묻고 계시고, 그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네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믿음은 바라는 비실재적인 것을(아직 존재하지 않은 것을) 붙잡아 실재(실존)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많이 듣고 읽은 히브리서 11:1의 말씀이 무엇입니

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말하면 바라는 것들을 실상, 실제로 가져오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믿음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소망이나 원함이 아니고 바로 믿음입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케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응답은 소망이 아니라, 믿음으로밖에 응답이 없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상으로 현실로 증거로 갖는 길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으로만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며 소망한다고 해서 응답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1:24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결단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도한다고 그대로 응답된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응답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받을 것을 믿는 자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1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바라는 것을 소망이나 희망 사항이 아니라, 실상과 실제로 가져오는 자,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현실로, 실제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기도하는 자에게서도 사실인데, 기도하며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는 자에게 응답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22에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다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기도나 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믿고 구하는 자만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응답해주실 것을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바로 앞에 있는 21절의 말씀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시자 무화과나무가 즉시 마른 것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런 일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1:23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고 말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그러면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고 명하는 나입니다.

그러므로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응답해주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 여하에 좌우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드문 것입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그렇게 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그렇게 되기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한 번 그렇게 구해보자, 과연 그러한가 구해보자 그러면서 소망만 합니다. 이루어질 줄을 믿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나서 이루어지는가 한 번 두고 보겠다고 하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만일 믿는 것을, 응답을 미래에 놓고 있다면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베드로전서 2:24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그를 믿는 우리들은 나음을 입었다, 즉 나왔다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로, 과거 시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by His wounds you were healed" 예수님의 상처로 너희들은 나왔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과 현실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것을 사실과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아프고 아직 나은 증거도 보이지 않는 상태와 과정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미 다 나은 것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다 나왔어! 나는 아픈 자가 아니야! 나는 앞으로 나를 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나는 자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자신을 나은 자로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의 치유와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느낌과 현실과 증거는 믿음 다음으로 오는 것이지, 우리가 늘 익숙하듯이 현실과 증거가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고, 더 이상 아프지 않아야 우리는 그때야 '내가 나왔구나!'라고 하는 사고의 틀에 갇혀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주어지고, "네 믿음대로 되라"는 주님의 응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실제 현상과 응답과 더 이상 아프지 않은 느낌과 현실은 이차적인 것이고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주어진 것으로 믿고 감사하고 누리는 자에게만 믿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그것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입술로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이제 조만간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와 느낌과 증거와 결과들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후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거를 보고 믿겠다고 하는데, 성경은 믿으면 증거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 우리가 알아먹지 못하고 우리의 인간의 한계와 수준으로밖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드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와 열매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먼저이고 실체와 실행은 나중에 오는 것입니다. 나타난 증상과 현상과 조건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들 때문에 믿음이 약하여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눈은 이미 성취된 응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응답을 지금 마음에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누리며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중에 사실로 드러나면 믿겠다

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받은 줄로 믿는 믿음, 바라는 것을 이루어진 실상으로 누리며 믿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이미 증거로 보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갖는 특권으로서의 믿음입니다. 이 모든 믿음과 특권은 그것을 주시는 주님 때문에 갖게 된 것이니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부디 이 믿음의 특권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누리려는 것 구경만 하고 듣기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누리겠다고 하지만 마시고, 우리 자신이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이 믿음을 지금, 오늘도 누리시고 응답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오후 중보 기도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더욱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이루어진 줄 알고 더욱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모임들이 되고,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그런 믿음 없는 기도는 시간만 낭비할 따름이니 모든 불신과 의심과 두 마음을 버리고 믿음과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인 열매나 응답이 없다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소망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응답의 확신과 믿음대로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와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3.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나 자신이나 주변 환경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어떠한지, 내 주변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든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가령, 질병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8:17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He Himself took our infirmities, and carried away our diseases)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병을 누가 짊어 지셨다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짊어지고 죽으라고 하신 것입니까? 병에 걸려 죽고, 암에 걸려 죽으라고, 돈이 없어 수술도 못해 죽으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결단코 우리의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도 대신 짊어지신 메시야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같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믿고 받아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짊어지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는 이 병에서 낫는다!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는다, 앓을 수 없다! 나는 예수 안에서 나온 자이다! 이것이 지금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누리려는 병 고침이요, 치

유요, 건강입니다!

베드로전서 2:24에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by His wounds you were healed)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낫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낫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낫게 하셨다(you were healed)라고 과거시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나은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나았다고 하는데 예수님 낫게 해달라고 구하고 소망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왔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사실과 진리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왔다고 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 그대로 믿겠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낫게 되는 실재와 실상이 우리에게 따라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으로 나올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소망으로는 낫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치유와 병 고침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나중에 기도해 보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화합하면 치유과 병 고침의 역사가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즉시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시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그 말씀 따라 행동하고 확신하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으면 담당하신 것이지, 내가 짊어지고 고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병을 짊어지셨으면 짊어지신 것이지 왜 우리가 짊어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게다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그 병을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따라서 병이 있으면, 아프시면 “왜 내가 아프지? 아플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는데 왜 내가 짊어지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선언하시고 믿으시고 나은 자처럼 행동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마 암에 걸렸나 보다” 그러면 암도 걸리는 것입니다. “감기가 올라나 보다!” 그러면 감기가 걸리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오신 저희 장모님께서 멀미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차만 타시면, 비행기를 타시면 멀미 때문에 힘들어하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차만 타면 멀미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런 과거나 습관이나 고정 관념이나 생각을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집사님도 “닭고기 먹으면 탈나는데” 그런 생각이나 현상이나 습성도 알레르기도 이 시간 먼저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드러기가 나도 나는 믿음으로 나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다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먹었다가 또 탈난다고 “역시 나는 안 돼! 믿음도 닭고기 앞에서는 못 당해!” 그러면 이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생각으로 지고, 느낌으로 지고, 습관과 과거의 경험으로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의 싸움을 하기도 전에 이미 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데 느낌으로 지고, 행동으로 진 것입니다.

“내 병은 내가 잘 안다고요?” 아니, 예수님보다 여러분의 병을 잘 아시고, 여러분의 병

을 온전히 치유하실 분이 어디 있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병을 짊어지셨다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보다 약을 더 믿고, 의사를 더 구세주처럼 믿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과 판단을 예수님보다 더 믿는 것 아닙니까? 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과 진리를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앞으로가 아닙니다! 소망이 아닙니다. 지금 믿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병 고침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염려가 됩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지구촌에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있으십니까? 히브리서 13:5-6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결단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니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데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사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정부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정작 무서워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괴롭히고, 사람들이 무섭고, 사람들과 교제하기가 두렵고, 외국 땅에서 같은 동족인 한국 사람들 잘못 만나 사기 당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환경이 어떠한지 거기에 좌우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동의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십시오! 그러면 돈이나 사람이나 그 어떤 것이 무섭거나 두렵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셨음을 증거하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부디 믿음으로 사십시오. 느낌과 기분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바라지 못한 것을 실제로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인가? 느낌인가? (Faith? or Feeling?)

◎ 본문: 요한복음(John) 20:24-29 (신약 183면)

- 24 열 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 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 26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 27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 28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 29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 24 Now Thomas (called Didymus), one of the Twelve, was not with the disciples when Jesus came.
 - 25 So the other disciples told him, "We have seen the Lord!" But he said to them, "Unless I see the nail marks in his hands and put my finger where the nails were, and put my hand into his side, I will not believe it."
 - 26 A week later his disciples were in the house again, and Thomas was with them. Though the doors were locked, Jesus came and stood among them and said, "Peace be with you!"
 - 27 Then he said to Thomas, "Put your finger here; see my hands. Reach out your hand and put it into my side. Stop doubting and believe."
 - 28 Thomas said to him, "My Lord and my God!"
 - 29 Then Jesus told him, "Because you have seen me, you have believed;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and yet have believed."

1. 믿음은 느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Faith is not to act by feelings.)

Morris Albert라는 사람이 부른 “feelings”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Feelings, for all my life I’ll feel it. I wish I’ve never met you, girl. You’ll never come again. Feelings, wo wo wo, feelings Wo wo wo, feel you again in my arms.” “감정, 내 일평생동안 나는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만약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결코 다시 오지 않겠지요. 감정, 오 감정, 당신을 내 품안에 다시 안고 싶어요.” 아마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헤어지면서 이제 내 사랑의 감정을 잊으려 한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안고 싶은 감정을 노래한 것입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감정, 느낌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쉽게 사라지지 않는 느낌과 감정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의 감정이지만 내 자신도 어느새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혀서 떨쳐야 할 때 떨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느낌이고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들 때문에 지금의 남편이나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목사님, 이제 그런 감정 없어요! 완전히 무디어져 돌부처, 나무토막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 사람인줄 알았는데 막상 헤어지고 세상을 떠나면 사라진 감정, 잊혀져 더 이상 없을 줄 알았던 감정이 지나쳐 병까지 걸리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세상을 떠난 Michael Jackson의 노래 가운데에도 “Can you feel it?”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If you look around The whole world is coming together now.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만약 당신이 주위를 바라보면 온 세상이 이제 함께 오고 있음을 당신은 느끼는가? 당신은 느끼는가? 당신은 느끼는가?” 이렇게 팝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잭슨은 온 세상이 하나 되는 느낌을 노래하였습니다. 과연 그가 노래한 대로 세상은 이제 노래로, 스포츠로, 인터넷으로 가까워지고 하나 되는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 됨을 누리며 노래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찢어지고 나뉘어진 안타까운 느낌과 현실이 아닙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세상이 하나가 되었다는 느낌이 결코 참 느낌이나 사실이 아님을, 무엇이 정말 하나 되는 길이며 느낌이며 사실인지 그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 된 교회와 성도들인 우리들이 보여주고 느끼고 노래하며 누릴 바가 아닙니까?

사실, 이 세상 사람들, 심지어 우리들도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따라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삶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짧은 세상, 자신을 속이지 말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거나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충실하며 솔직하게 살자는 것이 아닙니까? 감정과 느낌의 문화와 성(性)과 가치관에 의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 하면 “묻지마”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랬느냐?”고 물으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죽이고 싶었다!” “가지고 싶었다!” “그냥 싫다는데 웬 잔말이냐?”는 것입니다. 느낌과 감정에 솔직하고 충실한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도덕과 윤리는 이차적인 것이고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과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런 영향력과 생각과 삶을 따라가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낌과 감정으로 행동하고 사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물론 감정도 중요하고, 느낌도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결단코 우리가 어떠한 느낌이나 감정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느낌이나 감정이 없이 사명과 의무와 책임감으로만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결단코 믿음이 높은 단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피눈물도 없고, 결코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고 치유를 받을 일입니다. 그러므로 느낌과 감정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인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느낌과 감정에 우선을 두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원의 확신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는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예전에 수양회를 가서 밤에 campfire를 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눈물이 쏟아지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장작불보다 더 뜨거운 눈물과 심장이었어! 그 때 내가 구원을 받았나봐!” 이렇게 그 때 내가 눈물을 흘렸고, 나에게 뜨거움이 있었고, 내가 구원 받았다는 느낌이 나에게 강렬하였다는 나의 느낌과 감정을 내세우곤 합니다. 물론 회개의 눈물과 뜨거운 감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거짓된 속임수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간혹 분위기에 휩쓸려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임할 때 그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같은 느낌과 감정이 나를 구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을 구원시켜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말씀 앞에 나를 행복시키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내 발로 그 수양회에 참석을 하고, 별 다른 목적 없이 다들 가니깐 놀러가는 기분으로 참석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회와 도구로 삼으셔서 나를 복음으로 낳아주신 것입니다. 목사님, 수양회, campfire, 분위기, 은혜로운 찬양, 다른 성도들의 간증, 기도, 등등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도구요 엑스트라였을 따름이지 주연이나 근본 원인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시고 연출가이시고 그래서 마침내 아름다운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분이시기에 나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 분이 시작하시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안 되겠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끝까지 사랑하시는 집념과 열심이야말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든든하고 흔들림이 없는 근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고 뜨거움이 있고 방언이 터지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산물일 따름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약속과 시작부터 끝까지 구원하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시고야 마시는 그분의 능력과 열심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요 이유인 것입니다. 결단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 느낌과 감정이 없다고 “나는 구원 받았다가 잃은 것이 아닐까?” 그런 의심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은혜를 받았던 그 경험과 느낌만을 사모하고, 그것만 자랑하고 증거하라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

님이 아니십니다. 이전과 같은 똑같은 감정이 다시 생기지 않더라도 여전히 사랑하며 확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가령, 어린아이들이 처음 학교에 들어갈 때 얼마나 마음 설레 합니까? 밤잠을 설치며 뜬 눈으로 지냅니다. 그러나 첫날, 며칠은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학교 안 갈려고 때로는 아픈 척하면서 결석하고 조퇴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가 학생이 아니라서, 가짜 학생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공부에 재미를 못 붙여서, 혹은 같은 반 동료 가운데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가 있어서 가기가 싫은 것입니다. 결단코 그 학생이 처음 학교에 가고자 하였던 똑같은 감정과 느낌과 설렘이 안 생기면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닌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분과 감정과 느낌에 의존하여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잘 하겠다는 것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습관을 좇아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산에 가신 것처럼 습관은 생각과 느낌과 체험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성숙한 증거인 것입니다. 물론 모든 습관이 다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형식과 가식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나 바램이나 은혜를 사모함이 없이 습관을 좇아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잘못된 습관이나 무감각이 아니라,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체험만 사모하고 똑같은 느낌과 체험이 생기기만을 바라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예전에 내가 구원 받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착각이었나 봐!” “하나님이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느낌과 감정과 체험을 위주로 하면 그같은 생각과 태도를 갖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결혼한 부부가 신혼 생활이 지나고 해가 가면서 예전에 느꼈던 짜릿함과 서로 보기만 해도 전기가 통할 정도이었는데 이제는 느낌과 감정도 설렘도 없다고 “당신 내 남편 아니야, 내 아내가 아니야! 당신, 나 거짓 사랑한 것이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느낌과 감정은 사라지고 없더라도 여전히 사랑하는 아내요 남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의무감과 책임감으로만 사는 것입니까? 화끈하고 불타는 사랑은 식어졌고 사라졌다 하여도 은은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잠잠히 사랑하는 그 사랑은 여전히 무언중에 피와 눈빛 속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느낌이나 감정의 표현이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면서 아무런 감정도 없이 예배드린다면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기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손뼉치고 기뻐 뛰며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수만 불의 헌금을 드린다 하여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이 빠졌다면 본인들은 예배에 성공했다고 기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열납할 수 없어 거절하시는 예배와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느낌이나 감정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이나 감정이 생기기 전까지 믿지 않겠다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원수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과 행동

을 취하게 합니까? 싫고 미운 것입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울 것입니다. 그런 느낌과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느낌과 감정 때문에 “내 안에 그 원수를 사랑하고픈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런 느낌과 감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나는 결단코 그 원수를 사랑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하다는 것이 성경의 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와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화목한 다음에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신 죽음으로, 사랑으로 화목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고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잘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마 5:46-47)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남보다, 예수 믿지 않는 자보다, 예수 믿기 전의 옛날의 나보다 더 하는 것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직 그들을 위해 사랑하고픈 느낌이나 감정이 생기지 않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 만약 기도할 마음도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인 나를 위해 어떤 사랑을 베풀고, 지금도 한심한 나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는지 생각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느낌이나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할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숙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느낌과 감정대로 사는 것은 불신자들도 살아가는 방식이요 태도입니다. 그러나 느낌과 감정은 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아직 그런 느낌과 하고픈 마음은 생기지 않습니다만,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순종하고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언젠가 나도 주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만드시겠다고 목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사오니 조만간 사랑하고픈 느낌과 감정도 생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낌이 안 좋다고, 감정이 안 생긴다고 신앙생활에 뒤처지고 게을리 하는 분들이 이 시간 이후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서 느낌이 좋든지 안 좋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주실 줄 믿고 구하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느낌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비단 신앙생활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도무지 순종하거나 공경하고픈 마음이 생기지 않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도 그렇습니다. 주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였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복종하기를 시작하면 어느 날 그런 마음을 주신다니깐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님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런 사랑을 어떻게 내 아내에게 베풀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것은 가능케 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했다면 그것은 주님에게 책임

을 물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느낌과 감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비밀과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느낌이나 감정이 나아 사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것 없이 사랑하는 것은 가식이고 거짓이고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참 제자들은 그들과 거꾸로 삽니다. 그들보다 더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느낌과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먼저 믿습니다. 느낌과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느낌과 감정이 뒤따라온다고 믿고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느낌과 감정이 확실히 생기기 전까지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더 깊은 느낌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믿으십시다!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십시다!

병 고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과 감정으로 병이 나왔다고 확인하면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병이 나왔다는 믿음으로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선언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면 병 고침 받았다는 느낌과 사실은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12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그 증거가 아닙니까? 마가복음 5:28에 이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이 먼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 어떤 결과로 나타났습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막 5:29)고 하였습니다. 자기 병이 나왔다는 느낌, 확신과 사실이 뒤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음인 것입니다. 느낌과 감정과 사실이 나타나면 그때야 믿겠다고 하지 마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벧전 2:24)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사실이며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병 고침과 나왔다는 느낌은 이어서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마 8:17)고 하셨으면 내 병을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네 믿음대로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 고침에 있어서도 느낌이나 감정이나 사실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느낌과 사실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2. 믿음은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Faith is not to act by seeing.)

둘째로, 믿음은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도마가 등장합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24절에 “열 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었습니까? 왜 예수님은 도마가 마침 그 자리에 없을 때에 나타난 것입니까? 왜 기왕이면 모든 제자들이 다 함께 자리에 있을 때에 나타나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럴 줄 모르고 와 보니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도마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실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가 그 자리에 없다는 것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각에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입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만이 아니라, 도마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 도마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가 그 자리에 없을 때 찾아오신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의심한 것이 아니라, 감정의 굴곡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소 느낌과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다니에서 사는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로 그에게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머물다가 다시 유대로 가자고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렵니까?(요 11:8)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가겠다고 하니 옆에 있던 도마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요 11:16)고 하였습니다. 말려도 막무가내인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푸념과 불평과 원망어린 말투로 예수님께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직접 말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만은 옥에도, 죽는 데도 따라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동료들 선동하듯, 아니 같이 공감대와 분위기를 잡아 불만과 불편함을 표출하였습니다. 앞에 나서지는 못하면서 뒤에서 불평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나 시도가 없습니다. 혼자 걱정과 불평은 맡아 놓고 앞서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진 느낌과 감정에는 솔직하고 충실합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도마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과 빈 무덤을 보고 온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빈 무덤에서 여자들에게 천사들이 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마 28:7)는 말씀을 그가 들었다고 한다면 도마는 어떤 태도와 준비를 했어야 마땅합니까? 그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거해도 내가 직접 보며 만지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을 보면 그는 생각도 많고 느낌과 감정도 풍부한 사람이었던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의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방안에서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찾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안에만 있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그 자리를 떠나 밖에 나가있었던 것입니다.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불안하였던 그였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많은 자입니다. 가만히 기다리며 함께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는 체질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닌 느낌과 생각과 염려가 앞선 자들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비단 도마뿐이겠습니까?

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상황을 돌파할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뒷말은 많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전체 분위기를 흐려놓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거기에 자신의 불신과 믿음 약함을 희석시킵니다. 그러면서도 이유와 명분을 찾습니다. 어떻게 보지 않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게 해주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길을 찾습니다. 가만히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해결책을 찾겠다고 나서다가 다들 은혜를 받는데 꼭 은혜 받을 자리와 순간마다 빠지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 자리마다 골라서 빠집니다. 본인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할 자리에 없음으로 은혜를 놓칩니다.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24절) 그래서 이 말씀이 훗나를 가리키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함께 있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믿는다고 하면서, 혼자 교회 걱정은 다 하였으면서 정작 예수님의 혼인 잔치에 누락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 함께 하십시오! 은혜의 자리와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기도와 말씀 공부의 시간들, 심지어 성도들간의 교제의 시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는 기회들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빠지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게 감사만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야 합니다. “너는 꼭 내가 나타나고 보여줘야 믿겠느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요 20:29). 기억하십시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요 20:28)라는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가 의심과 불안과 느낌과 감정과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의존한 자이었음을 이 고백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걱정이 앞서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으로 먼저 고백하고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 계획과 방법과 피와 경험과 욕심이 앞섰던 그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자식들에게 축복할 때도 자기 이름을 들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뜨겁게 느끼고 섬기게 되었지만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마도 그러하였습니다. 내 느낌과 감정과 체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보니 지금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느끼며 알며 믿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잘못된 고백이 아닙니다. 항상 나의 느낌과 감각과 경험과 체험을 중시하다 보면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일대일의 관계에서 만나고 믿고 섬겨야 하지만 그분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바가 아닙니까?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지만 이제는 너희들의 아버지이시며 너희들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까? 나의 양식만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마

6:11)라고 하셨습니다. 내 죄만 용서받으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 6:12)라고 서로간의 죄의 고백과 용서를 구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나만 시험에 들지 않으면 된다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험이 교회 공동체 전체의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마 6:13)라고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나 중심은 모두 내가 봐야 믿겠다는 생각,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간증을 해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는 믿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보고 믿겠다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누가 복된 자라고 하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창으로 치른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확인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도마와 기타 500여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증언을 듣고 그리고 영원불변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직접 육안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이 복된 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그 때 직접 목격한 자들이 복되다고 생각하고 그 복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하는 제 2의 도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생각과 핑계, 보는 것을 믿음 보다 앞세우는 모든 생각들을 이 시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다 없애야 합니다. 도려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도마를 사정없이 난도질 한 것이 아닙니까? 본문 말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20:30-31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여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보고 믿으라고 아니라, 보면 믿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이미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와 말씀들을 주셨으니 믿으라고, 믿으면 보고, 믿으면 느끼고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 믿음은 느낌과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할 때 느끼고 보는 것이다.

(Faith is not to walk by feelings and seeing,
but is to feel and see by walking by faith.)

마지막으로 믿음은 느낌과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가 느끼고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7에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누리고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장막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향하여, 거기서 영원히 살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보

이는 것들을 위해 살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썩지 않고 영원토록 누리는 영생을 위하여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에 잠시 보이는 눈요깃감에 영생과 영원을 놓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고 느낌과 감정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과 절망과 낙담에 빠지게 되고 거기서 영원토록 헤어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동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다시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셨지요? 팔 일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그 팔일 동안 도마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예수님께 섭섭하였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 내가 없을 때 나타나신 것일까?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다니!”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나는 보고 믿겠다고 이성적이고 더 잘난 것처럼 큰 소리는 쳤지만, 얼마나 또 다시 불안과 초조함과 걱정과 불평의 날들로 보내었겠습니까? “내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판 자도 아닌데, 내가 그분의 제자인데 이대로 영영 안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아닐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확신과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팔일을 기다렸을까요? 보는 것으로 믿는 자들은 언제나 보고자 하는 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결코 만족하거나 기다리거나 믿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도마는 다름 아닌 현대 신자들이고 우리들입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보리라 하는 복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무덤 앞으로 향하는 예수님, 무덤을 가로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실 때 마르다가 뭐라고 예수님을 말렸습니까? “주여 죽은 자가 나홀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요 11:39)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요 11:40).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눈으로 보고, 현실로 나타나야 믿겠다는 것은 마치 썩은 시체와 같은 냄새가 나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자 하시는 기적같은 삶, 보지 못하여 죽은 자같은 삶도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부활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으면 보리라!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느낌 대로, 기분 나는 대로, 감정에 솔직하며 살자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고, 보면 믿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늘부터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역사, 기적, 부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야말로 복된 자이다! 보지 못하고 나를 이토록 믿고 내 말에 순종하다니! 눈에 흠모할 만한 보이는 것이 없는 나와 내가 내 피로 세운 교회, 뉴비전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다니! 선망하고 자랑하고 바랄 것이 없는 내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믿고 사랑하디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믿는 자들이다! 참으로 복 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1) (Faith of Abraham)

로마서(Romans) 4:17-24 (신약 244면)

- 17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 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 19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 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 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 22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 23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 24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NIV)

- 17 As it is written: "I have made you a father of many nations." He is our father in the sight of God, in whom he believed--the God who gives life to the dead and calls things that are not as though they were.
- 18 Against all hope, Abraham in hope believed and so became the father of many nations, just as it had been said to him, "So shall your offspring be."
- 19 Without weakening in his faith, he faced the fact that his body was as good as dead--since he was about a hundred years old--and that Sarah's womb was also dead.
- 20 Yet he did not waver through unbelief regarding the promise of God, but was strengthened in his faith and gave glory to God,
- 21 being fully persuaded that God had power to do what he had promised.
- 22 This is why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 23 The words "it was credited to him" were written not for him alone,
- 24 but also for us, to whom God will credit righteousness--for us who believe in him who raised Jesus our Lord from the dead.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 로마서 4:16 하반절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계보에서 볼 때는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까? 왜 노아나 에녹 같은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을 삼지 않으신 것입니까? 왜 아담으로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을 아담으로 시작하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 조상이라고 할 때에는 그가 시작이 되어 많은 자손들이 줄줄이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조상만 있고 그 밑으로 후손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 조상의 족보는 있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 당대로 끝날 것이니 자손들이 없어서 족보가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과 자손은 불과불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 스스로가 가지거나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동질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이고 우리는 그의 믿음의 후손인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 때에 비로소 자손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2에 기록하였듯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였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아버지 데라의 인도하에 하란 땅까지 왔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서는 감히 자기 문명권을 떠날 수 없었기에 하란에 상당한 기간 머물고 맙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창 12:1)고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갈데아 우르에서 나타나셨는지, 왜 지금 다시 하란 땅에서 나타나셔서 이 곳을 떠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에, 그 시작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작을 한 사람, 조상인 아브라함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손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

하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오게 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창 12:7)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주지 않고 네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창 13:16)고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들을 주실 것을 약속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해가 가도 주시겠다 하신 셀 수 없을 정도의 땅의 티끌 같은 많은 자손은커녕 단 한 명의 아들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1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당시 연합군 전쟁에서 사로잡힌 조카 롯을 구출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즉시로 반문하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돼 주셔서 전쟁터에서 조카 롯을 구출해주셨지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손인 것이지요. 그래서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2절)고 하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3절)고 알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재차 천명하기를 “그 사람은 네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4절)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밤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5절)고 다시 자손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그의 반응이 어떠하였는가? 창세기 15:6에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 오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의 몸에서 날 자손을 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의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처음 들은 이후로 그의 나이 85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6:16에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람이 팔십 육 세이었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된 시작은 자기 아내, 사래가 그것을 부추겼습니다. 창세기 16:2에 보면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브라함은 아무 잘못이 없고 사래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아내가 그렇게 말한다 하여도 “좀 더 기다려 보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반드시 당신과 나 사이에 자녀를 주실 것이니 기다리자”고 하면서 아내를 말렸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래의 말을 그대로 듣고 여종을 통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화목한 가정이 분쟁의가정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하갈이 사래를 떨시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래가 그 사정을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말하니 아브라함이 당신 종인데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고, 결국 하갈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여 가정에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이방 땅에서 그의 유일한 힘이시고 든든한 후원자와 방패가 되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는 나타나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만치 몇 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신 줄 아십니까? 13년 동안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다음이 창세기 17장 1절인데 그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의 구십 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침묵을 지키시다가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 그의 불신앙,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을 꼬집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4년 만에 듣는 하나님의 첫 꾸중이었습니다. 아니 이 순간만이 아니라, 그동안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보다 더 큰 꾸중과 고문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동안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편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신 것보다 참고 견디기 힘든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역 만 리 외국 땅에 살면서 식구들을 믿고 살지만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참을 수는 있습니다. 견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기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일 때만큼 더 큰 괴로움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나를 믿을만하지도 않니? 내가 하겠다면 하는 분인 줄 너는 모르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네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과연 너는 그것이 무슨 뜻인 줄 알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 왜 알면서, 고백하면서 왜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기껏 10년 동안 기다려 응답 없다고, 기다리만큼 기다렸다고 마치 나를 위하기도 하듯이 나를 무능한 신으로 알았더냐? 아니다! 네 방법으로 낳은 결과가 무엇이니? 무슨 선한 열매를 거두었니? 네 부부 관계가 어떠하며, 네 가정이 어떠하였느냐?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라! 네 눈 좋은 대로 살지 말고, 네 아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핑계대지 말고, 내가 묵묵부답이라 그렇게 했다고 변명하지 말라! 너는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말고, 사람들 생각,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대로, 다른 사람이 나 같으면 어떠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행할 자가 아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며, 내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마땅하지 않니?”

이같은 하나님의 지적 앞에 아브라함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 하나님을 믿

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자신의 불신과 육신적인 생각으로 행동하였던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17:4-5을 보십시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고귀한 아버지)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 하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의 뜻이 “열국의 아버”,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신 내용이 아닙니까? 네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무수히 셀 수 없이 주실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것의 일관적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귀한 아버지라는 아브람에서 많은 무리의 아버라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없이 불리우는 것이 이름이 아닙니까? “열국의 아버”, “많은 무리의 아버”, 그런데 그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까? 많은 것은 그만 두고 단 한 명의 후손도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위의 사람들은 놀리고 조롱할 것입니다. 어떤 분의 이름이 “만복”인데 구걸이나 한다고 합시다! 얼마나 이름에 부끄러운 사람이며, 그의 이름이 원망스럽겠습니까? 게다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동안 “아브람”, 고귀한 아버지라고 불리웠을 때에는 자식이 없는 것도 고귀한 것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 99세 때에 이름을 갈면서 자식은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라니 사람들이 다 조롱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조롱과 핀잔과 멸시의 입방아와 눈초리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그래 많이들 조롱하고 나불거리라! 그러나 나에게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가 나를 열국의 아버로 만들겠다고 하셨으니 나는 반드시 열국의 아버가 될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과 마음과 처신이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여 침묵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그것을 꺼내시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재천명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갖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13년 동안 꿈 하고 계시다니? 그 정도로 속이 좁으신 분이십니까? 10년 기다린 아브라함보다도 못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지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며 믿을 만한 수준에 있어야 할 그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결과로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몸소 체험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더 바로, 깊이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가 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가 되게 할 터이니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래서 이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열심의 결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가 된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때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18) 여기서도 “내가 되게 하리라”(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오순절에 그의 설교를 듣고 3천명의 사람들을 낚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변덕스럽고 감정과 기분에 좌우되고 이랬다저랬다 하며, 기복이 심하였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42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그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훗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라는 신앙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너는 이제 반석이 되었다”고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초대 교회에 반석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반석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하면서도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2)고 약속하시며 그를 위해 기도해주신 결과, 베드로는 답소리가 아니라, 누가복음 22:61에 분명히 밝힌 대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회개한 것에만 그치지 않고 자기 열심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수많은 형제들을 굳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내가 너를 되게 하리라” 하셨으면 우리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직 내 눈에 보기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낙심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일들을 시도하며 감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여러분의 기도에도 묵묵부답이시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분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헛되이 되돌아간 적이 없으십니다. 몇 년, 몇 천년이 지나가도 때가 되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11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공수표가 없습니다. 부도가 없습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없습니다. 미해결, 미완성이 없습니다. 중도 포기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성공하고 형통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사야 46:11 하반절에서도 “내가 말하였은즉 정녕 이를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녕 행하리라”(Truly I have spoken; truly I will bring it to pass. I have planned it, surely I will do it.)고 하였습니다.

만약 성경 가득히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지난 생을 통하여 “이제는 나를 믿을 수 있지 않니?”라고 우리의 믿음을 기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세

상적인 방법으로 그 믿음과 약속을 저버리면 우리에게 그 때부터 고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어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치셔서 열국의 아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나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으시고 믿음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나를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엡 1:12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 62:3 “너는 또 여호와와 그의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지금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도망치는 수준에 있지만 저도 언젠가 하나님의 열심과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반열에 서고,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나도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와 수준으로 만드실 줄을 믿나이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나도 만들어 주옵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기도이고 우리의 생애 대하여 갖는 확신이고 소망이 아닙니까? 가치있는 인생, 복된 인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실패하고 낙망스러운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복된 인생과 삶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I will make you!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I am God Almighty!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는 아멘인 것이지요! 우리의 불신에 대한 회개와 함께 감사와 경배의 엎드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1:1-2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는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곧 네 몸에서 날 후사를 주시겠다는 말씀, 아무리 나이가 늙었고, 아이를 결코 낳을 수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렇게 만드시겠다는데 못 이룰 것이 있겠습니까? 욥이 고백한대로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욥 42:2)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시고자 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분이십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는 열심과 능력인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죄와 사단과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해내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거룩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와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관계와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요 때인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138:8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같은 신앙을 가

졌습니다. 나를 향하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 각자에게 가지신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섬기며 봉사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목적인 것입니다.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분의 구원의 목적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일로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고, 살아야 되고, 사는 이유와 목적과 감사함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너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는 약속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집요하신 열심과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있으니 할렐루야가 아닙니까? 복 받은 인생들이 아닙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고,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가? 그에게 약속하였던 후손,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큰 민족이 아브라함이 낳은 욱신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이삭으로 상징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창 12:3-4)고 약속하신 말씀도 아브라함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오실 다름 아닌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약속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16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손과 후사는 누구를 가리킨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자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손에 관한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가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받는 일들이 이 땅에서부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36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요한복음 3:18에도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경고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나중에 마지막 심판대에서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결정되고 경험되어지는 것임을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도 단지 욱신의 아들, 이삭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8:56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우리도 똑같은 믿음의 대상,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단지 소망만 한 것이 아니라 보고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충만히 보지 못한 자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그는 우리와 동질성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시작을 한 사람이었기에, 아니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그 시작을 하셨기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대충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되는 대로 일을 만드시고 맞추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작을 하신 것도,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도, 그리고 우리 각자도 그 계획과 목적 속에 포함시키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깊으신 뜻과 지혜와 사랑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뜻과 경영하심과 만드시는 열심의 품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 받은 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듯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간섭하시는 과정과 열매로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부당한 요구입니까? 무리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는 이제 막 갈데아 우르에서 떠난 분들도 계실 것이고, 가나안 땅에 까지 들어가지 않고 세상 줄을 마지막으로 끝까지 부여잡는 하란 땅에 머물러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끈을 다 끊게 하셔서라도,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셔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간섭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영접절에 교회에 들어서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어려움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기근을 피해 양식을 구하려고 애급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가 아니라 세상에 도움을 구하기에 바쁜 수준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포기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채워주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듣고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치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육신을 좇아 따라가느라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을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주시고 회개케 하시며 다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들을 굳게 잡을 것을 깨우쳐주시며 권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지는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다다를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의 전부를 기쁨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때는 억지로가 아니라 고민하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달라고 하는데 못 바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삭이 내 자식이 아니라, 육적 차원의 후손이 아니라 할례를 행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손임을 확인시켜 주셨듯이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할례를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

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고 누리신 것임을 알기에 기꺼이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친히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로 누리게 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경험하는 수준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수준과 상태에 있든지 현재 있는 위치에서 만족하거나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포기하거나 이 정도로 됐다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 졸업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고지와 수준과 위치가 어디인지를 놓치지 말고 나를 향하시고,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집념과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한 번 온전히 맡기고 의뢰하며 살만 하지 않는가! 어느 누구가 이런 열심과 사랑으로 나를 대해준다는 말인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장래를 다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었고,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며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수준과 위치와 상태가 어떠한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귀한 깨달음과 각성과 영적 분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만들고, 시몬을 베드로로 만드신 하나님의 열심과 만드심이 나에게도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열심에 감복하여 그분께 맡기며 나를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 주옵소서라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출발을 우리 모두 다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2) (Faith of Abraham)

로마서(Romans) 4:17-24 (신약 244면)

- 17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 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 19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 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 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 22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 23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 24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NIV)

- 17 As it is written: "I have made you a father of many nations." He is our father in the sight of God, in whom he believed--the God who gives life to the dead and calls things that are not as though they were.
- 18 Against all hope, Abraham in hope believed and so became the father of many nations, just as it had been said to him, "So shall your offspring be."
- 19 Without weakening in his faith, he faced the fact that his body was as good as dead--since he was about a hundred years old--and that Sarah's womb was also dead.
- 20 Yet he did not waver through unbelief regarding the promise of God, but was strengthened in his faith and gave glory to God,
- 21 being fully persuaded that God had power to do what he had promised.
- 22 This is why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 23 The words "it was credited to him" were written not for him alone,
- 24 but also for us, to whom God will credit righteousness for us who believe in him who raised Jesus our Lord from the dead.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특히 그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였는가는 그의 후손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단지 나 혼자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으로, 문제의 해결자로만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문제가 풀어지기 않으면 언제나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설사 문제가 풀어졌다 하여도 하나님을 언제나 문제 해결자로밖에 대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렇게 해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니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정도로밖에 대접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당신께서 원치 않으시고, 그 정도로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분으로 믿었는가를, 그리고 우리 역시도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밝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자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본문 17절에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같은 믿음을 갖기까지는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의 결과로 갖게 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처음 그를 갈데아 우르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너는 네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하란 땅까지 왔지만 거기서 주저앉아 상당한 기간 그 곳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는 네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셔서 그의 나이 75세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 아브라함은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아리따운지라 자기 아내를 차지하기 위하여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로 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보고 자기 아내로 삼고자 궁궐로 데려갑니다. 아내 덕분에 환대도 받고 많은 재물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날 저녁 바로 왕은 그 일로 하나님께 밤새 혼납니다. 그러자 이튿날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데려가라고 하면서 이미 준 재물을 빼앗지 않고 가지고 빨리 떠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자기를 갈데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당시 세계를 통치하는 바로 왕보다 센 분이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분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유물이 많아짐으로 자기와 조카 롯 사이에 다툼이 나자 조카 롯과 헤어지는 결단을 내립니다. 먼 이방 땅에 와서 어떻게든지 자기 피붙이가 많아야 그것이 힘이 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세상인데 감히 헤어지겠다는 결정을 한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롯과 헤어지고 나서 누가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말라! 네 조카가 기름지고 좋은 땅을 먼저 택하여 가져갔다고 염려할 것이 없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약속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그 당시 세계적인 연합군 전쟁에 사로잡히게 되자 아브라함은 자기 종 318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뛰어들어 조카 롯을 구출하였습니다. 318명의 무예가 뛰어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셨기에 무모한 전쟁에 뛰어들어 롯을 구출해올 정도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때문에 감히 엄두도 못낼 일들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굽 바로 왕도 자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세계적인 전쟁도 무서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서 자라며 굳게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매번 약속하신 자손에 관한 약속은 이루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손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 않자 아브라함은 그만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그의 유일한 방패이시고 후원자이시고 든든한 백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은 자기만치 13년 동안 나타나시지도 않으시고 아무런 말씀도 없으십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이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이것보다 견디기 힘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난 그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지 못하여,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의 불신의 행동을 꾸짖는 지적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가 되게 할 터이니, 그렇게 되게 만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네 이름을 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과 언약을 세우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창세기 17:10-1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증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표증이란 sign(표)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도로 표지판, sign을 보고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지 않습니까? 빨강색과 정지는 본질상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표(sign)로 정하여서 빨간 불 앞에는 정지하도록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몸에서 나올 자식, 이삭을 주시기 전에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 요구하신 것이 할례였습니다. 너만이 아니라, 네 대대손손으로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갓 난 사내아이들에게는 난 지 팔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내가 할례를 행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할례를 행한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표증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할례란 오늘날 남자들의 포경 수술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소변을 봅니다. 소변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도 훑쳐보면서 “제도 하나님의 백성이네?” 이렇게 상기토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잊어먹고 배은망덕한 자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지혜로운 처방을 하나님께서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표징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뜻도 있습니다. 원래 할례라는 말의 원 뜻은 자른다(cut off)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이사야 53:8 하반절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 중에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끊어짐”이라는 단어가 “할례”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말은 끊어짐,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지 팔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것은 너희는 본질상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날 때부터 죄로 죽어 마땅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할례를 행하라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의 또 다른 의미는 레위기 19:23-24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되 곧 삼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마 것이요 제 사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뜻한다고 하였습니까? 거룩하게 되었다는 뜻이고, 할례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은 거룩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우리가 본질상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표시이며,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본질상 죽어 마땅한 죄인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동일한 사람이 죽고 다시 거룩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신약적인 답변이 골로새서 2:11-12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육적인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죄에 대하여 죽고 장사지낸바 되고 새로 부활

의 능력을 체험한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할례 받으심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그것이 가능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끊어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의 세례의 의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는 것이 세례의 뜻이 아닙니까?

이것을 구약에서는, 특히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으로 보여주셨는지 아십니까? 그가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으로 전달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꺼이 바친 사건은 이 할례의 의미를 모르고서는 오해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땅을 치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며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바치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주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하다가 마침내 결단하고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수양을 준비하셔서 자식을 바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지 마시고 기꺼이 바치십시오. 그러면 바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설명합니다.

또 어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도 별 희한한 것을 요구하시네?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라니?” 그래서 혹시 내가 가진 모든 것 몽땅 내놓으라고 하실까봐 겁을 냅니다. “아니, 아브라함 그 사람도 아비라 할 수 있느냐? 자식을 번제물로 잡으려 하다니?” 오늘날 같으면 자녀 학대와 살인 미수 죄로 감옥에 집어넣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생각들은 아브라함의 수준과 하나님께서 시험하려는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창 22:2). 주의해 볼 것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네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을 수 없다가 나이 100세에 독자를 보았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그 독자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아들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질문은 “네가 네 힘으로 낳은 네 아들이냐?”라는 뜻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약속과 전능하심이 아니었더라면 이삭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하였지요? 창세기 22:3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혀 아브라함의 고민과 항의와 불만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가 100세 때 얻은 이삭이 혈육으로 자기의 혈통을 이은 자손이라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가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바로 할례를 통해서입니다. 이삭을 낳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이제 내가 내 년 이 맘 때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아들은 더 이상 육적인 차원에서의 네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우치려는 목적에서입니다. 이것을 신약식으로 말하면 그는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온전히 다 알지 못하였을 것이지만, 그도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영적인 지각이 있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아까워하지 않고 즐겨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소유물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이룬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한 대용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와 함께 누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결단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내 아들이 나의 신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된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여러분의 자식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무 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벌써 달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평생 누린 다음에 달라고 하지 않으셔도 제가 다 알아서 돌려 드릴 터이니 그 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우리들은 아니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 사랑의 시험을 꼭 하십니다. 일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일이 중요하니? 내가 중요하니?” 꼭 물어보십니다. 우리 부부들의 확인과 다했지요? “당신은 일밖에 몰라. 내가 죽어도 꿈쩍 안 할 사람이야! 나 없이 살아도 일 없이는 못 살지?”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꼭 확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나 남편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일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자에게도 똑같은 확인 작업이 뒤따릅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었다면 무엇이였겠습니까? 백 세에 얻은 이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면서 수없이 되새기며, 이게 꿈이여, 생시여? 꼬집어보기도 하고, 얼마나 말년에 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이지만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양자택일의 기로에서는 하나님을 택할 수 있었던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정작 이삭을 결박하여 칼로 죽이고 각을 떠서 번제에 쓸 나무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긴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는 사람을 번제물로 태워서 자기들의 신에게 바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럴 생각을 하고 이삭을 데리고 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22:5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했는데, 우리말에는 그것이 분명치 않지만 원어에는 분명히 “우리가 돌아오리라”(we will worship and return to you)고 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런 확신을 가졌을까요? 그 이유는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물었지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창 22:7)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변하였습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창 22:8)(God will provide for Himself the lamb for the burnt offering.).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서 먼저 나무 단에 놓고 칼을 빼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다급해진 분은 누구셨습니까? 여호와와 사자(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라고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 12:11-12). 그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수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여호와 이레”(여호와께서 준비하심: The Lord will provide)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4:17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19에서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할례를 통하여 자기 독자 이삭은 육신적으로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주신 것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있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도저히 자식을 생각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낳 자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물로 바치려고 시도한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멈추라고 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바와 다름없는 것으로 믿었고, 이삭이 아닌 장차 오실 하나님의 독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수양이 번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가 대속물, 번제물이 되심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영적인 하나님의 후손들이 되었음을 우리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열심과 희생과 바침은 다 헛된 것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십니다”라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대치 않고 내가 내 손에 칼을 잡고 내 자식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죽이고, 교인들도 죽이는 일들이 열심과 비전의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여호와 이레가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와 그의 교회들과 성도들 모두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고 공급하신다고 믿을 때 우리는 더

육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려는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울고불고 야단법석을 떨지 않고 여유 있게 드리며, 바치며, 자원의 헌신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러하였듯이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부활케 하시는 주님이시며, 우주 만물을 무에서 다만 말씀으로 존재케 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분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결단코 절망이나 자포자기나 낙망과 우울증과 자살은 없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분으로 믿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고 없고 전혀 가망성이 없는 것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나며 있고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음으로 그렇게 믿은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2.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갖자.

둘째로, 아브라함은 본문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하였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형편과 상황이 도저히 바랄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십니까? 나 자신도 믿을 수 없고, 식구나 미국 정부나 목사님이나 교인들도 바랄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오직 우리가 바랄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분은 우리의 기대나 바램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가 믿고 바랄 대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1절)고 하였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좇아 나는도다”(5절)고 하면서 말하기를 “백성들이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8절)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라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자에게 마치 아브라함을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소망과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3:20에도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램이여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고 하였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 사단과 악한 영들과 불신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능히 그를 바라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안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 주변 환경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믿음에 더욱 견고히 서자

셋째로, 아브라함이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기 아내를 바라보거나 자기 주변을 바라볼 때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환경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런 환경 때문에 그 역기도 유혹을 받고 패배하며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처신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지 10년이 지나도 주시지 않을 때 그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결국 아내 사라의 제안으로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과오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시고 침묵을 지키시는 고통을 그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도록 다시 돌이켜 주시고, 할례를 통하여 그가 갖게 될 아들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이 백세가 되고 그의 아내 사라 역시 구십 세가 되어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리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생산하리요”(창 17:17)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사라도 그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장막 뒤에서 듣다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창 18:12)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전혀 불가능한 약속이라고 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웃음)이라고 지으라고 하였습니까? 그 때 여호와와의 사자가 한 말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창 18:14)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그러했듯이 종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듣고 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어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비웃음과 어이없음과 포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안 지키는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의학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자식을 주십니다. 그 말에 여러분은 웃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비웃음을 놀라움과 감사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변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도리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기적과 이적을 창출하실 때인 줄 믿고 더욱 믿음에 견고히 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형편을 정확히 파악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을 낳기에는 이미 자기 몸이 죽은 바나 다름없었고, 자기 아내 사라 역시도 이미 경수가 끊어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인 것을 알았습니다. 본인들만 알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며 자식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할 때 당신은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어떠하십니까? 약해지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나 주변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이런 죽은 것 같음이 다시 살아날 절호의 기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더욱 믿음이 크고 자라며 굳게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실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이같은 열악한 환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지만 그것을 통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고후 1:9)고 하면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고후 1:10)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고,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죽은 자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건지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 역시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서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 죽음과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위경에 있게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의뢰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4.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말고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자

끝으로 20절에 보니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신앙을 가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아무 것이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그 말씀대로 살려는 개혁의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기 쉬운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러하였듯이 남들이 “당신이 열국의 아비라고? 자식도 하나도 없으면서, 노망이 났군!” 그런 비웃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너는 하는 일마다 안 되니? 너를

보니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조롱과 비웃는 소리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말고, “그래, 그 조롱의 말이 얼마나 가나 보자! 나를 비웃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네가 조롱하고 멸시하는 하나님이 너를 가만 봐두시지 않을 것이다! 너는 조만간 해표 식용유에 튀김감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심판의 날 때 두고 보자!” 하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믿음을 굳게 갖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위로와 승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좇아 사는 믿음의 후손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질 믿음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라며, 믿음 안에서 이미 그 바램이 이루어진 실체로 누리시며 사십시오! 우리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가능케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그대로 이루지는 것을 기다리며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목적이 우리 모두의 삶과 신앙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할렐루야!

믿음(11)

8/16/2009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Faith working through love)

갈라디이사(Galatians) 5:5-6 (신약 307면)

- 5: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 6: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 5: For we through the Spirit, by faith, are waiting for the hope of righteousness.
- 6: For in Christ Jesus neither circumcision nor uncircumcision means anything, but faith working through love.

로마서(Romans) 5:5-10 (신약 245면)

- 5: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 6: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 7: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 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 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 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1. 세상이 베푸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나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과 유익을 주느냐에 따라 사물과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유용성(usefulness)에 따라 관심과 사랑을 쏟습니다. 가령, “나는 내 차를 사랑한다”(I love my car!)고 말할 때 그 말은 내가 몰고 다니는 차를 통해 얻게 될 유익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새 차를 타고 뽕뽕 달릴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차를 통해 자신이 남과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고물차를 몰고 가다가 길에 섰다고 합시다. 당장 내 체면 구겼다고 화를 내며 난리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 뭔가 유익과 이득을 줄 수 있어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거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말 속에 혹시 아내가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거나, 남편이 아내가 기대한 대로 해주기 때문에 하는 고백은 아닐는지요? 만약 남편이 밖에서 돈도 못 벌어서 오고, 그렇다고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웃는 얼굴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사랑이 아니라 당장 바가지를 긁으며 모독과 미움과 증오의 말이 튀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거꾸로 남편이 돈 잘 벌어서, 시시때때로 보석 등 값나가는 선물을 해주고, 주말마다 분위기 있고 비싼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서 먹고 싶은 것 사주죠...이러면 아내의 입에서 “당신을 사랑해”라는 말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벌써 이 말에 열 받는 우리들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운운하지만 우리 역시도 세상적인 사랑을 기대하고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랑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나에게 이득이 주어져야 비로소 사랑하려는 마음을 갖고,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님을 언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혹시 게임 사주고 선물을 사 줄 때가 아닙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성적이 우수하고 상 받아 올 때는 아닙니까? 혹시 점수가 시원찮고 남들 다 받아오는 상 하나도 받아오지 못하는 자녀들을 안아 주면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기껏 한다는 말씀이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지지리도 공부를 못하니?” 급기야 부부 싸움으로 번집니다. 이렇듯 우리의 자녀 사랑도 부모님의 체면도 세워주고, 자녀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자랑스러워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불구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시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당장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 하였기에 이런 자녀를 주십니까?”라고 항의할 것입니다. 앞으로 받을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시선과 당할 고통과 빼앗길 시간과 수고가 두렵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간의 존재 가치마저도 유용성, 쓸 만한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나에게 이득이 되겠는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애 아이들을 부모와 사회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떠합니까? 만약 목사님이 자신의 체면을 세우고, 자신이 높아지기 위

해서 교회 부흥을 원한다면 그가 진정으로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하는 목회자이겠습니까? 교회마저도 “그래도 교회에서 대접 받고 인정받으려면 현금 많이 내야 돼”라고 공공연히 말합니다. 교인들이 피차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이렇게 교인들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기여하는 봉사나 물질이나 학벌과 사회적 지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사랑의 동기와 기준과 방법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교회 안에도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사랑은 나에게 당장 어떤 유익을 주고, 이득이 떨어지고, 나를 자랑스럽고 만들고, 나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제공하지 못한 대상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당신 그래가지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교회가 이것도 못해주면서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러는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여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랑을 그분께 드린 적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권리와 가치가 있다고 자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처지와 상태에 있었습니까?

로마서 3: 10-12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나는 구원 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누구를 구원해?” 이렇게 자신 있게 나설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고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지 않으신다면 누구에게 줘?” 그렇게 항의할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사람들 앞에서나 할 수 있는 자랑이지, 온전하고 완전한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해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품으시고 포기치 않으시며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강할 때나 우리가 경건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하고 나약하고

더럽고 추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불경건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요구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은 그 상태와 그 수준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언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내가 강할 때, 내가 가졌을 때, 내가 그래도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내세울 만할 때에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풀 사랑은 자기 자랑과 과시와 잘난 체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기가 일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요일 2:15)고 지적한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풀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이득과 이익을 주지 않더라도, 연약하고 경건치 않은 상태에 있더라도 베풀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나에게 도리어 짐이 되고 힘들게 하여도 베풀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건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불경건한 죄인들이 받을 모든 죄값과 형벌을 대신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실천한다 하면서 얼마나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한 자들에게 “무슨 사랑을 베풀느냐?”고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 자리에까지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연약한 교인들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직 여전히 경건치 않은 교인들도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강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들보다 더 경건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치 않을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라야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둘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베푸신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사랑의 진실성 여부가 입증되니까? 언제 부부간의 진정한 사랑이 확증될 수 있습니까? 언제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이 증명되니까? 언제 교인간의 사랑이 참 사랑인지 증거되니까? 그것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때에야 그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적인 사랑은 나에게 사랑스러워 보여야 베풀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자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앙갚음과 보복과 미움의 대상이라고 가르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혼식 예식 때에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이해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겠다고 약속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상대방이 병들면 달아날 궁리만 한다면 어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이익과 만족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죄를 그대로 눈감아 주고 용납하시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죄가 무엇이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행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죄인들이 의인될 수 있었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제는 사랑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의만 내세우는 사랑, 상대방의 실수를 결코 용서할 줄 모르는 우리의 잘남만을 주장하는 사랑을 행할 것입니다. “당신 왜 그 모양이야?” “목사님, 그렇게밖에 못하십니까?” “이 녀석! 이것도 공부라고 했어?” 이러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정이 툭 떨어진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픈 마음이 아니라 미움이 들끓은 속에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돈 못 벌어온다고 구박하고, 집안에 있으면서 애 하나도 제대로 간수 못한다고 핏대를 올리고, 이러저런 싫은 소리 듣기 싫어 바깥에서만 살고,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딱 살게 내방치한다면 어찌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증거이겠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끝까지 바라며 믿으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같은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맨 정신으로, 우리의 육신의 본성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들만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목사님! 나는 그러고 싶는데 저 원수만 보면 그만 그런 마음이 짝 가십니다. 어찌면 좋습니까?”라고 묻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연약하거나 경건치 않다거나 죄인 정도가 아니라, 나와 원수 관계였던 자들이야. 나와 화목의 교제를 피차 나눌 수 없었던 원수들이었어! 그런 원수들인 너희들을 나는 사랑한거야! 단지 죄만 용서해준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와 화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만큼, 죄인만큼 원수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토록 만물 중에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피조물이었던만 그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배반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자처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도 섬기지도 않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또 다른 잡다한 것을 신으로 모시며 삽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원수가 따로 없습니다. 당장 진멸하시고 형벌을 내려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들인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등을 돌린 우리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 주시며,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아쉬워서 아닙니다. 우리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서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사랑만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분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에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친히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저런 원수가 따로 없어”라고요? 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누가 화목을 자청하셨습니까? 여러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먼저 화해를 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쉬워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등을 돌리면 우리는 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으신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할 대상, 그분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부모님이든, 자녀이든, 목사님이든 교인들이든, 이웃이든 간에 그분들이 먼저 화해를 청해 올 때까지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 안에 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먼저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십시오.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오.

3.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랑이 이미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the love of God has been poured out within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하나님께서 가지신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같은 사랑을 베풀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랑을 경험치 못한 사람, 불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변명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는 누구에게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부어졌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사랑을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꾸만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내가 사랑할 대상들을 외면하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남편을, 아내를, 우리의 부모님이나 자식들을 사랑할 마음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사님이나 교인들을 사랑할 마음이나 감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잊었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누구 탓을 하지 마십시오. 남편 때문이라고, 아내 때문이라고 돌리지 마십시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생각하지 않거나 잊어버린 것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이 사랑을 이미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세상적인 사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과 이익과 내 유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진정으로 이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가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과 이 세상 문화와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거나 갖게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 받아야만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가 어떤 사랑을 나에게 베푸셨는지 그 사랑에 녹아진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며, 또한 이미 부어진 사랑을 충만히 깨닫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런데 믿음과 관련하여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6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으로 돌아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된 것을 모르고, 할례와 같은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효력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효력은 예수님이 대신 할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역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고 종의 멍에를 때는 삶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갈라디아서 5:1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주의자, 외식주의자, 생명이 없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로 만듭니다. 믿음은 거기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썰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고전 13:1-2)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기도, 사랑이 없는 은사 체험은 나에게 아무 것도 아니고 (I am nothing),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I gain nothing).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과 변화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는가? 왜 믿는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십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22에 보면 “네가 보거나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 믿음의 진실성과 믿음의 성숙도와 완성은 무엇을 통해서 입증되는가? 그것은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고, 입으로만 믿는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함이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을 가진 자는 무엇을 행하는 자들입니까?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믿는 자들입니까? 믿음을 온전케 하는 행함을 한 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14에서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행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3:34에 기록된 대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예수 안에 있는 나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라야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의 진실성은 사랑으로 입증이 되고, 믿음의 성숙도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식구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느냐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거나 부족하면 그것은 일차적으로 나의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전에 나 자신의 믿음은 어떤 사랑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가 점검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내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인가? 예수님을 통해 내 안에 이미 부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인가? 부단히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점검하고 생각과 습관과 삶을 고쳐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전히 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랑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과 이득과 체면과 자랑을 위해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추구하고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어느 누구도 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내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교우들과 이웃들을 울리고 상처를 줄 따름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베풀어 주셨고, 자기

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경험하고,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그 사랑의 도구와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참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주님,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옵소서! 적셔 충만케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밖으로, 내 식구들과 교우들과 이웃들에게로도 흐르며 적시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부어진 것을 모르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베푸는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사랑, 나의 이득과 편안함과 유익만을 구한 사랑을 구하고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울고 실망하고 마음 아파하고 미워하고 좌절하였음을 고백하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랑을 이 시간 이후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하셨고 이미 우리 안에 부어주신 사랑으로 이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이 떠오르고, 내 안에서 나오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기대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체험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밖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그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진정으로 유익케 하고 연약한 자도 일으켜 세우고, 죄인들도 구원하며 원수된 관계도 화목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주셨는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충만히 깨닫고 감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뉴비전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12)

8/23/2009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는 믿음
(Faith not making idols for myself)**

● 출애굽기(Exodus) 20:1-3 (구약 112면)

- 1: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 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 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 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NIV)

- 1 And God spoke all these words:
- 2 "I a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of Egypt, out of the land of slavery.
- 3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 4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 idol in the form of anything in heaven above or on the earth beneath or in the waters below.
- 5 You shall not bow down to them or worship them;.....

1. 당신이 베푸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몇 년 전 샌안토니오에 있는 홈스쿨을 방문하러 갔다가 그 날 저녁 Norm Wakefield 목사님 댁에서 잔 적이 있었습니다. 밤늦게 도착하여서 깊은 교제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분께서 쓰신 “Equipped to Love”(“사랑의 기술”)라는 책을 나중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다운증후군(Down Syndrome)에 걸린 아만다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내외는 자기들이 여태껏 기도한 제목과는 달리 비정상적인 딸이 태어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기를 통해 자신들에게 영광이 될 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득을 줄만한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너라도 성공해서 가문의 영광이 되고, 부모님이 자랑할 수 있는 아이가 태어나기를 누구나 다 소원합니다. 그러나 태어난 아이를 보는 순간 두 분은 아무런 효용성과 이득과 쓸모가 없어 보이는 아이로 인하여 실망과 무력감으로 크게 동요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기 딸을 통해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똑같이 영적 다운증후군에 걸린 존재로 얼마나 쓸모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나 본인들이나 모두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들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대로 연약하고 하나님께 경건치 않았던 자들이며, 죄인들이며,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영적 불구자들입니다. 영적 다운증후군의 모습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이어서 그러합니까? 아니지요? 우리들을 바라만 보고 계시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 그 분 안에 있고, 그 사랑을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내외분이 자기 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된 것을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만약 그 딸이 아니었더라면 자기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본위로, 내 생색을 내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릇된 세상적인 사랑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간증하였습니다. 그러니 자기 딸이야말로 자기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나눌 수 있도록 해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가 감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내 속을 찌르는 자녀들이 나를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토록 인도해주는 귀한 존재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날마다 바가지 굵는 아

내나 심장을 솟검정이 되도록 괴롭히는 남편이 나를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성숙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감사하며 정신이 번쩍 드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이나 환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도장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28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어려움으로, 상처로, 재난으로, 죽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것을 당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선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요청합니까? 어떤 고난이나 고통도 없어야 된다고 믿고 나에게만은 편안한 길을 달라고 조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세워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사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여 이제라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행 4:29)라고 하였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의 위협을 털어달라거나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께서 주목하여(take note of) 보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모른체 할까봐 의심이 가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사도들이 핍박당하는 것을 전혀 관심에도 두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까? 주님이 주목하셨다면 가만히 저들의 핍박을 보고만 있을 분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러나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 일어서서 보셨지만 스테반 집사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모조리 그 자리에서 죽이거나, 그들이 던진 돌이 방향을 바꿔 돌을 던지 사람에게로 날아가 그들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 뇌진탕으로 모두 죽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스테반 집사를 위험으로부터 구출하지 않을 것이면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테반을 주목하신 것입니까? “스테반아! 내가 네가 당하는 고통을 모른다고 오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금 주목하고 있지 않느냐? 네 당하는 고통과 죽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일어서서 보겠느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무고히 죽었지만 이렇게 부활 승천하여 만유의 주로 하나님 우편에 서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기쁘게 죽어다오!”라고 무언중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단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과 핍박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게으름과 강박함으로 겪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들도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늘 우리의 형편과 주변 환경 때문에 울고불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주위 사람들을 늘 불평하며, 주위여건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갈팡질팡하는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더 큰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간섭을 알지 못하고 제 정신으로 여러분에게 퍼붓고, 화를 내고, 여러분의 심장에 대못을 박는 일을 할 것입니다. 혹시 그들 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을 위해 이렇게 핏대를 올리는 것이라”고,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나를 시켰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 역시도 상대방이 아니라, 그 분 자신도 목적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늘 들러리 역할만 하고 본인은 정작 아무런 성장과 유익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이 수고와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더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며 성숙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와 간섭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만 그 목적을 위해 이 길을 혼자 외롭게 걷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들도 함께 받을 훈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피차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유익과 선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어려움과 서로의 관계들에 대하여 감당하시고 성실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스데반처럼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담대함과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이 세상 가치와 나만 생각하고 나의 안일과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사랑을 해도 내 유익만을 먼저 구하는 우리들이 되지 말라고 무언중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여 그 분이 사셨고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참 제자들이 되기를 격려하시며 이 승리의 길을 걸으며, 참 성공의 인생을 살라고 응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2. 하나님 외의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주목하고 의지하며 그들로부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실망하고 화를 내고 미워하기까지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의 신으로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우상 숭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상 숭배란 큰 돌이나 나무나 어떤 신상을 세우고 그것들 앞에 절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라고 하면서 소원을 비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을 사람이나 사물, 생각을 통해 채움 받고자 기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령, 한 남편이 그의 아내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 그는 아내를 우상화하기 쉽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행복과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고 믿는 아내가 있다면 그 남편은 아내의 우상입니다. 만약 자녀의 성공과 출세를 통해 부모가 영광 받을 것을 기대한다면 그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우상입니다. 돈에 울고 돈에 웃는 돈에 좌우되는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기 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그 어떤 축복과 은사와 성공과 형통을 의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심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는 것을 어느 누가, 그 무엇이 채워주었다면 그의 필요를 채워준 대상이 바로 그 사람의 신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한눈을 팔고 영적 간음과 음행에 빠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의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3절)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와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필요와 참 만족과 행복과 안식과 영생을 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 의뢰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그것을 너에게 주고, 아내가 그것을 너에게 공급해주고, 부모나 자녀들이 채워주고, 세상 오락과 여행과 스포츠와 게임과 인터넷과 돈이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주는 것으로 알다가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쉽게 버리며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몸만 와 있고 입만 사랑한다고 말할 뿐 마음을 주지 않는 거짓 사랑을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사회복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정하며 받아드리십니까?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렘 3:38)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그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대하시고, 의뢰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자 불평하고 불만하며 원망하며 미워하는 것입니까?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원천이요 공급자인 것을 믿은 것입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이, 성도들이 그것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왜 난리법석입니까?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믿고 의뢰하자고 안내하고 샘플로 보여주고 외치는 사람에게 불과합니다. 우상이나 신처럼 신봉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붙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외롭게 나만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으로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분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원천인 것처럼 기대하고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우상으로 모시며,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 그리고 애인(들)이 있습니까? 사랑스러

은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들을 신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며 사랑할 수 있는 관계와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게 막고 자기들이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손짓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시험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마 4:10)고 대적하며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식들도 이렇게 시험에서 이겨야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세상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미안하오. 당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 없는 부족한 남편이오.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오? 그러니 우리 함께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나 나나 해 줄 수 없는 것을, 아니 그 이상의 것을 우리 주님께서 풍성히 멋지게 채워주실 것이오. 아멘?”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를 이상화하지 말고 피차 서로 주님을 바라보도록 격려하고 인도하며 그런 면에서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도 유혹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마귀가 제시하는 천하만국과 영광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행복입니까? 돈입니까? 박사 학위입니까? 미국 시민권입니까? 남보다 더 편리하고 안락한 환경을 누리는 것입니까? 마귀는 그것을 자기 가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애인이,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그렇게 거짓말하십니까? 거기에 꾸벅 절하고 코를 꿰고 따라가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동시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거짓 우상들을 제거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와 만족과 안식과 평강과 행복과 영생과 진정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을 믿고 의뢰함으로 경험하며, 그리고 그분이 주신 사랑을 피차 나눔으로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최고의 거짓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공급원, 해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유익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줄 수 있는 공급원은 사단 자신을 비롯하여 다양하다고 속삭입니다. 돈이 그것을 줄 수 있고, 스포츠가 그 만족을 줄 수 있고, 학위나 권력이 그것을 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가 그것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목사님이 그것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며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안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다른 해결자를 의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의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깨우침과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

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분간하거나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우리가 의뢰하는 대상들을 두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우상들을 우리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를 위하여 우상들을 깎고 다듬고 채우며 새기는 작업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하여” 새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우상들은 누구를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까? 우상을 위하여 만듭니까? 아니지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만듭니다.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도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하여, 나의 욕심과 만족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요일 2:16)을 위하여 우상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손에 끌을 쥐고서 자신이 숭배할 우상들을 새겨 조각하듯이, 오늘 우리들도 자신의 우상을 만들기 위하여 정교한 조각용 끌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가 행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말과 몸짓과 행동으로 조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조각과 부정적인 조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조각은 아주 그럴 듯해서,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그것이 우상 숭배일까 분간치 못할 정도로 우리를 속입니다. 부정적인 조각이란 욕설이나 분노나 거짓말, 싸움 등으로 상대방을 내 맘에 들도록 깎는 것들을 말합니다.

가령, 과거에 우리 부부들이 어떻게 결혼하였으며 사랑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행복하겠구나” 해서 결혼하였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거야”라고 불안해하면서 결혼한 사람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을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내가 좋아해서 표현하는 사랑이었지, 내가 상대방 때문에 좋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사랑하겠다는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피차 사랑한다고 말하고 피차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 사랑이 나중에 어떤 의견 차이와 가치관과 습관의 차이 때문에 이견과 다툼을 불러올지를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우상시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모든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되자 서로에게 실망을 하고, “속았다”, “결혼하더니 달라졌어!” “사랑한다는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상대방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의뢰한 것에 있습니다. 우상처럼 섬긴 것입니다. 신처럼 의뢰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같은 소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꿈을 이루려고 애씁니까? 상대방을 향하여 끌과 칼과 망치와 도끼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내 마음에 들도록 깎고 다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와 결혼하여 처음에 무엇 때문에 많이 다툼 줄 아십니까? 제 아내는 제가 노란색, 빨간색, 갈라풀한 옷을 입기를 원하는 것입니

다. 그러나 이전까지 저는 더군다나 전도사로서 제가 주로 입은 옷은 하얀 와이셔츠에 검정색, 곤색, 혹은 커피색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노란색이나 빨강색이나 눈에 확 띄는 원색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어울리는가는 둘째 치고 일단 제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싫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싫다고 제 아내가 포기합니까? 더 입히려고 그러지요? 말 안 들으면....이러면서 엄포도 놓고 울상이니 들어주기도 하지만 속으로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입다보니 그렇게 안 입어도 미남인데 그렇게 입고 보니 더 괜찮아 보이더라구요! 어느 정도까지요? 제 아내가 생각하기에도 제가 너무 멋있어서 염려스러울 정도로... 그러면 제 아내가 자기 마음에 들도록 나를 만들기 위해서 마침내 성공한 것입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였더라면 제 아내는 계속해서 저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끝을 내게 대고 깎고 다듬고 채우는 일을 계속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문제로 싸울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고서 아내의 말을 들어주기로 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러기에는 저도 저 나름대로 미적 감각이 있고 제 주관에 뚜렷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까? 만약 아내의 요구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는 대신에 당신도 이렇게 하라고 조건부로 들어준 것이라면 우리 부부는 항상 밀고 당기고, 상거래 하듯이 계산이 빠른 관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한쪽도 서로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을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아내에게 있지 않았고, 제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제가 그런 옷을 입고 보니 더 멋있어 보이더라는 생각과 태도가 바뀌니 이제는 제가 알아서 그런 옷을 즐겨 입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제 아내가 나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쓴다 하여도 제 스스로가 그 가치와 유익을 깨닫기 전에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즐겨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 칼을 대면 났수록 우리 인간은 상처와 다툼과 분란을 초래할 따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뜻이 상대방의 바램만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내가 이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나와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원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접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무슨 옷을 입든지 상관치 않을 것이예요. 그러나 이 문제로 당신과 내가 싸우며 다투기를 원치는 않을 것이예요. 그러나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러니 한번 시도해 보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입게 하고, 입고 나면 “와우! 정말 잘 어울린다! 얼짱, 몸짱은 저리가라 하네!” 이러면 처음에는 어색해 하다가도 “자세히 보니까 일리가 있네? 더 얼굴도 환해진 것 같고. 사나이가 이런 일로 아내와 다투어야 되겠나?”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저 주면 행복한 부부,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상대방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해주지 못한다고 즉시 칼을 대고 망치를 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때를 기다리십시오. 가장 적절한 그 때는 본인 스스로가 그 필요성과 유익과 가치를 알도록 일깨워 주는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선하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인지 피차가 서로 발견하고 추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하여 상대방을 깎아내는 우상 숭배와 우상 조각을 만든 일을 중단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깎고 다듬고 채우

시며 만드셔서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피차가 서로 보기에도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며 성숙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쪽도 패배자 (loser)가 아니라, 양쪽 다 win win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고 다듬으신 것입니까? 사기꾼이며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감행하는 야곱을 누가 바뀌게 하신 것입니까? 아버지 이삭이 그랬습니까? 그를 사랑하였던 어머니 리브가가 그랬습니까? 아니면 형 에서가 그랬습니까? 아니면 자기보다 한술 더 뜬 외삼촌이 만들었습니까? 그들은 다 야곱을 만들기 위한 엑스트라 조연 배우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연출과 감독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같은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치 않고 그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조급한 욕심을 버리십시오. 당신보다 더 정확하게 끝을 대시고 계시는 분은 당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실수함이 없이 아름답게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은 격려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깨닫거나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만들려고 하는 이상들 때문에 그것들의 지배와 통제를 받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데도 남편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런 남편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영향력을 받게 되고 내 감정과 마음도 통제력을 잃어서 그것에 지배를 받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을 이상으로 섬기고 돈이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돈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고, 돈 때문에 자기 식구들도 모른 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이상시하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칼을 들고 덤벼들면 나중에는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4.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하여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바꾸며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조각 끌들을, 연장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칼과 망치와 못과 톱과 도끼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상대방을 더 망칠 따름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양보하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마 19:26)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만약 그분이 나를 들어 쓰셔서 그 일을 하기 원한다면 겸손히 수종들되 나 자신도 하나님의 도구들을 통해 깎이우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야 하는 존재인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가며 성숙해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뜻대로 새기는 작업을 그만두고 그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고 온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이 계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그분의 손에 맡길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더 많이 참고 인내하며 위로하며 복돋아주며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 해보려는 시도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를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다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죄책감과 무력감과 가장 가

까워야 할 사람과도 말 한마디도 못 나누고 두 눈을 맞추지 못하고 사는 관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발견되고 실수가 들어나도 “걱정 마세요. 언젠가 때가 되면 당신이 노란 셔츠에 빨간 바지든 연두색 바지이든 멋있고 어울리게 입고 나타나라 믿어요. 아니면 당신이 무엇을 입든지 다 아름답게 보이는 나로 만들지도 몰라요.” 이런 여유와 이해와 너그러움과 자유로움과 기다림과 인내함이 충만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이 없이 영광스러운 날로 대면하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과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와 성도들간에 체험하며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어느 누구든, 그 무엇이든 우리의 우상으로 모시며, 나를 위해 새기는 시도와 바쁜 우리의 작업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우리들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지도록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피차 중심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참 사랑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며 우리를 서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연장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새기기 위해서 든 연장은 우상들을 만들어낼 따름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 믿음 (Faith Started by the Grace of God)

● 이사야(Isaiah) 42:3 (구약 1016면)

3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NASB)

3 "A bruised reed He will not break, And a dimly burning wick He will not extinguish; He will faithfully bring forth justice.

● 베드로전서(1 Peter) 5:5-7 (신약 382면)

5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NASB)

5 You younger men, likewise, be subject to your elders; and all of you, clothe yourselves with humility toward one another, for GOD IS OPPOSED TO THE PROUD, BUT GIVES GRACE TO THE HUMBLE.

6 Therefore humble yourselves under the mighty hand of God, that He may exalt you at the proper time,

7 casting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요즈음처럼 어려운 경기와 생활 가운데 우리가 서로 만나 인사를 나누실 때,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죽지 못해 살지요.”라고 답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라고 답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시지 않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고 살아야 한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있을까요? 부부 싸움하려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참으며 살았습니다.”라고 답변해야 할 것이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속을 썩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화를 내지 않고 잘 타일렸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1. 당신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까?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1) 도덕과 윤리입니까?

종종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선한 마음, 나의 관찮음, 잘남, 도덕과 윤리로 시작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과연 그러한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기는커녕 구타하고 죽이고 하는 것이지요? 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거역하고 오히려 내 말을 들으라고 부모님께 헐박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건 인간도 아니야!”라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인간으로서, 더군다나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그럴 수는 없다고 우리의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들 중에 우리에게 무고히 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서 그를 미워하고 원수를 갚겠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을 가리켜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나도 당신 같았으면 피가 거꾸로 솟고 가만 놔두지 않았을 거야!”라고 두둔하고 공감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도리어 원수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보통 사람과는 달리 도덕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도덕과 윤리라는 잣대와 시각과 가치관과 선입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행동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만약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렴.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 예수 믿는 자다운 사람이라 할 수 있지.”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의지와 힘을 의지하는 자기 결심과 확신내지는 자기 도덕 윤리관에 기반을 둔 생각과 행동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됴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함을 인하여 어떻게 변명하는지 아십니까? 나도 마음만 먹으면, 마음을 조금 더 넓히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어떤 갈등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스스로 자위합니다. 구태여 실천하려고 애를 쓰며 노력하지 않습니다.

2) 하나님의 뜻과 권위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가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하다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제일 되는 첫째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지 않고, 술만 먹으면 난동을 부리고 개 패듯 패는 아버지 앞에 맞아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차마 주먹이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경 받을 만한 부모님만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공경을 받지 못할 부모님이시더라도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공경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며 행동 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나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일차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부모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우선적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태도인 것이지요.

부족하고 흠투성이인 남편에게 왜 똑똑하고 잘난 아내가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실수 많고 부족한 목사님께 순복하는 교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를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기까지는 그를 존중하며 순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무고히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 때로는 악신에 사로잡혀 있는 왕이었고, 심지어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았을 뿐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폐위시키고 대신 다윗을 공적으로 왕좌에 오르게 하신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대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찬탈하는 불경건한 불신앙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맨 정신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무고히 비난하고 거짓으로 욕하고 기를 쓰고 넘어뜨리며 죽이려는 사람,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피해와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다가도 생각나면 벌떡 일어나지 않을 수 없고, 생각만 해도 이가 갈려서 이빨이 송곳처럼 뾰족해지고,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날 정도인데 어떻게 그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본성과 자연스러운 반응과 맨 정신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바로 이 때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처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 원수만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차라리 내 눈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순종하며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과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도와주옵소서.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때와 이 시점이 비로소 믿음이 들어서는 자리가 아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이 출발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싸움은 종종 내 힘으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바꿔보려고, 아니 내 마음에 들게 하려고 기대하고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인간도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아니 나 자신도 나를 바꿀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누가 누구를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바꿀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을 확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바꿀 생각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과 방식이 전부요 최고로 아는 남편이나 아내가 언제 바뀔까? 아직 바뀐 적이 없어서 답변을 못하십니까? 그러나 조금 바뀐 적이 있잖아요? 그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닦달할 때였습니까? 내가 화를 내고 깨부수고 발작을 하고 침묵으로 일관할 때였습니까? 만약 그 때였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착각은 자유입니다. 아납니다. 잠시 상황을 모면하고자 그런 척 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해결되었다고 스스로 위안하고 적당히 넘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행동은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고, 그 가치관의 변화는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도전과 감동이 올 때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감동과 도전은 언제 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나은 가치관과 더 고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오기도 합니다만, 그것도 잠깐뿐입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감

동을 많이 받아도 울고나서는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뿐이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해보고자 하지만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상 내가 먼저 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변화가 서서히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밤낮으로 저 바가지 굶는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나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저 사람을 먼저 변화시킬 수 없다면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항복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과 인도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먼저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문제가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사모하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사람에게 조금씩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5의 “...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될 때 결국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을 대하는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밤낮 서로가 상대방이 먼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내가 먼저 변하고 내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니까 상대방의 부족함이 보여도 책잡을 기회로 사용치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위하여 기도해주는 태도로 변하니 부부 관계가 은혜스러워 가는 것입니다. 싸움도 같이 붙어야 싸울 맛이 나는 것이지, 한쪽이 꼬리를 내리고 살살 웃는데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보면 둘 다 은혜 가운데 부부 관계가 문제가 생겨도, 흠이 발견되어도 도끼눈에 이를 갈고 거품을 품으며 피 튀기며 싸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원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까? “나도 부족하다. 내가 부족하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 거기에 용서와 사랑과 화목이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며, 상대방만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오늘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감격할 때 나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은혜를 베풀 수 있고, 그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는 은혜스러운 관계와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 자만과 교만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상대방을 깎아 내림으로 자기의 잘남을 드러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늘 물고 뜯고 죽이는 일을 감행하는 것인데 얼마나 피곤하고 메마른 삶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나 저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 하나님의 은혜가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우리 될 수 있었던 출발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행위가 옳아서 구원을 받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8-9의 말씀이 그것이 아닙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행위로 구원 얻을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비단 구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도 우리의 본성과 습성으로는 어느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실천하려고 시도하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잘나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치도 요청하지도 않으니 자연적으로 은혜 없는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10에서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며 간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더 많은 수고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며, 기쁨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부족하면 짜증나고 기쁘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도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사랑의 수고로 겸손히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까지 오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자에게 주어집니까?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내 안에 선이 나올 수 없고, 내 힘으로 믿음을 지킨다든지, 내 의지와 결심만으로 주님을 결단코 섬기며 사랑할 수 없으며,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항복하고 오직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고 자기 결심과 의지만을 의뢰하는 사람은

더 많이 실수하고 넘어져야 합니다. '내가 아파서 그렇지 건강하기만 하면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요즈음 물질에 궁해서 그렇지 부자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을 위해 멋있게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이 아니라 건강과 물질을 의뢰하는 자입니다. 주님 없이,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한 자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중심으로 항복하며 하나님의 공훈과 자비와 역사와 간섭을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모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와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떨어뜨리고 부러뜨려야 우리는 행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이미 바닥을 친 우리들이십니까? 이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그 은혜를 누릴 때가 되었습니다.

결단코 어느 누구만 겸손하면 된다, 어느 누구만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5절)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역자만도 아니고, 교인들만도 아니고, 모두가 다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아야 하겠습니다. 남편만이 아닙니다. 아내만이 아닙니다. 부부가 다 함께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과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겸손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어려움과 아픔이나 실패나 심지어 범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는 자는 나의 형편 때문에 낙심하거나 나 자신을 의뢰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 스스로 해결해보려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겸손이 나를 의뢰하지 않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염려란 우리 스스로 해결해보려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돌보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하여 주님을 의뢰하는 자는 나의 염려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고, 돌보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 있는 자이며,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다 주께 맡겨 버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돌보시고,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믿음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 당신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오늘 다른 본문 말씀, 이사야 42:3을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였다고,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시다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종,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상한 갈대”란 어떤 존재를 뜻합니까? 땅 중에서 갈대가 피어나는 땅은 황무지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버려진 땅, 저주받은 땅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경으로 갈대밭이 나오고 청춘남녀가 사랑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또 여자의 마음은 갈대처럼 항상 변하고 흔들린다고 노래하고 있지만, 어찌 여자의 마음만 그러하겠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이며 모든 인간은 다 환경 따라 항상 변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대는 쓸모없는 잡풀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보기 싫은 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가 지금 꺾여있습니다. 부러져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품없는 상태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부름 받은 우리의 출발점, 상태와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습니다. 완전히 부러뜨려 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아무 쓸모없고 도리어 거추장스럽고 해가 되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것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상한 갈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같은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포기치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다 “꺼져가는 등불”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묻은 심지가 타서 어두움을 밝히는 호롱불을 연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기름이 다 떨어져서 마지막 심지가 타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이 다 떨어졌다고 해서 금방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심지가 타고 꺼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심지가 탈 때에는 불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연기만 내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고 눈만 아프게 하는 매연으로 피해만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구원받기 전의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지를 예수님께서 꺾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꺾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런 쓸모없는 우리들을 누구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세상의 빛,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꺼져가는 등불이었던 우리가 꺼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밝힐 세상의 빛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잘나서 세상의 빛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고, 겸손히 기꺼이 세상을 밝힐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도 똑같은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이유와 근거인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은혜를 베풀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의 복음을 전하여 빛 가운데 인도하는 일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는가를 향시도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상한 갈대들이요 꺼져가는 등불들이었습니다. 완전히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우리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로 출발한 우리가 우리의 경주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우리의 이웃들을 대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목사님께, 교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한 갈대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더 키가 크다고 자랑할 일입니까? 모두가 다 쓸모없이 꺾여있는 존재들인데 자랑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기름이 다 타고 없는데 마지막 남은 심지가 크고 작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자랑하겠습니까? 더 지독한 냄새만 피울 따름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하고 누리면서 동시에 이웃들에게 겸손하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동기와 이유와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였음을 잊지 마십시오. 동시에 남은 우리의 인생의 경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되고 마지막 결승점까지 가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본성과 기질과 습성으로는 어느 누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미워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내가 출발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신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시몬을 반석, 베드로로 만드신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집요한 하나님의 열심이며,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하신 뜻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야마시는 하나님의 집념과 능력입니까? 이 은혜로 출발하고 이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이 복인 것이고, 그런 복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 우리 모두와 뉴비전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믿음 (God's Power and My Faith)

◎ 마가복음(Mark) 5:24-34 (신약 60면)

- 24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 25 열 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 26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 27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 28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 29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 30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 31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 32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
- 33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 34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 24 So Jesus went with him. A large crowd followed and pressed around him.
- 25 And a woman was there who had been subject to bleeding for twelve years.
- 26 She had suffered a great deal under the care of many doctors and had spent all she had, yet instead of getting better she grew worse.
- 27 When she heard about Jesus, she came up behind him in the crowd and touched his cloak,
- 28 because she thought, "If I just touch his clothes, I will be healed."
- 29 Immediately her bleeding stopped and she felt in her body that she was freed from her suffering.
- 30 At once Jesus realized that power had gone out from him. He turned around in the crowd and asked, "Who touched my clothes?"
- 31 "You see the people crowding against you," his disciples answered, "and yet you can ask, 'Who touched me?'"
- 32 But Jesus kept looking around to see who had done it.
- 33 Then the woman, knowing what had happened to her, came and fell at his feet and, trembling with fear, told him the whole truth.
- 34 He said to her, "Daughter, your faith has healed you. Go in peace and be freed from your suffering."

뉴욕의 콜롬비아 장로병원(Columbia Presbyterian Hospital) 현관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치유는 지극히 높은 자로부터 온다(For of the Most High cometh Healing.)” 여러분, 비단 질병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렀고 인간의 힘으로는 치료 불가능한 문제라 할지라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치유치 못하시는 문제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치유치 못하시는 사람이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앓고 있는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 아니 영적인 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누가 그 병을 치유해주리라 기대하십니까? 만약 그런 기대도 없고 다만 포기하는 상태에 있습니까?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 판에 “치유는 지극히 높은 자로부터 온다”라는 고백과 간증의 간판을 내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

오늘 본문에 보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은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혈루증이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병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런 혈루증은 문둥병과 더불어 유대 사회에서는 병 가운데에서도 매우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몹쓸 병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 레위기 15:25-33에 근거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자가 생리기가 지난 후에도 계속 피를 흘리는 유출병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성막을 더럽힌다 하여서 성막 안에서 행하는 거룩한 제사에도 참석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만약 유출이 그칠 경우에는 피가 멈춘 지 7일이 지나야 정하다고 하였고, 제 팔 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것으로 보아서 유출병, 혈루증을 부정한 것으로 죄악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자그마치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니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 없고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여자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지난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다 썼겠습니까? 본문 26절에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여러 용하다 하는 의사들은 다 찾아다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닐 정도이면 재산이 그래도 있었던 사람이었겠지요? 그러나 효험 있다 하는 의사들도 이 여인의 병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재산만 다 허비하였고, 이런 저런 비법을 그들이 알려 주었겠지만 그 모든 방법들은 이 여인의 고통만 더욱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효험이 없고 이전보다 더욱 병은 심해지고 중하여졌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지난 12년 동안 한 일이었고 그녀의 상태였습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어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본문 27-28절을 보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몰래 예수님의 뒤로 접근해서 예수님의 겹옷 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 저 좀 고쳐 주세요! 제가 혈루증으로 무려 12년 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발 제 병을 고쳐 주세요!” 이렇게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큰 소리로 외치지도 못하는 이 여인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너무도 귀중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겹옷자락을 만지기만 하여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은 결단코 미신적인 신앙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겹옷자락이 무슨 신기한 힘이 있어서 자기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붙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자기 땀에는 눈에 띄지 않게 하겠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겹옷 자락에 단 술을 만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믿은 바대로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눅 8:44)! 마가는 5:29에서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믿은 대로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12년 동안 고생하였던 혈루증이 순식간에 완치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였습니까? 이것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심리적인 현상입니까? 자기 최면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님을 그 여인이 알았고, 또 예수님이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30에 보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여인은 남몰래 한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의 표현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이 말은 여인이 예수님의 겹옷자락을 만질 때에는 전혀 지각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시다가 뭔가 자기 능력이 새어나간 허전함을 발견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아 차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겹옷자락을 통하여 새어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필요 없고 겹옷을 붙잡으라!” 해서 예수님은 당장 벌거벗은 신세가 되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친히 능력을 베푸셔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겹옷자락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은밀한 중에 행한 일을 여러 사람 앞에 폭로하며 그녀의 믿음을 더욱 돈독히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혈루증으로 소외당한 그녀의 삶을 정상적인 삶과 관계로 치유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속 모르는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지금 무리들이 하도 많아 서로 밀고 당기는 판국에 무슨 옷 타령이십니까? 몸이 서로 닿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옷에 손이 닿을 수도 있지요? 무슨 그까짓 일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를 만졌느냐?(Who touched Me?)” 이었습니다. 누가는 더 자세히 말하기를 “나를 만진 그 한 사람은 누구냐?(Who is the one who touched Me?)”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혈루증 여인을 찾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32-34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 할지어다”고 하였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녀를 찾으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앞에 그 여인을 세우고 그녀의 입과 치유된 몸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토록 만드시기 위하여 그녀를 폭로하신 것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여도 그분의 능력으로 능히 자기 해묵은 병, 불치의 병,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병도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무리들에게 증거토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친히 능력을 베푸시고,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침 받은 우리들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그를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며 떨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분이 주시는 치유와 평강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웃에게 그분을 증거하면 됩니다.

2.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믿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여 고침을 받게 되는가? 예수님의 기쁨 부으심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임하여 치유함을 받게 되는가? 4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1) 말하십시오 (Say It)

첫 번째 원리는 내가 나올 수 있고, 낫고자 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입 밖으로 표현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고 하였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이 구절을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함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번역은 영어 성경 가운데 NASB(For she thought, “If I just touch His garments, I will get well.”)와 NIV(because she thought, “If I just touch his clothes, I will be healed.”)의 번역과 같습니다. 그러나 KJV에서는 “For she said, If I may touch but his clothes, I shall be whole.”라고 하여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Amplified Bible에 의하면 “For she kept saying, If I only touch His garments, I shall be restored to health.”라고 하여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까지 머릿속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올 수 있다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입으로 말하면서, 읊조리면서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는다! 내 병은 낫는다! 나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

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생각으로만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올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믿음이 그의 입술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말한 것입니다. 선포한 것입니다. “나는 낫는다!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올 거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마음으로 믿지도 않았는데 입으로 낫는다고 말할 리는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응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나올 거라는 고백을 하기까지는 27절에 언급된 대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친 소문을 듣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의사들을 찾아가 많은 시간과 돈을 날리고, 병만 더 가중된 그녀이었습니다. 어떠한 희망과 가능성도 없어 보일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자기 병을 고쳐줄지 모른다는 의사들을 찾아갔을 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실망을 안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붙잡는 끈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야 예수님 앞에 나오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행복을 더디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간 낭비, 돈 낭비, 마음도 몸도 다 병들고 더 이상 희망과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에겐 주님 밖에 소망이 없나이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그 도움의 절규와 믿음을 우리의 입으로 토하게 만드십니다. 그렇지 않고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영광을 주님께가 아니라, 다른 데로 돌리는 배은망덕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인정하고 머리와 생각으로 행복하며 입술로 고백하며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입술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 만지면 나올 수 있다는 생각과 고백이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하여 소문을 들은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듣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식구들이 계십니까? 이웃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듣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시며,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나 책이나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기도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고,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교인들이 어떻다고 말씀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자주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분이 나의 모든 질병과 상처와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 예수님 믿고 나아와야지! 예수님이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의 확신과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치유와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고침 받지 못하는가? 우리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말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겠지요? 잠언 6:2에서 “네 입의 말로 내가 얼렸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면 거기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내 병은 내가 잘 알아! 아무도 못 고쳐!” 그러면 그 병이 낫겠습니까? 그 병을 예수님께 서 고쳐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던 질문처럼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먼저 물으실 것입니다. “저 인간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그러면 예수 믿고 싶어도 그런 우리 때문에 안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변해! 만약 바뀌면 천지가 개혁할 거야!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바뀌겠습니까?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내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믿고 고백하고 간증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마 19:26)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바로 이것이 12년 동안 갖은 노력을 다 해도 안 되어 항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은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하며 입으로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나왔던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고침 받은 이유이었던 것입니다.

2) 행동하십시오! (Do It!)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가 믿고 말한 그대로 행동에 옮겼을 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라도 하면 나는 낫는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리저리 밀리고 밀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는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과 열악한 형편에서라도 반드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동이 뒤따라야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왜 그 분에게 기름 부으신 것입니까? 누가복음 4:18-19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61:1-2 말씀을 펴시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여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21절)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으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사단과 악한 영들과 우리의 죄와 욕망과 습관과 병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무서

움과 죽음의 공포와 세상에 눌러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충만케 되니깐 그 분으로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침의 역사가 그의 옷자락을 만져도 나타나고 전달되고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갔다는 말씀은 그러면 그렇게 나갔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감소가 되고 빠져나가게 되었다는 말인가? 그런 예수님의 능력은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그 여인에게로 전달이 되고 역사하게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에워싸고 있었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은 이같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직 이 혈루증 걸린 여인만 경험하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4:36에도 보면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직접 말씀하시거나 만지심으로 고치신 경우도 있으시지만 이처럼 요청에 의해서 옷자락이라고 만져 고침 받게 해달라고 해서 낫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온 몸에 다 흐르고 있으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자동적으로 다 낫게 된 것인가?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경우와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자신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는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든 아니면 우리 쪽에서 그것을 요청하고 갈망하든 오직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연이나 요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없음을 항복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 고쳐주옵소서, 해결해주옵소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항복과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장애물과 난관을 뚫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행동이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가득 에워싼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든, 나를 부정하다고 지탄하든, 지금도 피가 흐르는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옷자락을 힘껏 만진 것입니다. touch down!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처럼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분이 유일한 구원자요 치유자요 해결자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마음과 머리로만이 아니라, 생각에서 그칠 것이 아

나라, 이제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 내 안에 있는 장애물, 내 밖에 있는 방해물, 사단과 악한 영들과 불신자들의 조롱과 비난과 비웃음을 뚫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응답받고 치유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시고, 그분의 발아래에 무릎을 꿇으시고, 목청을 높여 외치십시오!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더 이상 어떤 희망과 소망도 의지할 것도 이제 없습니다. 그것을 찾느라 너무 지쳤습니다. 더 망가졌습니다. 시간과 돈과 인생을 낭비하였나이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이것이 주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산 믿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3) 받아 누리십시오! (Receive It!)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동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고 하였습니다. 12년 동안 고통당하였고 결코 나은 가망이 없었던 그녀의 혈루병이 근원부터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즉시 곧 마르고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먼저 혈루 근원이 마르는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나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느낌과 감정은 나중인 것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느낌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거꾸로 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장 흐르는 피가 멈춰야 내 병이 나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낫기는 뭐가 나왔어? 이렇게 아직도 피가 나오는데?” 그러니 낫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제로 지금 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고 의사의 최종 진단이 나기까지는 안 믿겠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낫기를 생각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이 혈루증에서 나음을 받은 여인처럼, 먼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선언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만하여도 나은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발을 떼고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 때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는 순식간에 나를 온전하게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병이 다 나은 것을 지각하며 느끼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이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먼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나 자신이나 그 어떤 사람들과 그 무엇이나 환경이 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고 항복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결단코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고 달려가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으면 이제 우리의 입술로 사람들 앞에서나 자기 자신을 향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언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마 8:17)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벧전 2:24),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사 53:5)고 하였으니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나의 연약함과 병과 질고는 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짊어지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이미 나는 자입니다! 나는 모든 굴레에서 자유케 된 자입니다! 나를 얽어매는 모든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좌지우지할 권세가 없다! 너희들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 나를 자유케 하시고 아들로 삼으신 분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이니 아무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모든 장애물과 문제들과 넘어지게 하는 세력들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뢰하는 믿음의 고백과 선언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았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질고와 연약함과 고통을 다 담당하셨는데 왜 내가 내 스스로 질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짐을 스스로 지려고 그러느냐? 아니다!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된 자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예수 안에서 누린 신분과 특권과 위치를 생각하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느낌이 오든 감이 오든 상관 말고, 응답이 당장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고 의심하고 초조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면 역사와 응답이 오게 되고, 그때 우리는 자각하고 느끼고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분이 다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짐을 지고 병과 고통을 짊어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다 지셨고,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그가 주시는 특권과 권세는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집안에 들어온 모든 전기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기만 하면 전기가 흐르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마치 전기 스위치를 올리지 않는 것처럼 전기가 통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거기에 구원과 치유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디 믿음으로 믿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 전하십시오! (Tell It!)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역사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30절) 예수님께서 몰라서 묻는 것이겠습니까? 자기 옷자락에 손을 만진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병이 낫게 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군중들 앞에서 그 사람을 찾는 것은 몰래 감추며 은밀하게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여인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셨음을, 또 그런 기적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가르치며 증거코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똑같은 치유의 역사를 경험케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응답의 역사는 우리 자신들만 받아 누리며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들

에게 증거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전하십시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33절에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며 떨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혈루증이 안 나은 상태이면 몰라도 다 나왔으니 사람들의 비난과 시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병이 다 나왔으니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는 관계치 마십시오! 우린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젠가 그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경험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은 자기의 육체적인 병만 치료함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마 9:22)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녀가 그 동안 12년 동안 고생한 육체적인 고통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구원이 이 여인에게 임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에게도 이 여인이 앓고 있었던 것처럼 수 십 년 묵은 질병이 있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수치스러운 병이 있습니까? 물론 육체적인 질병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질병, 모든 우리의 문제 전체를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질병을 얼마나 앓고 있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에게만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런 문제를 심히 앓고 생사를 헤매는 중임에도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자신이 그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로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피가 하체로 새고, 모든 우리의 수많은 땀구멍으로 새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항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명의가 있지 않을까 동분서주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것과 같은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는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유자시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주는 능력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십시오. 그분이 친히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치유와 구원의 능력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마치 집안에 들어와 있는 전기처럼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누릴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삼고 체험할 수 있는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시며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믿은 바대로 행동으로 옮기세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실 때에 일어나십시오! 가서 씻으라 할 때 가서 씻으십시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는 자처럼 사십시오! 없어도 있는 자처럼 사십시오! 굶어 죽어 가면서도 배부른 자처럼 사십시오! 나 쓸 것도 없어도 풍족하게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채워주심과 약속과 공급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당신을 믿어주는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제 그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치유와 구원과 해결을 받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식구들과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외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그런 예수의 증인들로 가득찬 뉴비전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깨우치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All Things are possible to him who believes.)

● 본문: 마가복음 9:14-29 (신약 성경 68면)

- 14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들렸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 15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 16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 17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병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
왔나이다
- 18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 19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 20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 21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 22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붙잡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 24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 25 예수께서 무리의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병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 26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 27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 28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 29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열 두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변형하시며 해같이 빛나고, 게다가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눕니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삼시다'라고 하였습니다(마 17:1-4). 이렇게 산 위에서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서는 남은 예수님의 아홉 명의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고, 그들의 말싸움을 구경하는 많은 무리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선생님! 병어리 귀신 들린 내 외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선생님이 안 계시기에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으나 저희가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라고 하면서 하소연합니다. 이 사람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언어와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에게 들어간 귀신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22절에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18절에서도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외아들이 어릴 때부터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며, 갑자기 거꾸러져 거품을 품고 이를 득득 갈고 이내 창백해지며 다 죽어가고, 불속이든 물속이든 마구 뛰어 들어간다고 할 때 아들도 아들이지만 그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언제 저러다가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기가 그지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외아들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곳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의 제자들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인까 혹시나 해서 그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아들을 능히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로 논쟁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고쳐 달라고 한 아이는 고쳐주지 못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구경꾼들만 모였으니 아버지의 심정은 화도 나고 낙심이 컸을 것입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벌어진 상황을 아뢴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라고 하면서 꾸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말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후에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의 남은 아홉 제자들을 볼 때에 그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니고 보고 듣고 또 실제로 전도 여행을 통해 귀신들까지도 쫓아낸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9명이 함께 달려들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으니 스승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고소해하면서 비난하고 빈정대는 종교 지

도자들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눈에 어떻게 비쳤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재미있어 하며 구경하고 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마 17:17)로 책망하며 한탄하셨습니다.

아마 우리들을 바라볼 때에도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나를 믿고 따른 지가 몇 년, 몇 십 년이 되었는데 이 모양이냐? 이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그런 꾸중을 받을 우리들은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따로 떼어져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이 보통 귀신같으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뿔뿔 떨며 길 터인데 오히려 보란 듯이 더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20절에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간병이가 부은 귀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 이렇게 까불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즉시로 쫓아내지 않고 일단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심어주려는 의도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22절)라고 답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처음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고자 할 때와 많이 차이가 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많이 상한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하였지요. 사람들은 이 일로 말싸움하고 구경거리로 삼았지요. 그러니 그런 와중에서 아버지의 마음도 많이 수그러져 진이 빠지고 상심하여 예수님을 뵈고서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22절)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내 아이를 고칠 수 있다는 일념으로 찾아온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 안 되는 그 시간에 “만약 당신이 하실 수 있거든”(If you can do anything)이라고 마음과 믿음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이만 불쌍하고 아이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이제 자기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약해진 것입니다. 내가 강할 때에는 나의 약함은 관념치 않고 다른 사람만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몇 시간 만에 자기도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게다가 “고쳐 달라”는 요구는 이제 “도와 달라”는 요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쳐 주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자기 아들이 고침 받기는 글렀구나 생각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수님께 대한 믿음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토록 나약하고 연약하고 몇 시간 못 가고 쉽게 떨어지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주위 사람들의 몇 마디에 그 좋고 강하던 믿음들이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집니다. 몇 시간이 못 가서 우리의 결단과 결심과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토록 나약한 우리

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 때문입니까? 누구의 용기와 힘과 믿음을 주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23절) “If You can! All things are possible to him who believes.”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갖게 되는 힘이에요 믿음입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우리 주변과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절망감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해주고 소망과 희망과 가능성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에게 말씀해주시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응답하며 구합니까? “곧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24절)라고 외쳤습니다. “곧”(immediately),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 아이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무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변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그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도와 주소서!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였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를 향하여 명하십니다. “병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오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25절) 그러자 그동안 아이를 괴롭혔던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말들 합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즉시 일어나 건강한 정상적인 몸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28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29절)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것은 이전에 그들이 전도 여행 때 다니며 귀신들을 쫓아낸 경험들만 믿고서 자신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전도 훈련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마 10:1, 8) 그래서 그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한 보고가 무엇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17에 “칠십 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하였던 그들입니다. 그러니깐 이들이 옛날만 믿고 과거에 귀신들을 쫓아낸 경력들이 있으니까 이 병어리되고 귀먹은 귀신 들린 아이를 능히 고치고 그를 괴롭히는 귀신도 쫓아낼 줄 믿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믿은 것입니까? 자기 자신들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아홉 명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큰 소리로 “귀신아! 나가라!” 해도 나가지 않고, ‘귀신 신 나락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콧방귀도 끼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만 “나가라! 나가라!” 하다가 자기들만

나가떨어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과거와 경력과 실력만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이 이제 자기들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들의 능력으로 해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이의 아버지처럼 “도와 주옵소서!”가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아 포기입니다. 자기 자존심과 체면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7:20에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믿음이 적은 것입니까? 내가 고칠 수 있다거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치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것이 적은 믿음입니다.

과연 우리는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왜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덜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이런 저런 환경과 주변 사람들과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다가 그만 믿음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보다는 사람들이 내 문제로 떠들고 싸우고 구경하는 모습에 화가 나고 비참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셔도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시지요?’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해결 해주면 좋고요. 안 되면 다른 데 가서 알아 봐야지요?’ 하나님 앞에서 텅기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 앞에서 텅기는 것입니까?

기도가 하나님을 나의 모든 수단과 방법과 경력과 자존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어떤 사본에는 “기도 외에는”이라는 말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이라고 해서 “금식”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금식하는 것입니까? 내가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몸 무게 줄여 보려고 건강상 굶는 것입니까? 금식하기로 했으니까 습관적으로 금식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금식한다는 것은 음식이 우리의 생명을 부지케 하며 활동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끊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게는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응답을 받는 일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고백이 금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들과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방법들을 완전히 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겠다는 단호한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와 금식”을 언급한 것은 너희가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의뢰하지 않았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결단코 그 말씀은 당장 고쳐달라고 온 아이의 아버지 앞에서 왜 너희가

금식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당장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야 할 판국에 그것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금식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낼 시도는 안 하고 눈을 감고 기도만 계속하고 있으라는 뜻입니까? 아니지요? 기도하고 금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이 아이와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고쳐 주옵소서! 더 이상 귀신의 노예가 되어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귀신을 쫓아내 주옵소서!”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구하였더라면 그들은 이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낼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못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마 17:20)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13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를 믿는 나인데 무엇이 불가능하며, 무엇인들 참지 못하며, 무슨 어려움인들 감당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는 주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던 것입니까? 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까? 왜 제자들에게 적은 믿음이 아닌 큰 믿음이 필요하였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귀신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29절)는 말씀은 너희들이 한 방식으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쫓겨 나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기도와 금식과 큰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쫓겨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예전의 경험만 믿고 하나님께도 의뢰하지 않고 적은 믿음을 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는 센 귀신이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센 귀신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센 귀신일수록 자기처럼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날 때부터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간질로 괴롭히고 또 아이를 죽이려고 불속이든 물속이든 뛰어들게 하였으니 이 얼마나 순악질 귀신입니까? 여기 어디에 불쌍함과 긍휼함이 보입니까? 날 때부터, 아이에게 그랬으니 보통 귀신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오실 때 기겁하여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사정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우리를 쫓아 내실진대 돼지 떼에 들여보내소서”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찢찢뻤던 귀신들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괴롭힌 귀신을 보십시오! 오히려 보란 듯이 예수님 앞에서 실력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이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기 권세를 부렸던 것입니다. 감

히 예수님 앞에서 까불며 재주를 부린 것입니다. 얼마나 간쟁이가 부은 귀신입니까? 그것뿐입니까? 나중에 예수님에 의해 쫓겨나면서도 끝까지 발악하는 것을 보십시오!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같이 되어”라고 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악질이고 등급이 높은 쉰 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신인 줄도 모르고 제자들이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자기들의 힘이 해결하려고 하였으니 귀신이 콧방귀도 안 뀌 만하지요? 다른 유(종류)의 귀신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기도란 하나님께 “도와 주옵소서!”라고 나의 모든 것을 항복하고 포기하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여 구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확률이 아닙니다.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설득도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신념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환경이나 요행이나 운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해결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거나 의뢰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기의 경험과 머리와 수단들을 다 동원하여 고쳐보며 쫓아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싸우면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우리라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거나 게을리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외쳤던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 역시도 이렇게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주여, 이제 제가 주를 믿나이다! 주님이야말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이시며, 나를 고치시는 자이시며, 내 안에서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고쳐 주옵소서! 주여, 아무리 악한 악질의 귀신들이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있더라도 주님은 쫓아내실 수 있습니다.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주님이 명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귀신들은 나올지어다! 다시 들어가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상대 적을 모르면 모른 만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항상 문제 뒤에 숨어있는 사단의 획책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 서기관들, 모인 군중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 뒤에서 조종하고 낙담케 만들고 그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피상적인 것에 머무르고,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쓸데없는 싸움과 분쟁만 일삼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들도 등급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리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오만하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패배하여 도망가면서도 우리를 괴롭힐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하나님 없이, 기도 없이 해보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좋아할 일이며, 죄를 낳는 근

원입니다. 교회 안에 때로는 산위에 오른 것같은 영광의 시기와 수준과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만족해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 밑에서는 사단과 악한 귀신들이 더욱 발악을 하며 모든 사람들을 분쟁과 낙담과 믿음을 떨어뜨리는 최악으로 몰고 갔음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는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체험하고 있지만, 누구는 가장 나약하고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서로 인식하며,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같이 바라보고 온전히 신뢰함으로 다시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 다함께 힘써 기도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을 몇 가지 드립니다.

-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하나됨을 끝까지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하나되고 진리로 거룩한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 2)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심을 믿고 신뢰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의심과 불신은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 4) 병든 자와 연약한 자들의 치유와 사단과 귀신들과 우리의 죄와 습관에 억눌려 있는 자들을 예수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 5) 연약한 자들을 비난 질책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을 살리고 세우는 긍휼과 체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돌보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사단과 귀신들의 노리갯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다 살아나고, 고침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함께 23절, 24 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함께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아멘.

믿음(16)

9/20/2009

시련을 참는 믿음
(Faith to persevere under trial!)

◎본문: 야고보서 1:12-15 (신약 371면)

- 12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 13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 14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 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NASB)

- 12 Blessed is a man who perseveres under trial; for once he has been approved, he will receive the crown of life, which the Lord has promised to those who love Him.
- 13 Let no one say when he is tempted, "I am being tempted by God"; for God cannot be tempted by evil, and He Himself does not tempt anyone.
- 14 But each one is tempted when he is carried away and enticed by his own lust.
- 15 Then when lust has conceived, it gives birth to sin; and when sin is accomplished, it brings forth death.

사람들마다 인생의 시련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로 시련에 봉착할지는 각자 다를 것입니다. 질병이나 사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등등 언제 어떻게 무슨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시련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같은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내부적인 시련을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재해나 사고나 질병이나 실패 등의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부적인 시련을 맞기도 하는데 그 내부적인 시련이 외부적인 시련보다 더 견디고 이겨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과연 내가 이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신 것인가?’ ‘내가 그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게 사실인가?’ 이런 내부적인 갈등과 의심과 불신 등의 큰 시련을 맞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그 일로 큰 시험에 빠지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마침내 시험이 되어버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1. 시련을 참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처음 12절의 말씀은 우리말로는 “시험”이라고 번역하였지만 원래의 뜻은 시련을 가리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유혹(temptation)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시련(trial)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참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하든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다음의 13절 이하의 말씀은 유혹을 뜻하는 시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유혹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말 대신에 유혹이라는 말을 집어넣어 다시 한 번 읽어보십시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면 왜 시련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유혹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야고보가 시련과 유혹을 헛갈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시련이 가중되다 보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시련을 너무 견디기 힘들어 한 나머지 신앙에서 잠시 떠난 분들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도들은 시련을 통해 잠시 시험에 빠지기도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으로 시험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시련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한 성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왜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 중의 대표적인 하나는 우리가 참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시련이 무엇 때문에 온 것인지 깨닫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기다리거나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떠나고 주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생활도 등한시합니다. 그러니 더욱 사태가 악화가 되어 급기야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우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고 하나님께 불만이 생기더라도 조금 더 참고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거나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림이 없이 계속적으로 정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다른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실 거야. 나를 변화시키고 연단시키고 성장, 성숙케 하시려는 다른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참아야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며 시련을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참는 길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련을 참고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2.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험을 참는 성도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시험, 곧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평생 사는 동안 어떤 시련도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참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시련이 없는 자가 아니라 시련이 있는 자, 그리고 그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까? 12절의 말씀에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이 그 답변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시련을 가리킵니다. 시련을 통해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을 끝까지 참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가령, 국가 축구 대표 선수로 뽑혔습니다. 월드컵 축구 대회를 앞에 두고 국가 대표 선수로 뽑힌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대표 선수로 뽑혔다고 해서 모든 선수들이 다 뽑니까? 그들 중에 추려서 실제 당일 시험 날에는 best 선수들만 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혹독한 훈련이 있습니다. 기량을 점점하고 경기에 나가 도움이 되겠다 싶은, 본문 12절의 표현대로라면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만 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리 소집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들 중에서 가려내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훈련의 과정에서 있게 되는 시련을 잘 참고 끝까지 남아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감독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훈련소를 박차고 나가고, 부상으로 더 이상

뛰지 못하게 되면 그는 실제 경기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 위하여(롬 8:29),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며 성숙하도록(엡 4:13) 우리의 대한 훈련 목표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 과정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입니다. 그 시련을 통해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칭찬하는 그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서도 옳다 인정해주는 나의 믿음인지 확인케 하는 작업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시련의 과정을 잘 감당하면 마침내 우리를 부르신 감독이신 예수님께서 '너는 과연 내 제자답다!' 그렇게 인정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보다도 예수님께서 옳다 인정해주셨으니 얼마나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정말 옳고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받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도 나중에 그와 정반대의 사실이 밝혀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실망하게 되고 그동안 속고 산 것에 대한 분노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옳다 인정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이라고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옳다 인정하심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 사람은 불행하고 복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옵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가 아닌가 결정되는 순간인줄 아시고 끝까지 시련의 과정을 잘 감당하며 참고 이겨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거나 그것으로 다 된 줄 알고 자고하여 안주하면 그 사람은 유혹에 넘어간 것이고, 시련이 주는 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어서 시련을 참고 하나님의 옳다 인정함을 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련을 참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이지요? 요한계시록 2장에 소개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 서머나 교회가 아닙니까? 10절 말씀에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불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장차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핍박을 받고 있었던 교회이었습니다. 핍박으로 말미암아 현재 시련 가운데 있었던 교회이었습니다. 환난과 궁핍함 가운데 있었던 교회이었

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서머나 도시는 잘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는 궁핍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말씀하셨듯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믿는 자들이 아닌 사단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서머나는 특히 이민 온 유대인들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아름답고 무역이 발달한 부자 도시이니까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던 것이고 또 대부분의 상권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미워하였던 이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경제적으로 핍박하다보니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함을 겪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은 핍박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미국에 와서 살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반기독교 국가들에 사는 교회와 성도들은 핍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시는 분들은 회개 할 일이 아닙니까? 환난과 궁핍함 가운데에서도 굶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역시도 지금 환난과 궁핍함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계 2:9)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할지라도 실상은 부요한 자들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놀리시는 것인가? 우리가 부자라니?” 그러나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자라고 해서 그의 마음도 부자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 많은 부자라고 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안 초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가의 폭락 여부에 울고 웃습니다.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가정도 없을 때는 그렇게 화목하던니 이제 여유 있다 보니 제각기 따로 놓입니다. 식구들 사이도 돈 때문에 더 멀어집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부요함이 결단코 우리의 마음의 부요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그들이 핍박으로 인해 궁핍함 가운데 고생을 하고 가난한 생활을 하였지만 그들의 삶과 가정은 예수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가진 자들이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핍박을 가하면 그 앞에 굴복해야 핍박하는 맛을 즐기며 더 핍박할 터인데 전혀 요동치 않는 삶과 오히려 더 담대한 반응을 보이니 핍박하는 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저들보다 더 부요한 자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부자인 것 같지만 가난한 삶을 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것은 쥐뿔도 없고 내세울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가난한 자이지만 부요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어떤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시며, 동시에 그들의 영적인 풍요로운 삶을 칭찬하신 예수님이시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제는 다시는 환난이 없도록 하겠고, 지금부터는 어떤 궁핍이나 배고픔을 겪지 않도록 채워주마”라고 말씀하실 성 싶은데 그렇지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불지어 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10절)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도 칭찬하신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다.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런 처지에서 그같은 말씀을 들었다면 아마도 “주님, 참 너무하십니다. 뭐가 부족하셔서 또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주님,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희들 가지고 노시는 것입니까? 그토록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이런 험한 말도 불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고통과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통도 싫어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맨 정신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서머나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결단코 그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지 않겠다는 악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의 위로와 권면과 약속의 말씀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 앞에 어떤 일이 있겠는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당하는 것과 전혀 기대치 않고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당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육적으로 편해지고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이런 큰 환난을 당한다면 다 주님을 배역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소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장래에 그들 앞에 닥칠 환난에 대하여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것은 지금 자칭 유대인들이 가하는 핍박보다도 더 한층 잔인하고 가혹한 것일지도 모른다.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은 옥에 갇히고 사자들의 밥이 되고 처절한 죽임을 당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핍박이 아니다. 너희가 영원토록 누릴 영광의 기간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잠시 잠깐에 불과한 십일이라는 짧은 기간일 따름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일 동안”은 말 그대로 십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또 초대 기독교를 핍박하였던 10명의 로마 황제들을 가리키거나 그들이 가한 10년이라는 핍박의 기간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짧은 기간에 불과할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짧다고 대충 넘어가는 핍박인 것은 아닙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불에 태우거나 사자들과 싸우는 모습을 모인 사람들이 즐기는 노리갯감으로 죽는 혹독한 고난의 핍박이었습니다.

이같은 예수님의 예고대로 사도 요한의 수제자이면서 훗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Polycarp)(69-156)이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미 11명의 성도들이 야수들의 먹이가 되어 순교한 후였습니다. 원형 극장에 끌려온 폴리갑에게 총독은 명합니다. “시이 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예수를 욕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지난 86년간 나는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를 구원하신 저의 왕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결국 폴리캡은 그날 오후 2시에 화형장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환난과 죽음을 미리 예고해 주지 않았다면 폴리캡이 담대히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예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귀를 막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마 24:9).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마 5:10-12). 이렇게 비단 서머나 교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은 핍박을 안 받겠다고 피하면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핍박만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역하는 일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런 핍박이 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10절)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죽도록”이라는 말은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죽는 순간에만 충성을 다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평소에 그렇게 살아야 죽는 그 순간에도 충성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죽음까지도 충성의 연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충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신실함을 가리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faithfulness)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음의 위협 앞에 신앙을 팔거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키라(Be faithful)는 뜻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과 환난과 궁핍함과 당장 닥친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되이 지키고 있습니까? 죽으면 죽을지언정, 사자 밥이 되고, 불에 타고, 굶어 죽게 되며, 사람들의 노리갯감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시겠습니까? 주님의 교회와 제자들답게 믿음을 지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위해 예수님을 저버리고, 신앙을 에누리하며 믿음 생활에서 떠나거나 게을리 하시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죽기까지 충성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불이익과 손해와 배고픔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버린 적이 없고, 나를 모른 체 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시며 인도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나는 결코 부인하거나 버릴 수 없다고 우리도 폴리캡처럼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시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12에서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

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은 생명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폴리캡의 죽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펌박하는 자들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앗아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과 영원한 생명은 결코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승리한 선수들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처럼 일시적인 화관이 아니라, 결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시련을 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 시련을 참는 믿음(시련에 대한 우리의 자세)

이제 결론적으로 시련을 참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시련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겪는 시련이 나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자신을 살펴 중심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나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한 시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센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시련의 이유를 모를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시련을 참고 이겨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날 것이 아닙니다.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유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upgrade)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시련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옳다 인정함을 받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을 잘 참는 자들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납치된 우리나라 사람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엄청난 돈을 지불해서라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죽고나면 구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한 생명도 영원한 것은 못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이 땅에서는 무고히 살해당하였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요한복음 11:25-26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바라건대 우리 모두는 죽도록 충성하고 진실되이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이 영생을 누리며,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 끝까지 시험을 참음으로 하나님의 옳다 인정하심을 받고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다같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약 1:12)

믿음(17)

9/27/2009

용서하는 믿음 (Faith of Forgiving)

◎ 본문: 창세기 50:15-21 (구약 성경 81면)

- 15: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 16: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 17: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 18: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 19: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 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 21: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림에 있어서 방해되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 중의 하나는 단연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한 마음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마치 어떤 사람을 인질로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충족될 때까지 놓아주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저지른 과오와 상처에 대하여 보상할 때까지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보상될 때까지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미움과 증오심으로 혼자 괴로워하고 생활의 리듬과 삶의 용기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준 상대방보다 더 괴로워하고 더 손해를 보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용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본인이 무슨 잘못을 한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는 얼마나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적지 않은 손해를 끼칩니다. 즐거움과 은혜를 앗아 갑니다.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그 한 가지, 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상황과 인간관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동류의 사람들을 괜히 미워하고 비판적이기가 쉽고, 상처 받기를 두려워하는 나머지 만사에 소극적입니다. 깊이 개입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만 맴도는 인간관계와 생활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용서하기를 거부합니까? 그 중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먼저 상대방을 용서하면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생각, 나의 옳고 정당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먼저 용서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과 정반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의 빛을 탐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당하고 옳았다면 아량과 자비와 탐감해주는 용서를 먼저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니까? 바로 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해서 그의 옳고 의로우심에 흠집이 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까? 오히려 그의 옳고 의로우심은 그가 먼저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더욱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용서는 내가 옳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상대방의 빛을 탐감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다고 지금도 이를 악물고 용서치 않는 분은 없으십니까? 만약 그 사람이 이미 이 땅에 더 이상 살지 않은 분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용서치 못한 감정과 분노와 상처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아니 때로는 생전에 내가 용서할 수 있을 때에 용서하지 않았던 자신의 닫힌 마음을 한탄할 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내가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이나 상처가 해결되는 것이 아

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인간만 없어지면 내 상처가 다 치유될 것인데. 내가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용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나, 상처를 입어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다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아니 용서하지 않으려는 우리에게 더욱 더 필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 뿐만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마 18:22). 그런데 또 예수님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눅 17:4)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요청할 때 용서해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웠던 우리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면 그렇지!”라고 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도 “그 정도 빌어서는 용서해줄 수 없다!”고 용서를 거절하고 되돌려 보낼 때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해주는 것은 그래도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면서도 상대방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그가 여러분에게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찾아가 당신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다고 지적해주고 또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죄의 고백과 용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기까지는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상처 받은 나 혼자 그 상처를 안고 괴로워해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에게는 이런 상처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자유로이 자기 의사나 감정을 표현치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나 분위기는 그것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이같은 경우들에 대하여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마 27:40)고 조롱하며 욕하였던 무리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마 27:42)라고 예수님을 모욕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가 아니었습니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향하여 저희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용서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압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깊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더 뿔뿔무쌍하게 그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 하라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 첫 순교자였던 스테반 집사도 그러했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진리를 외쳤습니다. 그가 거짓 진리를 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외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였지요? 스테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스테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던 자들이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죽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은 자라고 해서 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아 마음이 찢린 사람들도 결코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스테반은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였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행 7:60)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나에게 찾아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나에게 빌기까지는 일단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과 모순된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닮은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용서와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마땅히 베풀어야 하는 용서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먼저 깨달아 구원의 주님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였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롬 5:6),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롬 5:10),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아니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받으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들을 용서해주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루어놓은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며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상대방이 죄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회개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와 본보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자라할지라도 장차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언제 그 사람을 돌이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것을 소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정죄하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며 욕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찢려....우리가 어찌할꼬”(행 2:37)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까?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은 것이 아닙니까? 만약 저들이 범한 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고 우리마저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음의 문을 꼭 닫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깨우치심과 돌이키시는 간섭과 구원과 역사를 막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려서, 아니면 자라오면서 우리들의 부모님이 준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자신도 알지 못하게 범한 상처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이 괴로워하십니까? 부모님만이 아니라, 철없는 남편이나 속 좁은 아내가 자신도 모르게 준 아픔 때문에 지금도 생각하면 미워 죽이고 싶은 마음이십니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그런 상대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기 전에 너 자신 먼저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과 용서를 깊이 깨닫고 있지 않은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그럴 생각도 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더니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범한 죄를 회개하며 그 앞에 나아와 용서를 구하며 사죄의 은총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 언젠가 상대방도 우리들처럼 돌이켜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도 상대방이 고백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먼저 그를 용서해주는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더 복된 것입니다.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안고 사는 사람은 스스로 가슴에 불씨를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와 미움과 고통이 쉬지 않고 기회만 오면 불거지고 타올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용서한 사람은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괴로워하느라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치유함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요셉을 통하여 큰 도전과 깨달음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제외하고서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단연 요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91세)에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낳은 첫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처, 레아와 그의 두 여종들에게서 나온 아들들보다 더 각별히 사랑하였습니다. 눈에 띄게 편애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나이 17세에 꿈, 부모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였다는 꿈 해몽으로 인해 더욱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형제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요셉을 처음에는 죽이려 했다가 그들 가운데 맏형인 르우벤이 말려서 미디안 상고들에게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한 것 때문에 억울하게 팔려 나중에는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종이 되어 요셉이 그곳에서 충실하게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주인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요셉은 그 곳에서 가정 총무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보내며 시도 때도 없이 유혹을 하며 동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럴 때마다 주인의 은총을 입은 나이코, 또 더군다나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일부러 그녀와 함께 하는 자리도 피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집안에 없는 틈을 타서 그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또 동침을 요구하니까 요셉이 붙잡는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기를 희롱하려 했다고 하면서 요셉의 옷을 증거물로 제시하니까 요셉은 또다시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바로 왕의 시위대장입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을 지키는 수도 사령부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는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요셉이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전옥(간수장)이 요셉에게 죄수들과 옥중 제반 사무를 다 맡깁니다. 나중에 요셉이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지혜로 기라성 같은 백관들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이 감옥에서 배웠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그 곳에서 인생을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나라 살림을 배운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것만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며 땅을 치고 벽을 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판 형제들을 원망하였다면 그런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억울함과 분노와 용서할 수 없는 일들과 사람들 때문에 화병으로 스스로 감옥에서 머리를 벽에 처박든지 혀를 깨물고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단순히 바로 왕의 꿈을 잘 맞추고 해몽해준 것 때문에 총리로 발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세계를 통치하는 것과 다름없는 막중한 자리를 아무한테 그것도 약관의 나이 30세 청년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하는 말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창 41:38-40)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된 것이 저절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절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억울함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배운 지혜요 어려움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로 도달한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것을 처음부터 자기가 계획하고 이룬 성공이었습니까? 요셉이 나이 17세에 꿈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살다가 마침내 그것을 이룬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꿈을 가지신 것이고, 그것을 요셉이 알아서 즐겨 따라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그의 혼을 꿰뚫어 끌고가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105:18-19에 보면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에서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인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몸이 아니라, 그의 혼이 죄사슬에 매인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여호와와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 자리를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어도 부끄럽지 않고 지혜로 백관들을 다스릴 인격자와 실력자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을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고, 엄청난 연단과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 억울함과 고통의 지난날들을,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 과정을 통과한 후 그들에 대한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자기를 판 요셉의 형제들이 기근으로 인해 양식을 구하러 요셉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창세기 45장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5-6절). 계속해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버지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7-8절)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자 또 다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의 명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하면서 요셉에게 자기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창 50:17)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때 요셉의 답변이 무엇이였습니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19-20절)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미 자기를 판 형제들을 용서했던 것입니다. 지금에서야 용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가 그들이 먼저 용서를 빌기도 전에,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한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더 높고 깊고 앞선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인도하심이 계셨음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였고, 더 나아가서 그런 억울함이 도리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요셉이 될 수가 없었는데 왜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결국 용서할 수 없는 상대방이요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와 그것을 통한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다면,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이나 사람들 앞에서 더욱 성숙된 모습의 내가 된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상처를 가한 사람들을 용서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를 악물고 내 눈에 흠이 들어가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난리일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우리에게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미 그들을 용서하였음을 확인시켜 주면서 도리어 그들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분노도 선으로 바꾸셨다고 자랑하며 간증하는 우리들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상대방이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용서하며 이미 용서한 사람으로서 더욱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혁되어야 할 우리들의 이유인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상처와 분노와 아픔까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역으로 사용하시며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음으로 우리가 이제 용서할 수 있고, 또한 그동안 용서치 못한 분노와 미움의 마음들이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의 원통과 억울함과 분노와 미움을 완전히 해결해줄 그 어떤 대상이나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그 무엇도 우리에게 완벽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을 이 땅에서 다 해결하고 누린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씻겨주며 해결해줄 우리의 눈물과 애통과 아픈 것이 남아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손해보고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고 분통하여도 먼저 용서해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이 훗날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해주시는 은혜는 더욱 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이 땅에서도 베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먼저 용서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은혜가 풍성한 성도가 되고,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18)

10/4/2009

강청의 믿음의 기도 Prayer of Faith with Boldness(Shamelessness)

◎ 본문: 누가복음(Luke) 11:5-13 (신약 성경 111면)

- 5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덩이를 내게 빌리라
- 6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 7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 8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 9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 10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 열릴 것이니라
- 11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 12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 13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도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쉽게 잊어버리게 되고, 또한 응답이 더딤에 대하여 쉽게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만큼 기도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거나 적으면 그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하기를 게을리 하고 쉽게 포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어떠한가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이같은 믿음은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는 없습니다. 신뢰감은 깊은 사귄의 관계에서 싹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은 한동안 교제하며 지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선불리 믿었다가 사기당하고 실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기도를 내가 기도하여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소원이 어떻게 빨리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좌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더디거나 안 이루어지면 쉽게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빠르다고 하여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필요와 욕심만을 구하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서 나중에는 우리 부모님은 내가 뼈를 쓰면 다 들어준다는 식의 버릇없는 자녀처럼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방법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기도 응답 여부에 좌우되지 않고 기도를 즐기며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를 이루는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오시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우리가 “주 기도”라고 부르는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유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친구를 찾아가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행 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지금 자기 집에는 떡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에 빌려줄 떡이 있지만 이제 불을 끄고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친구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친구됨을 인하여 들어줄 수는 없지만, 안 주면 계속해서 달라고 강청하기 때문에 일어나 원하는 떡을 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친구가 한 밤중에 찾아온 것을 우리나라 식으로 생각하여 예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낮이 워낙 더운지라 낮 시간에 손님이 찾아오지 않고 밤 시간을 이용하고, 또한 여행도 선선한 밤에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늦은 시각에 친구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관습에 의

하면 손님이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에는 반드시 대접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만약 손님이 찾아왔어도 대접도 안 하고 쫓아내면 그것은 본인과 가문이 창피당하는 일만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정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대접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천사들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들을 대접하려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네 집에 온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하면서 욕을 보이려다가 결국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인의 풍습은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지 못하는 손님이 아니라, 친한 친구가 여행 중에 밤늦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찾아온 허기진 친구를 대접할 음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집에 가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친구여! 나에게 떡 세 덩이만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떡 세 덩이는 한 사람 분의 식사 분량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의 대답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문하십니다. 이 당시 유대인의 주택은 돌로 만들어졌고 문은 창문과 대문이 각각 하나씩입니다. 창문은 풍속에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고 대문은 아침에 한 번 열어두었다가 저녁이면 닫습니다. 그리고 빗장을 거는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닫은 문을 다시 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방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거실이자 부엌이지만 밤에는 온 가족이 함께 자는 침실입니다. 그러니 밤이 깊어 온 식구들이 한 방에서 자고 있는데 일어나 불을 키고 대문을 연다는 것은 잠자는 모든 식구들을 다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정이 딱하고 친한 친구의 요청이지만 그 시각에 일어나 떡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실례와 무례함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 지르며 떡 세 덩이를 계속해서 달라고 강청하면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그 요청을 들어주지는 않을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는 들어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기도를 강청하면 하나님은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계속해서 조르면 응답할 수밖에 없는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청의 기도야말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울며 떼를 쓰면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어린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는 부모처럼 우리 하나님도 응답해달라고 조르고 떼를 쓰면 마침내 들어주신다는 근거로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는 것은 아무리 떼를 쓰고 응답해달라고 졸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당황해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떼를 더 심하게 쓰는 방법도 취해봅니다.

그런데 “강청”이라는 말의 원 뜻은 수치스러움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shamelessness(수치스러움이 없음)" "boldness"(당당함, 뻔뻔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한 밤중에 잠자는 친구를 깨워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실례나 예의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뛰어넘는 행동이 아닙니까? 제 정신이 아닌 술 취한

친구나 할 수 있는 무례함이지요? 만약 ‘아무리 친한 친구이지만 이렇게 늦은 시각에 찾아간다는 것은 실례요 큰 무례함이지!’라고 생각하였다면 떡 세 덩이를 구하기 위해서 잠자는 친구의 집 문을 두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같은 실례를 무릅쓰고 수치스러움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먹을 것을 달라고 강청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강청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친구가 떡 세 덩이를 주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강청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무조건 달라고 조른다는 것으로만 알면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와 기도의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 이 친구가 친구라는 이름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치 맡겨놓은 자기 것을 내놓으라고 할 정도의 뻔뻔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강청의 뜻입니다. “네가 내 친구인데, 이 시각에 너밖에 도와 줄 사람이 없으니 제발 나 좀 도와주라!” 이게 아닙니다. 상대방 친구 쪽에서도 “야, 네 사정도 딱하지만 나 역시도 너 돕자고 일어나면 온 가족이 다 깨게 되고 온 집안이 난리일텐데 그럴 수는 없다!”라고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청이라는 말의 뜻은 “당장 안 내놔! 문 부실 거야!” 그러면서 내놓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극히 낮아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수준과 상태에 대한 항복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또한 우리가 어떤 수치스러움과 실례와 무례를 무릅쓰고 당당하고 뻔뻔스럽게 요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자기 아빠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사달라고 조를 수 있는 상대와 관계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내가 울고불고 떼를 쓰면 아빠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는 것과는 다른 말씀입니다. 후자는 떼를 쓰면 들어준다는 내 쪽에서의 열심과 간청과 끈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전자는 내가 떼를 써도 되는 상대가 누구인가, 그분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떼를 쓰다가는 야단만 맞고 이상한 녀석이라는 눈총만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누구가 아니라, 자기 아빠이기 때문에 때로는 억지를 쓰고 떼를 쓰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아빠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는 대상이기 때문에 강청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달라고 떼를 쓰라가 아니라, 달라고 떼를 쓸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네 아빠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요, 그래서 그것이 아들로서 누리는 특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방법과 수단이기 전에 특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하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써 내가 당당히 나아가며 때로는 수치스러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아가갈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고 그것이 기도이라고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청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고

위치이고 우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기도 응답이 더디거나 없다고 낙망하거나 그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강청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특권입니다. 그것은 마치 히브리서에서 있는 두 구절들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0:19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그 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용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치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몰래 왔다가 몰래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담력(boldness, confidence)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확신과 배짱과 당당함과 뻔뻔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담력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같은 확신과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간다고 해보십시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분 앞에서 죽지나 않을까 두렵고 무서움으로 벌벌 떨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열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당당하고 뻔뻔스럽게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내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겠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같은 마음은 본인 자신만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충동질하는 고소장입니다. “너, 그런 죄를 지은 주제에 무슨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 거야? 너는 양심도 없니? 왜 그렇게 뻔뻔해!”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너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고, 너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단다! 그러니 이제 그 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당당하고 뻔뻔스럽게 나아가야 되느니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주심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낯짝이 있지! 이런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지난번에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였는데 또 똑같은 죄를 짓고서 어떻게 또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가? 벼룩도 낯짝이 있지! 좀 더 자숙한 다음에 나오자!” 그게 교만이고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의, 자존심, 자기 체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도 무시하고 거절하려는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수치스러움이 없이 뻔뻔하게 나오는 것이 예배요 기도이며 강청입니다. 물론 회개함이 없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양심이

화인 맞은 불신앙이고 하나님께서 받거나 듣지도 않으십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강청의 기도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된 특권을 누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때로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 앞과 동료 신자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그가 당당하고 담대하고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돕고 격려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다니? 저래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하겠다는 것이야! 뻔뻔한 사람 같은 이라고!” 이러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뢰하는 사람인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용서와 담력과 강청의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도 안하고 아예 다시 나아오지 못하도록 쫓아낸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도록 격려하며 담력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4:16에 보면 강청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도 담대히 나아간다고(come boldly)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신과 당당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당당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며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눅 18:11-12)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필요가 없이 자기의 의와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뻔뻔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나 정도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8:11에서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라는 말씀에서 “따로 기도했다는 말은 따로 떨어져서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was praying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잘남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이 드린 기도였는데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며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눅 18:13)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는 달리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습니다.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고 하였는데 여기 “보다”는 영어로 “rather than”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리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예수님의 의로 옷입혀 의롭다고 칭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은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에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청의 기도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구하는 자들이 취하는 태도와 기도인 것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마치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9-10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기도자의 열심과 지성과 끈질긴 간구에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구할 때 주시고, 찾을 때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릴 때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강청하는 네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뜻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1-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면서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아비와 아들을 들어 하나님과 그의 자녀인 우리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도적질하고 살인한 악한 아비라고 할지라도 자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거나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고 하십니다.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몸보신하라고 뱀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물어죽일 수 있는 뱀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이 움츠려 알처럼 보인다고 전갈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아비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에게 만큼은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악한 아비라도 갖는 마음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해를 끼치고 악한 것을 주실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악한 아비와 선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조입니다. 둘 다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한다는 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악한 아비가 자기 아들에게만 큼은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에게 좋

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물며”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를 아시겠지요? 이 엄청난 비교와 사실을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법인데 하물며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같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당당히, 수치스러움이 아닌 뻔뻔함과 담대함과 담력을 가지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달라고 왜 기도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드리는 강청하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악한 아버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기 아들에게 주는 법인데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무슨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의 천부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성령님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천부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까? 무슨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그를 믿는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증하시고 인도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가장 좋으신 분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니 우리가 그 분을 믿고 의뢰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당당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을 떠나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좋은 성령님을 멀리하고 그분을 슬프게 만들고 소멸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겠습니까? 내 자존심과 체면과 떳떳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자신을 자랑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겠습니까? 아닌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없이 살려고 하는 자기 의와 열심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좋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8:26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잘못 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좋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성령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2:10-11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좋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천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당당히 나아가며 강청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단 성령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32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밤낮 하나님께 선물을 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얼마나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썩어질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분을 믿지 않고 구하지 않고 헛된 것을 구하니까 그 좋은 은사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 세 덩이만 구하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그 세 떡 덩이를 먹이기 위해 수치스러움과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가 구해온 좋은 친구가 우리 곁에 계시고, 강청하여 우리를 먹이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감사하며 기도를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특권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언제나 마음껏 달려 나아가는 당당함과 담력과 뻔뻔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강청하는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굶주리며 피곤해 지쳐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영원히 살고 배고프지 않는 참된 양식을 먹이우고 채워주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강청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도 예수의 이름과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과 은혜를 받으며 더욱 강청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일하는 믿음 (Faith To Work Together)

◎ 본문: 느헤미야(Nehemiah) 2:17-20 (구약 성경 729면)

- 17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하고
- 18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 19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 20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매일 이런저런 소식에 접하게 됩니다. 매스컴이 발달되어서 지구촌 곳곳에 일어난 소식들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 들리는 소식 가운데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정반대로 놀라기도 하고 마음이 아파 때로는 울기도 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며 우십니까?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태어난 이민 2세이지만 부모님의 고향인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소식을 자기 형제를 통해 듣고 통곡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훼파되고 성문들이 불에 타고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며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1:4)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그런 반응을 보일 직접적인 연관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나라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에 관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출세하여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자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에 마음 아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반응이 아닙니까?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상은 거기에 관심을 쏟는다든지 마음 아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도 하고 열심을 부리며 함께 동참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민 2세로서, 그리고 속국인으로서 출세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아픔을 듣고 자기의 아픔으로 느끼며 통곡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은 그가 부모님이든 1세로부터 사전에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이방 나라의 종노릇을 하는 형편에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 믿음의 선조들이 약속받았고 또 유업으로 누리며 살았던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섬기는 날이 곧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가치관과 소망을 심어준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방 나라 왕의 술관원이지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신앙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인도 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읍을 건설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이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며 슬퍼한 것입니다. 신앙 교육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식과 가치관이 없고서는 있을 수 없는 반응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래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고국인 한국을 사랑하는 자녀와 2세들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단지 미국 시민, 혹은 한국 시민이라는 의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시민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나라와 사람들이 줄 수 없고,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고 분명한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의 2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놀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사랑을 쏟을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니며, 바른 목자, 바른 교회를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주님의 양떼들, 마땅히 연륜으로 보나, 받은 은혜로 보나 건강하고 재산을 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나뉘고 그래서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비생산적인 일들이 계속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까? 느헤미야의 아픔과 눈물과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물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눅 13:34)고 하면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내다보며 우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우십니까? 내 형제 자매들이 자꾸만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무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려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프십니까? 주님은 열심히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모으시려고 간섭하시지만 자꾸만 주님의 품 안에서 떠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울며 기도하는 우리들이십니까? 주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함께 울며 함께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모두 함께 힘을 내는 자입니까? 나만 편하자고 도망치는 우리들이십니까? 아니면 19절에 언급된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처럼, 그리고 드고아의 귀족들처럼 다시 쌓으려고 하는 자들을 반대하고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바쁜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는 느헤미야처럼 나의 아픔과 나의 죄악과 나의 책임으로 여기는 우리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똑같은 수치를 받지 말자고 우리라는 공동체와 지체 의식을 가지고 무너진 것을 다시 쌓으며 일어나 건축하며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고 분연히 일어나는 우리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무너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너진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였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루었는지 살펴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1. 모두가 함께 일하는 믿음으로 재건하였습니다

첫째로 기억하실 원리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혼자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두가 함께 협동하여 일함으로 재건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3장은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적어도 15개 이상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75명의 각 대표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가들, 1세만이 아니라,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인 2세들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어떤 한 지역 사람들만이 아니라, 성벽 주변의 모든 마을과 사람들이 함께 협동하여 이루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느헤미야가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역사하셨으니 느헤미야 혼자 해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할까봐 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의 이름을 빼고 있습니다. 16절에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만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뒷짐 지고 보고만 있었고 명령만 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나 혼자 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합동하고 합심하여 이룬 일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때때로 교회 부흥은 목사님께 달려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네, 지도자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도자가 훌륭해도 교회 부흥과 개혁 운동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례도 부지기수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지도자 혼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느헤미야나, 목사님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일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리들 모두도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합동하여 일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른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입니까? 혼자서는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지 못하고 협력하거나 합심할 줄 모른다면 그 믿음을 성숙하고 바른 믿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그의 지도하에 함께 동참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함께 동참하며 일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기도만 하고 누군가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주겠지 바라기만 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일하는 믿음, 함께 동참하여 실제로 뛰는 믿음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느헤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달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 함께 일하는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바로 재건하고 세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비단 교회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일하게 될 때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지 남편 혼자, 혹은 아내 혼자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아내가 함께 도와주고, 또 자녀들이 함께 도와 18절 말씀대로,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이런 마음과 함께 일하는 행동이 있어야 건강하게 가정을 재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먼저 의견을 내었다고 자존심 상하는 남편이 되지 말고, 아내든 자녀든 누가 좋은 의견을 내었다면 서로 존중하여 함께 일하는 분위기와 행동이 가정을 살리는 일입니다. 만약 누가 무슨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옆에서 힘이나 빼고 부정적인 말만 하면 무너진 것을 재건하기는커녕 가정을 더욱 풍지박살 내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식구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함께 일하는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결단코 “나 한 사람쯤이야 빠져도 되겠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니까 일은 되겠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빠진 사람은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닙니까?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나 혼자만 은혜 받지 못하고 항상 불평과 불만만 쏟아내는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19절에 소개된 대로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동참하여 일하였지만 그들 가운데 참여하지 않음으로 아무런 기업도 권리도 명목도 받지 못하였던 세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산발랏과 도비야와 계셈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모두가 다 함께 이 선한 일에 참여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는 그 간섭과 역사와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이웃들에게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모두가 질서 있게 서로 조화를 이루며 각기 받은 은사대로 봉사함으로 재건하였습니다

여러분, 3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보면 32절로 구성된 3장 전체에서 무여 22절에 걸쳐서 29번이나 “그 다음은 누가 (건축, 혹은 중수)하였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왕창 달려들어서 저마다 제 멋대로 쌓은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자기 차례가 되면 자기 몫을 감당하는 질서와 서로 조화 가운데 재건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질서와 조화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감성적이어서 일시적인 감동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그냥 그 날부로 그만 두는 것입니다. 운동하면서 “은혜롭게 합시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룰(rule)도 없고 규칙도 없이 대충 합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도 자기에게 승산이 있을 때에나 통하고 수긍하는 것이지 자기가 지고 있는데 은혜를 찾으며 수긍합니까? 그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동안 법이니 규칙이니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먼저 지키지 않는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질서나 법에 두드러기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질서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가 제대로 우리 모두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이끌어주며 행동반경을 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원리대로 해야 거기에 화평과 조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만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반드시 언젠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33절). 나 좋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거기에는 늘 싸움과 다툼과 무질서만 남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달란트를 함께 질서 가운데 조화 있게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잘 났다고 자기 혼자 다 하겠다고 다른 지체들을 무시하면 그 몸이 건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긴요하고 필요한 존재로 부르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내가 필요하듯 다른 지체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함께 조화를 이루며 전체 몸을 세우는 한 가지의 목적, 그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모든 것을 적당(적절)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영어로 코스모스(Cosmos)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우주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또한 질서나 조화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화장을 영어로는 cosmetics라고 합니다. 역시 cosmos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화장이란 하나님이 지어주신 질서를 따라 얼굴을 잘 정리해주는 작업이었습니다. 얼굴을 완전

히 바꾸어 놓는 make-up은 화장이 아니라 변장입니다. 우주만물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질서 있게 창조되고 질서 있게 운행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주는 무질서와 공포의 우주가 될 뿐입니다.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 있게 우주를 창조하셨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옛세 동안 그는 우주를 창조하시며 첫 날에 빛을,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셋째 날에 땅을,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이렇게 짝을 지어 생각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와 아름다운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빛을 만드신 후에 그 빛을 사용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를 먼저 만드신 다음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를 헤엄칠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먼저 만드신 다음 땅의 주인공이 될 짐승들과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질서있고 조화롭게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끝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그 질서대로 이루질 때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정반대입니다. 마귀란 말은 희랍어로 diabolos라고 하는데 dia(사이에)와 bolos(던진다)는 합성어입니다. 사이에 끼어 들어가 꺾판을 친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이미지가 뭐냐면 줄을 서있는데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끼어 들어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말에는 “참소자”라고 번역했습니다만 본래가 “질서의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서를 깨뜨릴 때 우리는 마귀를 따르는 마귀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미국은 낮지만 우리나라가 질서를 잘 지키지 못하는 부끄러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성질이 급해서인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차례대로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를 잘 합니다. 그러나 줄 서지 않고 끼어들 때, 남의 부부사이에 들어가 부부관계를 파괴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닌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서를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마귀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각기 받은 은사대로 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양문을 짓는 일에는 제사장들이 그 일을 담당 하였습니다. 3장 1절에 “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라고 하였습니다.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드릴 양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러니 누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제 격입니까?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도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은사대로 봉사해야 본인도 은혜를 받고 그런 봉사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가령, 장로님이 목사님 뭇을 하겠다고 나서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분은 차라리 목사님이 되시는 것이 낫습니다. 집사님이 장로님 하실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주신 직분과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피차 존중하고 그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높고 낮음을 저울질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님이 장로님보다 높고, 장로님은 집사님보다 높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신 사역과

역할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양문이 더 가치 있는 일이고, 분문(풍문)은 무가치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모두가 양문만 지으려고 하지 분문은 지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보면 하나도 표시가 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죽어라고 일을 해도 알아주지 않고 도리어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분문을 짓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온 성안은 쓰레기로 뒤범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시 안 나고 궂은일이라고 멀리하는 우리들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몫을 감당할 때 이 교회는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고, 성안의 모든 사람이 평안할 수 있음을 알아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십시오.

3. 1세대들이 아니라 2세대도 함께 참여하여 재건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배울 원리는 1세대들이 아니라 2세대도 함께 참여하여 성벽을 재건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을 보면 누구의 아들, 혹은 딸들이 어느 부분을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많이 등장합니다.

가령, 12절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레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라고 하였습니다. 29-30절을 보면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람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므술람이 자기 침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무개의 아들들과 딸들이 중수하였다고 한 것을 보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1세대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2세대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특이한 일이고 동시에 제대로 될 조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까지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며 하나님을 섬겼지만 너는 좀 더 편안히 믿기를 바란다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도 수고도 희생도 하지 않는 자녀들로 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보니 그런 자녀들이 크면 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커녕 하나님도 믿지 않는 지경에까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당시의 세대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의 자기 자녀들이 그 성벽을 쌓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성벽을 쌓는 일보다 자녀들을 설득하여 성벽 쌓는 일에 참여케 하는 일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토록 하였으니 일단 자녀 교육은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집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집들이 그렇게 하였으니 2세대들이 얼마나 힘을 얻어 이 일에 전력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라건대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교회는 비전이 있고, 우리의 가정은 신앙이 대대로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저들에게도 참

된 유익이 되는지를 분명히 말하며 그것의 복됨을 우리가 친히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을 저들에게도 심어주어서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 꿈을 저들이 이룰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나 혼자, 내 당대에 다 이루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대대로 그 꿈과 비전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말씀이 무너진 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다시 재건하며 일으키는 일에 큰 도움과 행동 지침이 되어서 그대로 실천함으로, 함께 일하는 믿음으로 마침내 수일 내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재건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20)

10/18/2009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Come to Me! I Will Give You Rest!)

◎ 본문: 마태복음(Matthews) 11:28-30 (신약 성경 17면)

-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NIV)
28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29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30 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출석하신 여러분, 얼마나 이 민 생활에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임을 부인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살이는 모세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년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시 90:10)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다 이 모세의 고백에 공감하시지요? 그러면 우리 젊은 청년들은 어떠합니까?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립니까? 저도 나이 20대, 한창 젊었을 때에는 이 말씀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고백하는 말씀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생 50 고개를 넘고 보니 “과연 그렇구나”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또 각기 사회와 직장에서 일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살며, 또 때로는 그것들에 짓눌려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미국 땅에 오면 뭔가 시름을 잊고 모든 짐들이 술술 풀리겠지 기대하였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들은 날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런 수고와 무거운 짐들로부터 해방되고자 여러모로 시도 해왔습니다. 이런 수고를 하지 않고, 이런 무거운 짐들을 지지 않고자 결혼도 안 하겠다 그리고, 자식도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가정을 버리거나, 인간관계와 속세를 떠나 산중에 파묻혀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고와 눈물과 한숨과 짐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겠습니까? 책임감과 의무로부터의 도피는 될지언정 그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참 쉼과 안식을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진 자로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주님께서 혹시나 나의 짐들을 털어 주시고 문제들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나오셨습니까?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해 들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언뜻 이 말씀만을 읽으면 “이제야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수고와 고통과 무거운 짐들을 다 도맡아 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모든 짐들을 대신 져주마.” 이런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그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으나,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다 털어 준다거나 완전히 그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지며, 그런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평정을 잃지 않고 어떻게 참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입증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혹 떼려 갔다가 혹 하나 더 붙인 꼴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짐을 털러 갔다가 내 짐은 내려주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그랬으니 한 가지 더 짐을 지게 된 것이 아닙니까? 결국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들을 털어 준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그 짐을 질 것인지 그 자세와 방법을 가르쳐 줄 터이니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멩에를 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배낭을 어떻게 메느냐에 따라 같은 무게를 실었지만 그것의 효과가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일 무거운 것을 맨 밑에 놓게 되면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듯 허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여간 힘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급적 위에 실어서 허리로 지탱을 해야 등산하기 쉬운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 생각하면 짐을 주님께 하나 둘씩 더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에게 큰 혼동이 생깁니다. 주일날 하루라도 좀 평안함을 누리고 쉬를 얻고자 교회에 나왔는데 더 고되고, 다른 지체들의 아픔까지 또 다른 짐들을 대신 짊어지며,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 수고를 해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문제를 바로 정립하지 않고 있으면 “이럴 바에야 뭐하러 교회에 나오노? 괜히 이런 저런 일로 상처받느니 차라리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을 얼마나 신자들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꼴 저 꼴 안 보려고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후닥닥 달아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일은 그런 의미의 쉬가 아닙니다. 짐을 털고, 아무런 수고도 안 하고, 편안히 열중 쉬었, 뒤로 취침, 이것이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참 쉬와 평안을 얻고, 우리의 그 어떤 수고와 짓누르는 인생의 짐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참 쉬와 안식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지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모든 인간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꼭 죄의 짐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신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모두가 삶에 지쳐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피땀 흘려 재산도 모으고 보험도 들고 하지마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역동력을 더해주며 인생을 살맛나게 해주고 있습니까? 제 아무리 건강이 좋다고 호언장담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 문제이지 우리는 꽃이 시들듯이 우리의 육체만이 쇠약해질 뿐만이 아니라, 의욕도 상실되고, 급기야는 세월에 자신을 내맡기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며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쾌락을 추구하는 시기도 한정된 것을 알고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팝송이 “Play, play, younger play!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가 아닙니까? 그러나 자신의 지친 삶을 내보이지 않고 감추려고 이런 저런 모습으로 위장할 뿐이지, 우리들의 모든 일과들은 수고와 짐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일터로 갔다가 저녁 늦게 녹초가 되어 돌아와 비디오 보다가 잠이 드는 일과들을 보며 우리 중 어느 누가 생동력 있는 보람찬 삶을 살고 있노라고 자랑스럽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겠습니까? 기진맥진 지쳐있는 삶, 마

지못해 사는 삶,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삶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저런 책임과 의무의 짐들을 지며 중압감에 견디지 못하여 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항상 두통 약을 수중에 넣고 언제 오를지 모르는 혈압과 고민과 고통을 잠재워야 할 정도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고용주로서, 고용인으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것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여 오는 죄책감과 실망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얼마나 많은 유전과 전통과 규칙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그것들의 노예가 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3:4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웠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더욱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자들은 아닐는지요? 본인들은 손 하나 까닥하지 않으면서 봉사와 헌신을 강요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온 인류의 상태와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운 규례의 명예와 짐들로 짓눌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떼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거나 초청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Come to Me, all of you!)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과 부르심을 받지 않아도 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수고와 짐들이 없습니까? 일류 학교 졸업하고 박사 학위 몇 개 가지고 있고, 대우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해서 수고와 짐들이 없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가 될 것 없이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며,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수고와 염려와 한숨과 문제와 무거운 여러 가지 짐들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그것들을 감추지 마십시오! 나에게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주님의 초청과 명령을 받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결단코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어떤 수고나 무거운 짐들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비로소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는 주님의 지적을 받아드리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2.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쉬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진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오직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누구나, 그 무엇에게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확실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결코 내게 쉬을 줄 수 없다고 분명히 못박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진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예수님밖에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실 분이 없으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Come to Me! I will give you rest.)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 쉬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쉬을 누리는 것은 수고와 짐들 자체에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의 열쇠는 바로 예수님이 쥐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쉬을 주시면 우리는 참 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떠날 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참 쉬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하셨습니다. 파스칼도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결코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공백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참 쉬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되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해내시며, 그 어떤 죄도 용서해주시며, 사단과 귀신들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과 쉬을 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온갖 불치의 병들로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며 낮고자 하는 소망도 잃어버린채 절망적인 삶을 사는 자들을 고쳐주시며 치유해주셨습니다. 멸시당하고 소외된 죄인들과 세리들을 먼저 찾아가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구원해주시고 친히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돌로 쳐죽여 마땅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구해주시며 죄를 용서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홀로 물을 길러 나온 여자에게 영원히 갈하지 않는 영생을 주셨고 그 동안의 수고와 수치와 무거운 짐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실의에 빠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주님의 첫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얽매이는 것들과 수고와 수치와 죄와 무거운 짐들로부터 사람들에게 참 쉬와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 그대로, 그에게 오는 자들에게, 아니 그가 찾아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것이 아닌 참된 쉬와 안식과 평안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누구나, 그 무엇에게로 나아가갈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참 안식과 쉬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만이 주시는 참된 쉬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의 멍에는 무엇이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배울 바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29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쉬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얻는 방법을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멍에는 밭을 가는 소의 목에 얹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는 힘이 좋아서인지 소 하나에 하나의 멍에를 얹혀 놓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소가 힘이 부치는지 하나의 멍에를 두 마리의 소 목에 얹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 소들처럼 나와 함께 멍에를 지자, 내가 너와 함께 짐으로 네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소가 제 멋대로 하고자 한다면 그 멍에는 쉬운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함께 밭을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와 함께 멍에를 메었으니 이제 내가 가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편할 것이다. 쉬울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겠다고 고집부리며 제 갈 길로 가지 말고 나와 함께 가면, 나를 따라오면, 나와 박자를 맞추어 나아가면 쉽게 나아갈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두 사람이 한 다리씩 끈으로 묶어 목표물을 빨리 돌아오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 함께 호흡과 박자를 맞추어 나아가면 쉽고 빨리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급해 서로 제 각기 빨리 달릴 생각만 하고 움직이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넘어지기가 일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의탁하며 그분께 맞추어, 그분이 가자는 대로 가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무거운 인생살이라 할지라도 쉽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박자와 인도와 함께 하심에 나를 맡겨 그를 따라가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인생살이와 신앙생활을 평안히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7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 다 맡겨 버리고 나는 더 이상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두고나 보겠다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께 의뢰하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좌지우지 하고, 내가 나 혼자,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인간 힘을 쓰는 주인 노릇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해결사나 도우미 정도로 대접하는 일을 그만 두고, 그분께 맡겨 그분의 인도와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가겠다,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아니 그분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겨 따라가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어서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배우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짐의 경중, 무겁고 가벼움이나 난이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지친 인생이라도, 그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가볍고 쉽게 짊어질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것을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말씀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그 비결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쉽고 가볍게 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질려면 그것을 질만한 힘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몸무게 70kg의 사람이 15kg의 짚을 들기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400kg을 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선수처럼 당장 역도 선수로 뽑히고 일약 유명한 사람이 되고, 돈방석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로 지친 인생에게 참 쉬움을 주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줄 방법은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짐을 질 수 있는 거대한 힘을 준다거나, 그 모든 것을 담당할 만한 건강과 지혜와 물질을 주신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 이것이 제가 지고 있는 모든 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다 맡기오니 다 도맡아 주옵소서.” 그러고서 달아나는 우리가 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게 풀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와 짐을 대신 짊어주는 우리의 하인이나 종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시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명을 메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실 때 가지신 태도와 자세와 마음, 곧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배워 가질 때 우리의 짊어진 짐이 제아무리 무거울지라도 가볍고 쉬운 짐이 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온유와 겸손이 등장하는지 보십시오. 먼저 온유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삶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을 뜻하지 않습니다. 온유란 나를 내세우는 그 어떠한 것도 다 포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모세처럼(민 12;13) 나의 교만을 버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의 것인 양 자랑하는 태도를 버리고, 나의 체면과 명예까지도 주를 위해 포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분이 보여주신 온유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영광도 다 포기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수모와 고통과 아픔을 다 참고 견디셨습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을 내세우려는 것이라면 그것도 포기하셨습니다. 돌덩이를 명하여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시고, 나는 내 능력을 행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굶으라고 하시면 굶는 것이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 자로서 마땅히 해야될 일이라도 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마 27:40),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42절)는 군중들의 조롱과 야유에 그 즉시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를 욕하는 자들을 능지처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참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같은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라도 그것을 가볍고 쉽게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쉼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이란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겸양, 너그러운 마음씨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마땅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바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뱃속 깊이 인정하며, 나를 내세우려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 그것은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를 뜻합니다.

이와 같은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예수님께 배울 때,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사시고, 가르치시고, 순종하셨던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과 삶을 우리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감당할뿐만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의 참 쉼과 평안을 누리며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신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수고와 짐들을 지고 계십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수고와 짐들이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수고와 짐들....경제적 어려움, 병든 몸, 자녀 문제, 가정적인 여러 아픔과 상처들, 실패와 불명예스러움, 실추된 자존심 등등....이런 수고와 짐들이 떨어졌으면 하는 소원만 자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케 하실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 나온 사람마다 사업이 잘 되고, 세상적인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면 교회는 증권 시장이나 해결사에 불과할 것이고, 교회에 갔다오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함을 누리다면 교회는 우리의 피로를 풀어주는 유흥장, 사우나탕이나 안마 시술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또 신앙이 깊다는 것은 우리의 짐이 떨어져서 가볍고 쉽게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짐이 더욱 무겁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몫까지 대신 짊어져야 하는 처지에 놓일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 온유와 겸손함을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는 복음의 짐을 하나 둘씩 더 짊어져야 합니다. 다른 형제들의 아픔을 대신 져야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을 포기하며,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하여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묵묵히 온유와 겸손함으로 봉사하며 헌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 1:24)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짐, 예수님이 지라고 하신 그의 멍에를 져야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라고 하신 멍에는 지지 않고, 세상 헛된 짐들, 썩어지고 하나도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지느라 등골이 휘고 허리도 제대로 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참 쉼과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마땅한 삶이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며 몸된 교회와 주님의 지체들을 위하여 수고와 짐을 대신 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욱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치 마시고, 끝까지 진실되게 온유와 겸손함으로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느끼는 보람과 평안과 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온전한 참 평안과 안식을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무개에게로 달려가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요동하지 말고, 혹 요행이나 운을 바라지 말고, 이 산 저 산, 이 곳 저 곳으로 헤매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참 쉼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27에서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가 주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말은 참된 안식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안식한다”는 것은 참 쉼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일을 안 하고 쉼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참된 안식이 오직 예수님께 달려 있고, 그가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로 알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에 안식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일을 지키며 쉼으로써 영원하고 온전한 참된 안식처인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연휴라고 놀러가기보다는 먼저 주일을 지키며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고, 이미 참 쉼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곳 저곳 놀러가지 않아도, 모든 스트레스는 이미 주님 안에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쉼과 안식을 얻고자 이곳 저곳을 찾습니다. 시간도 낭비하고 돈도 허비합니다. 그러나 그 때뿐이지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 외에는 참 쉼과 안식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참 쉼과 안식을 가졌기 때문에 여유있게 즐기면서 여가를 보내며 여행도 가는 것입니다. 이 다른 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모든 수고와 짐들은 결코 무가치한 것들이 아니고, 결코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것들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를 짓눌리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달게 감당하는 새로운 힘을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온유와 겸손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판에 새기며, 우리의 잘못된 기대감은 버리고, 주님의 명령과 방법대로 배우고 따르므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며 복된 생을 영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품으신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며,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나라와 형제들을 위하여 대신 짐을 지는 일에 정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참 보람과 가치와 삶의 의미를 느끼며 평안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라!
(Call upon God while He is near!)

◎ 본문: 이사야(Isaiah) 55:6-11 (구약 성경 1035편)

- 6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 7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 8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 9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10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 11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NASB)

- 6 Seek the LORD while He may be found; Call upon Him while He is near.
- 7 Let the wicked forsake his way And the unrighteous man his thoughts; And let him return to the LORD, And He will have compassion on him, And to our God, For He will abundantly pardon.
- 8 "For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Nor are your ways My ways," declares the LORD.
- 9 "For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So are My ways higher than your ways And My thoughts than your thoughts.
- 10 "For as the rain and the snow come down from heaven, And do not return there without watering the earth And making it bear and sprout, And furnishing seed to the sower and bread to the eater;
- 11 So will My word be which goes forth from My mouth; It will not return to Me empty, Without accomplishing what I desire, And without succeeding in the matter for which I sent it.

1. 하나님은 당신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되십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입니까? 아니면,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이십니까?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낮고 낮은 사람들의 사정을 알려고 하신다든지, 돌보시거나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하찮은 일로, 나 같은 소인에게 무슨 관심이나 있으실까?” 어쩌다가 나에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그분은 고귀하신 분이신데”라고 하면서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기를 쓰고 그분 앞에 달려 나아가도 그분은 “네가 누구냐?”라고 모른 체하시거나 대꾸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숨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실 때에는 여러분이 숨는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는 기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신 죽은 신도 아니고, 가까이 하기에는 먼 고귀하고 거룩하신 분만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부르면 일부러 숨으시는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하거나 그것을 합리화하려는 우리들임을 아시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시는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6-7절)고 반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만나주시기 때문에 찾으라는 것이고,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그에게 가까이 할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그분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죄도 기꺼이 용서하셔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확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사실입니다.

2.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6절에서 말하는 “때”는 어느 때를 가리키겠습니까? 어느 때가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언제가 여호와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때인 것입니까? 우리가 항상, 어느 때이고 여호와를 만나기를 힘써야 되며,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항상 가까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이겠습니까?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생각해봅시다. 그것이 어느 때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감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죄송하고 추악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멀리만 계시다고 느껴질 때가 아니었습니까?

1) 우리가 악인의 길을 좇고 불의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의 길을 좇고 있을 때, 우리가 불의한 가운데에서 심지어 하나님을 저버리며 생각하고 생활하는 그 때라 할지라도,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가증하고 뻔뻔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벼락을 맞고, 천벌을 받으려고?” 이런 처지와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야말로 더욱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부르짖어야 할 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간과 서로 비교한다는 것이 심히 황송합니다만, 우리 인간은 누가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죄를 짓고 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즉시 그를 미워하고 시퍼런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어떻게든지 험뜯고 쓰러뜨리기 위해 혼신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의 품안에 안으시며, 용서해주시고, 구원해주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픔과 절망과 낙담과 실수와 죄악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다 그런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고통을 당할 때이야말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때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 우리가 헛된 세상 것을 구하고 있을 때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헛된 세상 것들을 구하고 있을 때, 참된 양식이 아니고 우리를 참으로 배부르며 목마르게 하지 않는 것들에 빠져있을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영히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앞, 이사야 55:2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일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열심히 피땀 흘려 일을 하였지만 헛된 수고가 되었고, 먹어도 결코 배부르지 않고, 먹어도 심령의 기쁨이나 만족함이 없는 우리라고 한다면 이제 그같은 삶을 그만 두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을 가까이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영생과 결코 배고프거나 갈하지 않는 참된 양식을 받아 누리는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이 다섯씩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제 남편이 아닌 사마리아 수가 성 여인, 그녀는 구약 성경도 잘 알고 있었고,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 메시야가 장차 오실 것도 알고 있었던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세상 것들에 빠져 결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 삶을 산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총과 비난을 피해 다들 낮잠을 즐기는 시각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 먼저 찾아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3-14)

고 말씀하시며 그녀에게 새 생명과 삶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헛된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중단하고 나도 살고 이웃들도 살리는 가치있는 삶을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헛된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보람있고 가치있는 수고, 영원히 배부르며 같하지 않는 영생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 하나님께서 멀리만 계신다고 느껴지는 환난의 때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멀리만 계신다고 느껴지는 환난의 때야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부르짖을 때입니다. 시편 13:1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때, 그리고 그 어려움과 환난이 계속 지속될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고 나를 모른 채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기회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기도하며 절규하였던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고 고백하며 찬양드리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박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 분이 누구신가를 다시 생각하고 믿고 나아간 결과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신 것임을 알고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 자체만을 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의뢰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전과 다른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어려움과 곤경에 처하게 되면 그런 때야말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호적기로 알고 배역의 길을 걷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타이밍을 맞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라고 말씀하시고, 그분께로 나아오기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중에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나서 예수 믿죠.” “제가 나이가 들어 올 데 갈 데 없고 의지할 것이 없으면 그때에나 예수 믿죠.” “제 가정이 정리가 되고, 사업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면 그때 마음껏 주님을 위해 봉사하지요”라고 그 때를 미룹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를 장담할 수 있고, 그때가 우리를 기다려 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시대가 우리 손안에,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지금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은 항상 오늘과 지금의 싸움인 것입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이미 불신앙과 패배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에서 멀리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고, 지금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

는 우리의 처지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8절)고 하십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라”(13절)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이고 오늘입니다. 그것을 미루고 늦추면 우리의 마음은 강박하게 되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서로 피차 권면하여 하나님께 함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이죠?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듣는 등 마는 등,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줘도 괜찮다는 식으로 부르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강청의 부르짖음, 간절하고 애탄 부르짖음, 눈물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가 멀어서 부르짖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별로 여러분에게 관심이 갖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부르짖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어린 간구, 마음의 소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구나 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심하며 구한다든지, 반신반의 하는 식의 부르짖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주시고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부르짖는 부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우리의 악한 생각과 길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악한 생각과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8-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생각과 불의의 길 가운

데 있을 때에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만 그렇다고 우리의 악한 생각과 불의 길을 그대로 눈감아 주시며 용납하시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버려야 되고, 더 선하고 유익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위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로 우리의 생각과 길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상태와 처지와 죄악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눈감아 주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악하고 불의하신 분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주께 나아가고, 왜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가? 그 이유가 7절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를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에서 돌이키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악한 생각과 불의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뒷짐 지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용서해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길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용서와 구원이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어온 길을 끊고, 우리의 악한 생각을 인정하며, 회개하며, 끊어 버리지 않고서는 주님의 사죄와 구원과 용납하시는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하늘을 찌르고 천인공노할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중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는 우리를 용서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집나간 탕자를 언제나 오나 문밖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습니다(눅 15:11-32). 거리가 아직 멀지만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벌써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반가이 맞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으로 뉘우치며 주님께로 나아가고 그의 품에 안기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21절). 그래서 아들 됨을 마다하고 아버지의 종노릇을 고집한다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허락하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탕자가 “나는 죽일 놈이야. 죽어 마땅해. 어떻게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 저지 꼬락서니로 아버지를 뵈 수가 있어?”라고 하며 자기 자존심과 지나친 겸손을 내세운다면 그것이 잘한 일입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남을 드러내자는 과시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떳떳함과 체면과 명예를 주장하는 자기 관철이나 변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죄인들인 것입니다(렘 17:9). 그 죄인들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떳떳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떳떳하려는 것은 교만이고 죄입니다. 떳떳하지 못하고 그분 앞에 감히 고개를 들을 수 없는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

아갈 수 있게 산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담대히, 당당하게, 뻔뻔하게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직도 제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나 자신도 보기에 한심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사오니,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사로잡아 굴복케 하시고, 나의 길을 접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제가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저를 포기치 마시고 끝까지 당신의 뜻대로, 쥐어 패서라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뜻을 내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우리를 찾고 계시고,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4.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무엇입니까?

1)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해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사야 59:1-2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 받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중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동안 막힌 담, 기도 응답의 장애물들을 제거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죄를 용서해주시고 떨어진 관계를 회복해주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2) 우리의 생각과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길로 인도하십니다

둘째로, 우리의 생각과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길로 인도하십니다. 본문 8-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

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생애는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고 의뢰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길과 목적대로 이루시고 열매를 맺게 하고야 마시는 집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의 생각과 길과 얼마나 다르고 높고 깊은가를 모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우성을 치고 원망도 하고 삿대질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생각과 길대로 되었다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셨다면 이 자리에 제대로 남아 있을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일찌감치 보따리를 싸고 삶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과 게으름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며, 오늘도 “나에게로 나아오라! 네 생각과 길을 버리고, 나를 찾고 부르라! 내가 용서해주마! 내가 구원해주마! 내가 네가 감히 상상하거나 기대치 못한 참 유익과 선한 형통의 길로 인도하며,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는 길로 이루어주마”라고 초청하시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며 달려가며 그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의 생각과 계획하는 길대로 이루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등지지 마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의 생각이 나보다 견줄 수 없도록 높고 깊은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의 유익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의 유익과 선을 위하여(롬 8:28) 지금도 일하시고, 그분의 생각을 우리를 통해 펼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집념과 열심에 항복하고 즐겨 따라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며 형통케 하십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십니다. 본문 10-11절을 보십시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뜻과 길과 간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를 참된 유익과 형통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고야 마신다고 확약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빈말로 우리들에게 나에게로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결단코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길에 방해를 받아서 헛되이 되돌아오는 일이 없다고 약속해주셨습니다.

2009년도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날들과 달들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되돌아

볼 때 우리 중 어느 누가 나는 원 없이 주님의 뜻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당당히 주님 앞에 나설 성도가 누구이겠습니까? 겸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서 되돌아 보면 후회와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불신과 불순종의 날들이 더 많아서 죄송하기가 그 지없고, 새 날, 새 해를 맞이하기가 부끄럽고 염치가 없는 우리의 형편과 심정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희 의로운 자들만 내게로 나아 오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악인들아! 너희 불의한 자들아! 너희 생각과 고집대로 살다가 나의 뜻과 길에서 떨어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초청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치 않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인정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악한 행실과 과거와 생각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새로워 질 수 없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결심과 각오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주님! 내 생각대로 한번, 아니 올해도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안 되는군요! 주님의 생각이 더 높고 깊고 진정 나를 위하시고 살리시는 것임을 이제야 인정하고 알겠나이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앞세워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뜻과 목적이 하나도 성취됨이 없이 거저 되돌아가는 일이 없다고 했으니 그 뜻과 목적이 내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목적에 쓰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일, 아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 계획과 머리보다도 높으시고 깊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가까이 오기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그리고 그 때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입니다. 나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주님께 돌아가며 내가 주님의 용서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풍성한 삶과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우리의 인생과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Know that I am God!)

◎ 본문: 시편(Psalms) 46편 (구약 성경 834편)

- 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 2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 3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 4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 5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매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 6 이방이 환화하며 왕국이 동(動)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시매 땅이 녹았도다
- 7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 8 와서 여호와와 행적을 불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 9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 10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 11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 교회와 하나님의 능력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죽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거듭난 생명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걸작품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우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교회와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외시킨다면 그 교회와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의 가장 불행한 현실은 점차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간섭이 없이도 교회를 그것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믿고 행하는데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 오래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요즈음 교세(教勢)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 질문인즉 교인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질문인지 몰라서 제가 선뜻 대답하지 않으니 저를 상당히 불쌍한 눈초리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분이 문자를 써서 그렇게 제게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교인수가 교세(church power)인줄 아셨나 봅니다. 비단 개교회를 향해서만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교단에 대해 물어볼 때에도 교세가 어떠한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에 의하면 교세는 교회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수가 많으면 교세가 강한 것이고, 교회수가 적으면 교세가 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개교회를 대해서도 교인수가 적으면 교세가 미약한 것으로, 교인수가 많으면 교세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분은 교회 현금액을 가지고 교세 운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세는 교인수도 아니고, 교회수도 아니고, 현금액도 아닙니다. 교회의 권세와 능력과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은 교회의 머리로서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power)을 받고”(행 1:8)라는 약속을 따라 오신 성령님은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얼마나 주도적인 능력으로 간섭하시며 이루어 가시는지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하여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그 어떤 환난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능력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 자체로서의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바가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내 교회를 세우리니”(18절)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덧붙여 말씀하셨지요? 그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18절)고 약속해주셨습니다. “음부의 권

세”, 그것은 바로 사단의 권세요 사망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사단과 사망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들인 교회도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상 수많은 핍박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려 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그럴수록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부흥하고 왕성한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와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19절)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행하는 용서와 권징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쇠의 능력을 다 아시지요? 그런데 교회가 바로 그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교회가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크신 능력과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같은 교회의 권세와 존귀함과 소중함을 모르고 사람 수나 돈으로 교세 운운해서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뭘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어떤 능력을 가진 존귀한 존재인줄 모르고 헌신짝처럼 버리니까 세상에서 힘 있다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힘을 쓰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 권력자들이 교회까지 와서 권세를 행세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잘못입니다. 교회 스스로의 권위와 권세를 포기해서 비참하고 굴욕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당신의 능력으로 세운 교회가 그들의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을 의뢰하거나 주님의 능력을 바라지 않고 주님 없이도, 주님의 능력을 받지 않아도 주님의 일을 보란 듯이 하는 교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를 바라볼 때,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교회 하면 하나님의 능력, 성도인 우리를 보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교인수와, 현금액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알고 있고, 그것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넉넉히 갖춘 교회는 주님이 결코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 능력있게 일하고 있으니 주님이 외면당하고 주님이 일하실 필요가 없고, 간섭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대접도 해주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의 능력이요 우리 모두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함께 할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우리의 옛 성품과 생활을 끊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새로운 변혁의 삶이 가능하고, 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질병들도 치유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능력을 마다하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고, 주를 믿겠다는 것입니까? 늘 힘 빠지고 맥 빠진 인생을 살 뿐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처지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안하는가는 무엇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 시금석은 내가 내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복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기도하지도, 그분의 능력을 구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도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나 혼자서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내가 지금 열심을 내지 않아서 그렇지 한번 시동만 걸리면 주님도 잘 섬기고, 교회도 열심히 봉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지 돈만 생기면 듬뿍 듬뿍 바치고 다 바칠 자신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치고 열심 내고, 넘치도록 바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우리의 열심과 돈과 시간과 건강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돈과 시간이 있어야 할 수 있고, 그것이 없으면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믿음의 근거요 능력의 원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누구나 그 무엇이나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위 환경 때문에 그분을 믿지 못하고 그분을 위해 열심을 내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상 그분을 믿거나 의뢰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우리의 처지나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요동하거나 변치 않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시고 굳건한 반석이 되시고, 요동치 않을 수 있는 피난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요동치 않음입니다. 일편단심, 한결같음, 부화뇌동 하지 않는 신앙생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의 공통점입니다.

2. 하나님이 나의 힘(능력)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와 힘으로 삼는 사람은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참 피난처이시며 참 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시편 성도처럼 이런 간증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1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를 힘으로 삼는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간증하고 외치는 고백이 또 무엇입니까? 2-3절의 말씀이 아십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요동치 않는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남자다운 기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배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능과 과학만을 우리가 믿는다면 Y2K라 해서 우리가 불안에 떨고 요동하였던 것과 같은 우리가 되기 쉽습니다. 2000년이 시작될 때 얼마나 세계가 난리법석이었습니까?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심을 믿기 때문에 난리가 일어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즈음 신종 플루, 바이러스 공포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매일 뉴스마다 어디에서 몇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할 때 사람들마다 공포심을 느낍니다. 과거 페스트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나 영향을 끼치던 시절에 만들어진 유머가 있습니다. 페스트가 유럽의 한 마을에 도달하기 전 “내가 곧 갈 터이니 잘 대비를 하라”고 전령을 보내어 예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전령을 보내어 그 마을의 상태를 알아보았더니 아직 페스트는 도착도 안 했는데 벌써 수백 명이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페스트가 온다는 공포만으로도 이미 사람들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신종 플루나 바이러스보다도 그것에 대한 공포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과거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닥쳤을 때 당시 대통령에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오직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정작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우선 당장 보기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난리가 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처음에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내 평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난리가 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난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서가 아닙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며 바다 가운데 빠지는 일이 있고,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며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를 영원토록 뒤흔들어 놓는 것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과 피난처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컴퓨터 고장으로 망하든지, 인간들의 실수나 시도로 핵폭탄에 의해 불바다가 되든지, 아니면 혹성들끼리 충돌하여 멸망하든지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안전히 주님의 품안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오늘 날 교회의 안전함을 이렇게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4-5절을 보십시오. “한 시대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매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앞에서 언급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흉용하는 것과는 얼마나 대조적인 무대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은 하나님의 자비로 우시고 인자하신 섭리를 묘사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8:6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적하면서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이방 나라를 의뢰하니 하나님은 어떻게 징벌하시는지 아십니까? 7절에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앗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잔잔한 시내처럼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거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더 강한 것으로 망하게 하신다는 경고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진리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나타나셔서 간섭하시거나 해결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신을 구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 신들에 의해서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순간에 불타고 쉬 꺾지는 사랑을 전부로 알 때가 많고, 그것이 제일인 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 잔잔히 흐르는 시내처럼 계속 흐르는 주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음미하고 그 사랑의 맛을 느끼는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움을 가지고 요동치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의 성에서 안전함과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그리고 그 시냇물은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1-2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고 한 것입니다(겔 47:1 참조). 이 생명수의 공급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의 성인 교회 안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을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장막이고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기쁨이 가득 차고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매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 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후반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새벽은 새 날이 도래하는 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환난과 요동하고 흉용하는 상황을 대 전환시키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해주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새벽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계획하고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루시는 시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새벽에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일들을 친히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에 있는 대로 “이방이 환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시매 땅이 녹았도다”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8-9절에서는 이런 하

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와서 여호와와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적들을 밤새 하나님이 쳐부수고 새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날, 새 승리와 기쁨, 새 찬양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10절)고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애를 씌므로 그가 위대해지고 높임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기여하고 공을 세워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위대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의 성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출 3:14)가 아닙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여 홍해가 앞에 가로막힐 때에 모세는 백성들을 안돈시키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두려워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 14:13-14)고 외친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가 앞에서 설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너무 완벽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우리 식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니 하나님은 손을 떼고 계시는 지도 모릅니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말로 오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진실됨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것입니까? 헛갈리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일하시고 승리케 하심으로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앞에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명심하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 앞에 항복하며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와 일하심을 바라고 순종하고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 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아무 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것은 마치 홍해 앞에 서있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그분이 이제 일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태도에서 기다리는 잠잠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잠잠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

을 존재들입니까? 입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가만있지 못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잠잠함은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할 때 비로소 잠잠해집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처음부터 잠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말대꾸하였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신가를 그가 목격하고 체험한 이후에는 앞에 홍해가 가로놓였는데도 요동치 않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 14:13-14).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 다름 아닌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로마서 1:16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복음대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복음을 가지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능력을 베푸시는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고 간섭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설교 준비를 완벽하게 다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시면 허공만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귀가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다고 해서 다 된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들으나 듣지 못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8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조그마한 고난도 싫어하고 도망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연약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9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고질적인 육체의 질병이든 나의 여러 약한 부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이 주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8-9에 보면 심지어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과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히 구출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었던 것을 명심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 오늘 시편 46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7, 11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찬양 드리는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바로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피난처와 승리와 능력과 힘과 환난을 이길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앞에 잠잠하고 순복하며 그가 일하시도록 양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요동치 않음, 두려워하지 않음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온 세상에게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